QA시스템

聖經硏究 시리즈

47

고린도후서

기독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5:1)

Οἴδαμεν γὰρ ὅτι ἐὰν ἡ ἐπίγειος ἡμῶν οἰκία τοῦ σκήνους καταλυθῇ, οἰκοδομὴν ἐκ θεοῦ ἔχομεν οἰκίαν ἀχειροποίητον αἰώνιον ἐν τοῖς οὐρανοῖς.

고린도후서 차례

고린도후서 서론 ····· 〈16제〉 ··· 167
제 1 장 바울의 문안 인사와 순수성에 대한 변론 ····· 〈22제〉 ··· 174
제 2 장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 ····· 〈17제〉 ··· 183
제 3 장 새 언약의 일군된 바울 ····· 〈19제〉 ··· 190
제 4 장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축복 ····· 〈24제〉 ··· 197
제 5 장 그리스도의 사신(使臣) 바울 ····· 〈24제〉 ··· 206
제 6 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 〈24제〉 ··· 214
제 7 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 〈19제〉 ··· 223
제 8 장 예루살렘의 성도를 구제하라 ····· 〈18제〉 ··· 230

제 9 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 …… 〈14제〉 … 237
제 10 장 사도들의 권위를 가진 바울 …… 〈20제〉 … 243
제 11 장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 〈20제〉 … 251
제 12 장 환상과 육체의 가시 …… 〈20제〉 … 260
제 13 장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방문 예고와 경고 …… 〈13제〉 … 269

고린도후서 특별 자료 차례

고린도후서 서론 〈지도 자료〉 고린도의 위치 …… 173
제 1 장 〈연구 자료〉 만인 구원론(萬人救援論) …… 182

제 2 장 〈연구 자료〉 영지주의(Gnosticism) ····· 189
제 3 장 〈본장의 요절〉 ····· 196
제 4 장 〈화보 자료〉 신앙의 순교자들 ····· 205
제 5 장 〈본장의 요절〉 ····· 213
제 6 장 〈본장의 요절〉 ····· 222
제 8 장 〈본장의 요절〉 ····· 236
제 9 장 〈화보 자료〉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여인 ····· 242
제 11 장 〈화보 자료〉 다메섹(Damascus)의 옛 성벽 ····· 259
제 12 장 〈연구 자료〉 낙원(樂園) ····· 268
제 13 장 〈본장의 요절〉 ····· 274

고린도후서 서론

1. **Q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A (1) 본서의 저자는 바울이라는 견해가 정설(定說)로 되어 있다.
   (2) 19세기 독일의 자유주의 학파의 기수로서 13권의 바울 서신들 가운데 무려 9권을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튀빙겐 학파(Tübingen school)의 창시자 바우르(F. C. Baur) 조차도 본서를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와 함께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했다.
   (3) 또한 폴리갑(Polycarp, A. D. 105년경),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85년경),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A. D. 210년경) 그리고 터툴리안(Turtullian, A. D. 210년경)과 같은 초대 교회 교부들도 본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인용했다.
   (4) 뿐만 아니라 본서 가운데도 이 편지의 발신자가 바울로 언급되어 있다(1:1;10:1).
   (5)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본서의 내적, 외적 증거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2. **Q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A (1) 본서신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었다(1:1).
   (2) 당시 고린도는 로마의 식민지인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로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들러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며 그의 아가야 지방 전도 여행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행 18:11).
   (3) 바울은 그곳에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으며 디도 유스도의 집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였다(행 18:7, 8).
   (4) 고린도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방문했던 우상의 도시 아덴에도 교회는 서지 못했지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진실하고 열정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행17:16-34).
   (5) 그리고 겐그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져 적지않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 뵈뵈를 교회의 일군으로 천거(薦擧)하기도 했다(행 19:18;롬 16:1).
   (6) 하지만 규모에 있어서나 내실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아덴이나 겐그레아 등의 기독교 단체를 능가했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의 기독교 생활 중심지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7) 그런 까닭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 앞에 내세운 것이다.
3. **Q 본서신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A (1) 바울은 본서신을 마게도냐 지역에서 기록하였다.
   (2) 이러한 근거는 본서신 7:5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라는 표현에서 간접적으로 제시되었다.
   (3) 또한 아가야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극되어 마게도냐에서도 그러한 연보 모금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의 교인들을 교훈한 사실은 본서신의 기록 장소가 마게도냐임을 뒷받침해 준다(8:1;9:2-4).
   (4) 한편 본서신의 필사본(筆寫本)들에는 '빌립보로부터'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본서신 11:9에 언급된 '마게도냐'도 빌립보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비교, 빌 4:5) 혹자는 본서신의 기록 장소를 빌립보로 보기도 한다.

(5) 하지만 바울이 언급한 마게도냐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마게도냐의 다른 지방, 즉 데살로니가나 베뢰아 교회와 교인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나 베뢰아 설도 가능성이 있다.

(6) 어쨌든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뢰아 모두가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서신의 기록 장소를 마게도냐로 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4. Q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A (1) 본서신의 기록 연대는 고린도전서의 기록 연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참조, 고전 서론 Q 4).

(2)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대를 A.D. 55년 봄으로 볼 때 본서는 가을에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3) 그 이유는 행 20:6에 바울이 니산 월(양력으로 3-4월)에 거행되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 전에 그는 마게도냐로부터 고린도에 도착하여 거기서 겨울 석 달을 보냈기 때문이다(행 20:3).

(4) 또한 본서신의 12:14과 13:1에서도 바울이 곧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본서신이 그가 고린도에서 겨울 석 달을 보내기 직전에 쓰여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5) 그런데 문제 되는 것은 본서신이 A.D. 55년 가을에 기록되었느냐 아니면 A.D. 56년 가을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A.D. 56년 가을 설이 지지되고 있다.

(6) ① 고전 16:6에 언급되어 있는 '겨울'이 행 20:3에 암시되어 있는 겨울에 해당된다고 볼 필요는 없다(참조, 1:15, 16).

② 본서의 8:10;9:2에 기록되어 있는 '일년 전'이라는 말이 반드시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참조, NIV에서는 이를 '지난해'[last year]로 번역).

③ 롬 15:19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울이 이그나티우스 대로(Egnatian Way)를 따라 일루리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지역과 거리상으로 보아 그 여행은 그의 에베소 체류 기간(행 19장)이나 헬라 도착(행 20:2) 어간에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여행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다.

④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를 여행하고 고린도전서와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6개월의 기간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7) 그러므로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56년 가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5. Q 고린도전서와 본서 사이에 발생한 주요 사건들의 연대를 도표로 작성하라.

A

주 요 사 건	연 대(A.D.)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해 디모데 편으로 보냄	55년 봄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	55년 여름 또는 가을
바울이 준엄한 편지를 디도 편으로 보냄	56년 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남	〃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함	56년 여름
디도가 마게도냐에 도착함	〃
바울이 본서를 기록	56년 가을

6. Q 바울이 본서신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A (1) A. D. 55년 봄에 고린도 교회의 어지러운 소식을 들은 바울은(참조, 고전1:11;5:1, 2;8:1-8;고전 서론 Q6) 그 문제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오해를 불식(拂拭)시키고자 디모데 편으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2)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갔기 때문에 바울은 '가슴 아픈 고린도 방문'(2:1)을 하게 되었고 이 방문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이후에도 '준엄한 편지'(2:3, 4)를 디도 편으로 보냈다(9:6).

(3)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에서 기다렸지만 그가 늦어지자 마게도냐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바울의 심정은 매우 착잡하고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었다(7:5).

(4) 그러다가 마게도냐에서 디도와 재회하게 된 바울은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그의 편지를 받아들였으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5) 바울은 이와 같은 디도의 방문 성과를 듣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다(7:16).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정당성의 변호와(10-13장), 아직도 고린도 교회에 남아 있을지 모를 유대주의자들의 잔당을 완전히 소탕하고 고린도 교인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8, 9장).

(6) 그와 더불어 바울은 가난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보를 모금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했다.

(7) 그래서 그는 이런 자신의 심정을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본서이다.

7. Q 본서신의 통일성에 관해 제기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A (1) 현대의 일부 학자들은 본서신이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초기 편지들의 단편(斷片)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2) 첫째, 본서의 6:14-7:1을 제외한 2:14-7:14을 '준엄한 편지'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낸 독립된 편지라고 주장하면서 6:14-7:1을 고전 5:9에 언급된 '이전의 편지'에 속한 것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당시 바울의 사상 전개 방식이 현대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둘째, 9장은 8장의 중복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가 아닌 아가야의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보낸 독립된 서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증거가 없으며 그런 선입견을 버리고 8, 9장을 대한다면 단순한 반복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4) 세째, 10-13장은 1-9장보다 늦게 기록되었으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내었던 독립된 편지라는 주장이다.

(5) 네째, 10-13장은 '준엄한 편지'의 일부이며 1-9장보다 일찍 기록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째, 네째 견해도 뚜렷한 증거가 없다.

(6) 이 같은 현대의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본서신이 단일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불일치의 흔적이나 변동이 있을 수 없다고 인정한 초대 교회 교부들이나 초기 기독교 학자들의 전통적인 견해와 배치된다.

(7) 뿐만 아니라 본서신의 일부가 고린도 교회의 실제 상황과 다르다거나 모순이 있다는 그들의 견해는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이나 직면한 문제 등에 대해 지극히 단편적

이고 적은 자료만을 가지는 오늘날의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억측(臆測)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8. **Q 바울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준엄한 편지'란 무엇인가?**

A (1) '근심케 한 편지' 또는 '눈물의 편지'로도 알려진 '준엄한 편지'에 대해서 본서신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2:4).

(2) 이 '준엄한 편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체로 고린도전서와 본서의 중간에 쓰여졌고 현재에는 전해지지 않는 편지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일반적인 목적은 고린도 교회를 깨우쳐 '불의를 행한 자'를 훈계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2:6, 9;7:12).

(4) 그 목적을 좀더 세분(細分)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다시 가슴 아픈 방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1:2;2:4).

②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알리려고 했다(2:4).

③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순종하는지 시험하려고 했다(2:9).

④ 바울은 자신을 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참된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했다(7:12;비교, 고전 4:15).

(5) 바울은 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치고 자신들을 부추켜 불의를 행하게 했던 자들을 처벌하며 바울이 다시 오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게 되었다.

9. **Q 본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A (1) 그 사람은 '준엄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보고하였던 디도였다(8:6).

(2) 그는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으로서(갈 2:3)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개종했다. 그가 제 1차 예루살렘 회의(A. D. 49, 50년경)에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참석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행 15:2;갈 2:1) 그는 안디옥에서 출생하여 거기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듯하다.

(3) 그 이후로 그는 바울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딛 1:4)이라고 불려질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동역자였으며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여 위로와 격려를 준 조력자며 제자였다.

(4) 바울 서신에는 그에 관해서 모두 12회 언급되고 있는데(갈라디아서 2회, 디모데후서, 디도서 각 1회, 본서 8회)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없다.

(5) 그래서 혹자는 그가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복음 전도의 장소를 제공했던 디도 유스도(행 18:7)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10. **Q 본서신을 특징짓는 표현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A (1) 본서신의 특징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다.

분 류	표 현	헬 라 어	참조 구절
1 - 9장	'마땅히 기쁘게 하다'	카이레인 데이	2:3;6:10;7:4, 7, 9, 13, 16
	'환난 중에 위로'	파라클레시스 엔 들립세이	1:3-7;7:4, 7, 13

10 - 13장	'내가 부득불 자랑하다'	카우카스다이 데이	12:1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다'	뒤나미스 엔 아스테네이아	12:9

(2) 이와 관련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다음과 같다.

분 류	단 어	헬 라 어	등장 회수
1 - 9 장	위로	파라클레시스	9 번
	위로하다	파라클레오	8 번
	환난	들립시스	9 번
	환난받다	들립보	3 번
	기쁨	카라	2 번
	기뻐하다	카이로	4 번
10 - 13장	약함	아스테네이아	6 번
	약하다	아스테네오	7 번
	자랑하다	카우카오마이	19번

11. Q 본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자화상(自畫像)을 설명하라.

A (1) 본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자화상은 한 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바울 혹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바울이었다.

(2) 그는 더 이상 솔직할 수 없는 어조로 자신의 풍채가 형편없고 말씨가 보잘것없다는 점을 고백하고 있다(10:10).

(3)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5:17)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1:3;5:14)와 주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5:10, 11), 여러 교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진 사람(2:4;11:1)이었다.

(4) 그중에서도 그가 세운 교회는 특별한 그의 기쁨이요, 관심의 대상이었다.

(5) 그는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며(1:5) 자신의 몸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졌다(4:10).

(6) 또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되었고 매를 맞기도 했으며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12:7)를 지니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했다(12:9).

(7) 이처럼 본서신에 그려진 바울의 자화상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뒤덮힌,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데에만 온 신경과 관심을 기울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

12. Q 본서신에는 바울의 연보 모금 운동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A (1) 예루살렘의 불우한 교인들을 돕기 위한 바울의 모금 운동은 본서신의 8, 9장 전체가 할애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였다.

(2) 그 이유는 이 운동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애(兄弟愛)를 나타내는 것이며(롬 12:13;13:8;갈 6:10), 이방 교회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빚진 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는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이었다(롬 15:19, 27;비교, 고전 9:11).

(3) 그래서 바울은 본서신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8:10-12). 첫째,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을 본받아야 한다. 세째,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약속한 것인 만큼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이

연보 모금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4)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바울의 헌금관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에 관계되어 있으며(5:18;8:9;9:15) 그 헌금의 동기는 사랑(8:8)과 믿음(9:8)에 있다.

13. Q 본서신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살펴보라.

A

신학적인 내용	참조 귀절
그리스도인의 수난	1:3-11;4:7-18;6:3-10;12:1-10
새 언약을 전파해야 하는 자의 역할	2:14-17;4:1-5;5:16-21;11:28, 29;12:14, 15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관계	3:7-18
죽음과 부활	4:7-5:10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직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	8, 9장

14. Q 본서신의 구조를 설명하라.

A (1) 본서신은 명확히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2) 첫째, 바울의 행위와 사도로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1-7장은 변증적(辨證的)이다.

(3)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위한 연보를 다루고 있는 8, 9장은 권면적(勸勉的)이다.

(4) 세째,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있는 10-13장은 논증적(論證的)이다.

15. Q 본서신의 대지를 구분하라.

A (1) 서언/1:1-11

① 바울의 문안/1:1, 2

②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감사/1:3-7

③ 죽음의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음/1:8-11

(2)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사도의 중재/1:12-2:13

① 바울의 계획이 변경된 이유/1:12-2:4

② 죄의 용서/2:5-11

③ 드로아에서 평안을 얻지 못함/2:12, 13

(3) 사도로서 행한 바울의 사역/2:14-6:10

① 사도 직분의 특권/2:14-17

② 사역의 결과/3:1-3

③ 사역을 위한 언약/3:4-18

④ 복음이 가져온 빛/4:1-7

⑤ 사도 직분의 시련과 보상/4:8-18

⑥ 사역의 중한 책임/5:1-21

ㄱ. 부활의 확신/5:1-9

ㄴ. 그리스도의 심판대/5:10-13

ㄷ. 그리스도의 사랑/5:14-21

⑦ 사역의 실행/6:1-10

(4)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교훈/6:11-7:16

① 마음을 열라/6:11-13

② 악에서 떠나라/6:14-7:1

③ 회개로 인한 기쁨 / 7:2-16

(5)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연보 / 8:1-9:15

① 연보의 원리 / 8:1-6

② 연보의 목적 / 8:7-15

③ 연보의 방법 / 8:16-9:5

④ 연보에 따르는 축복 / 9:6-15

(6)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변호 / 10:1-12:18

① 바울의 사도적 권위 / 10:1-18

② 사도권에 대한 증거 / 11:1-12:18

ㄱ. 바울의 행동 / 11:1-15

ㄴ. 바울의 고난 / 11:16-33

ㄷ. 바울의 환상 / 12:1-10

ㄹ. 바울의 희생 / 12:11-18

(7) 끝맺는 말 / 12:19-13:13

① 회개의 촉구 / 12:19-21

② 바울의 계획 / 13:1-10

③ 작별 인사와 축복 / 13:11-13

16. **Q 본서신의 요절을 제시해 보라.**

A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帳幕)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5:1).

지도자료

고린도의 위치

고린도는 그리이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교량 도시로서 에게 해와 아드리아 해 사이의 지협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 로마 지배하에서 이 도시는 군사·경제적 요충지로 더욱더 부각되었는데 바울도 이곳에서의 선교에 각별한 정열을 기울였었다(참조, 행 18:1-11).

제 1 장 바울의 문안 인사와 순수성에 대한 변론

단락구분 *1-2* 인사와 축복 / *3-7*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하다 / *8-11*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되다 / *12-14* 자신의 성실성과 사도로서의 권위를 언급하다 / *15-17*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제시하여 자신의 신실성을 변호하다 / *18-22* 미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 / *23-24*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바꾼 이유를 변론하다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예하는 자가 된 것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앎이라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의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13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 자랑이 되는 것이라

15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 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17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좇아 경영하여 예, 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18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19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1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3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4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 (1) 본장에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모든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문안 인사와 감사(1-11절) 그리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기록되어 있다(12-24절).

(2) 바울은 먼저 문안 인사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쟁점(爭點)이 되었던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앞서 그 사도직의 실제성(實際性)과 완전성 그리고 특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3)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 교회와 관계된 그의 행위에 대해 간단히 변호함으로써 그의 주된 관심이 '우리가…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행하여 왔다'(12절)는 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려 하였다.

(4)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치밀한 계산과 심지어는 진심을 감춰 둔 채 권모 술수(權謀術數)로 일관하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것으로 성도들의 인간 관계에 귀감이 된다(참조, 사 38:3).

2. **Q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였는가?**

A (1)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였다.

(2) 바울은 이 소개처럼 열 두 사도와는 다른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다.

(3) 가말리엘 문하에서 철저하게 정통 유대주의 교육을 받은 유대주의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신하게 된 동기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데 있다(행 22:3-10).

(4)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요(행 9:15) 사환(使喚)과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행 26:16) 이후로부터 그는 자신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하나님의 뜻으로…사도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참조, 고전 1:1; 갈 1:1; 엡 1:1; 골 1:1; 딤후 1:1).

(5) 한편 그의 서신들 가운데 이와 다르게 소개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빌립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빌 1:1)
데살로니가전·후서	바울(살전 1:1; 살후 1:1)
디모데전서	우리 소망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딤전 1:1)
디도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딛 1:1)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나 교사 혹은 평신도로 각각 세움 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각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참조, 고전 6:15; 엡 4:11-16).

3. **Q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 것은 무엇인가?(2절)**

A (1)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하였다.

(2) 여기에서 먼저 '은혜'(헬, 카리스)란 말은 은총, 호의, 친절, 선물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이 말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와 구원을 얻게 하시며(롬 3:24; 고전 15:10; 히 2:9), 성령을 통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시어 그들의 믿음과, 지식, 사랑을 지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성장시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과 호의를 의미한다(4:15; 행 18:27; 살전 1:12).

(4) 또한 이것은 하늘 보좌를 내어 놓으시고 인간이 되어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미한다(8:9; 갈 1:16).

(5) 그리고 '평강'(헬, 에이레네)이란 말은 평화, 화해, 일치를 뜻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 구원이 보증된 영혼의 평안한 상태를 가리킨다(롬 1:7; 8:6; 빌 4:7; 골 1:2; 살후 1:2; 3:16; 딤전 1:2).

(6)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은 인위적인 수단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이 선물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참조, 롬 5:15-17; 엡 2:8, 9; 골 3:15).

4. Q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송하였는가? (3절)

A (1) 바울은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였다. 그런데 원본에는 '… 하나님' 다음에 아버지를 지칭하는 헬라어 〈파테르〉가 나온다.

(2) 이 말은 곧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계 19:16) 하나님이 되심과 동시에(히 1:8)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다(마 16:16; 26:61-64).

(3) 둘째, '자비의 아버지'시라고 찬송하였다. 이 표현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라는 말을 히브리 어법으로 나타낸 것으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을 찬송한 것이다(딛 3:4-7).

(4)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풍부하시고(느 9:17) 영원하시며(사 54:8) 크시고(욜 2:13; 욘 4:2) 차별이 없으시며(눅 6:35; 히 5:2) 끝이 없으시다(시 108:4).

(5) 세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송하였다. 이 찬송대로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며(7:6; 시 86:17; 사 12:1; 51:3; 66:13)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시 71:21; 66:17; 롬 15:5).

(6)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자비와 위로의 주가 되실 뿐 아니라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에 인간으로부터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외면하는 악행이 된다.

5. Q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위로해 주셨다고 고백하였는가? (4절)

A (1)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 중에서 그를 위로하셨다고 고백했다.

(2) 사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갔었고(행 14:19) 빌립보에서는 귀신들렸던 여종을 낫게 해줌으로써 그 주인들의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다(행 16:19-24).

(3)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데메드리오를 위시한 은장색(銀匠色)들의 소동으로 인해 곤경에 처하기도 했는데 바울은 이 환난을 8, 9절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였다고 설명한다.

(4)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안, 격려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5)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6) 이와 같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거나 훗날 당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사 40:1, 2; 살전 5:14).

6. Q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5절)

Ⓐ (1)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불렀다.

(2)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거짓 증인들에게 모함을 받고(마 26:60, 61) 유대인들에게 배척과 미움을 받으며(요 1:11;15:23-25) 매를 맞고(막 14:65) 조롱과 모욕을 당했듯이(마 27:39, 40) 바울 자신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3) 그런 까닭에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痕跡)을 가졌노라'(갈 6:17)고 고백할 수 있었다.

(4) 이와 같은 고난은 비단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고난이다(마 10:38;눅 9:23).

(5) 그런데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흔히 생각하듯이 고역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 고난은 앞으로 있을 영광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참조, 롬 8:17).

7. Ⓠ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가? (5절)

Ⓐ (1)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같이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하였다.

(2) 그는 4:17에서 잠시 받는 환난의 경(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重)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하였다.

(3) 이와 같이 성도가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무리 그 세력이 강대하다 할지라도 성도를 패망시키기는커녕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욱 강하게 밀착시키는 이상한 힘이 있다(롬 8:35-39).

(4)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위로를 받을 특권을 소유하게 한다(참조, 살후 1:4-7;딤후 3:11).

(5)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인내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난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4:1, 6;엡 3:13;딤후 4:5).

8. Ⓠ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환난과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가? (6, 7절)

Ⓐ (1) 그는 자신이 당한 환난이 그들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도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위로가 그들에게 닥친 고난을 견디게 한다고 하였다.

(2) 왜냐하면 그들은 견디기 어려운 여러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바울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줄,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목격하고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또한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먼저 그런 것을 경험한 바울로부터 위로와 권면의 말을 듣고 지혜롭게 처신해 나감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들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가질 수 있었다.

(5)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를 나타내고 있는지 또는 실족(失足)될 요소들을 보여 주고 있지나 않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참조, 2:15, 16;마 5:13-16).

9. Ⓠ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8절)

Ⓐ (1) 그 환난은 바울을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하였다.

(2) 여기에서 '끊어지게'에 해당되는 헬라어 〈엑사포레데나이〉는 압박받는 환경에서 탈출구가 완전히 봉쇄(封鎖)되었음을 뜻한다.

(3) RSV에서는 이 말을 너무 무거운 짐을 져서 그 밑에 깔린 짐승처럼 '너무도 심하게 무거워서 깔린'(utterly, unbearably rushed)으로 번역하여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했다.

(4) 이처럼 바울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 일은 무엇인가? 이 일은 아마도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된 에베소 은장색들의 소동(행 19:23-41)과 소아시아에서 폭도들의 폭행으로 야기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가리킬 것이다.

10. Q 바울은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 주셨다고 고백했는가? (9, 10절)

A (1) 그는 사형 선고(死刑宣告)가 자신에게 내려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그를 건지셨고 또한 현재에도 건지고 계신다고 고백하였다.

(2)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를 절망적인 상태로 몰고 가신 목적은 바울이 자기를 의뢰(依賴)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당신만을 의뢰케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롬 4:17; 빌 2:27, 30).

(3) 바울의 위대성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절망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데 있다.

(4) 뿐만 아니라 이런 환난을 통해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秘訣)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길로 행하는 당신의 백성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환난을 예비하기도 하시지만(신 8:5; 시 119:67; 잠 3:11, 12) 온전히 당신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더욱 굳게 세우시며 그 영혼을 연단하시기 위해 환난을 준비하기도 하신다(욥 23:10; 시 66:10; 사 48:10; 말 3:3).

(6)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달으며 기뻐해야 한다(벧전 1:7; 4:12).

11. Q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 (11절)

A (1)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요청하였다.

(2)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한 그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 결과로 그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회중들의 합심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매우 크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 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마 18:19).

(4)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를 위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 뿐 아니라 가장 좋은 도움은 그 형제를 위해 진심어린 기도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참조, 눅 1:10; 행 1:14; 4:24; 12:12; 21:5).

12. Q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자랑하였는가? (12절)

A (1) 그는 세상에서 특별히 그들을 향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되어진 것임을 자기 양심이 증거한다고 주저하지 않고 자랑하였다.

(2) 여기에서 '거룩함'(헬, 하기오테스)이란 말은 순진함, 소박함, 솔직함을 뜻하며, '진실함'(헬, 에일리크리네이아)은 깨끗함, 순수함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3) 이 자랑처럼 바울의 행동의 표준은 '하나님의 솔직함과 진실함'이었다. 이 말을 달리 하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하여 솔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4)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육체의 지혜, 즉 사리 사욕(私利私慾)과 자기 자랑을 위한 인간의 재주와 술책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와 지도를 받은 것이었다.

(5)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행동을 변호한 것은 그가 불성실하게 행동했다는 그에 대한 좋지 못한 평과 불신이 팽배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불식(拂拭)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함이었다.

(6)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성도의 삶의 모든 행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실함과 솔직함'의 자[尺]를 통해 교정되어야 함을 배울 수 있다(참조, 딤후 3:16, 17).

13. Q 바울은 이제껏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13, 14절)

A (1) 그는 그들이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2) 즉 바울은 그가 보낸 서신에 그 내용과 다른 어떤 저의(底意)나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그의 대적자들의 비난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이 읽은 것과 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바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3) 사실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디모데를 통해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받고 디도를 통해 '준엄한 편지'를 받았지만(참조, 서론 Q5, 6, 8) 교회 내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그들의 판단력은 흐려져 있었다.

(4)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재 그들이 자신에 대해 대강 곧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 즉 모든 비밀이 드러날 최후의 심판 날에(참조, 고전 1:8;5:5;살전 5:2) 자신이 그들을 자랑하는 것같이 그들도 그를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다.

(5) 이와 같이 성도는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맞이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마 24:36-51).

14. Q 바울의 원래 고린도 방문 계획은 어떠했는가? (15, 16절)

A (1) 바울은 원래 에베소-고린도-마게도냐-고린도-예루살렘의 여정을 계획했었다.

(2) 이 계획에 따르면 바울은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게 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이를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라고 표현하였다(15절).

(3) 하지만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를 마게도냐로 지나는 길에 방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의 계획을 변경했다(고전 16:5-7).

(4)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복음 전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로 이용해 보고 싶었고, 이와 더불어 그곳에서의 복음의 대적자의 반대도 심각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복음의 씨앗을 확고히 뿌리기 위해서 부득이 고린도 방문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전 16:8, 9).

(5) 그래서 바울은 원래의 계획을 수정해 에베소-마게도냐-고린도로 여정을 짰다.

(6) 그러나 팔레스틴으로부터 들어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할 수 없이 원래의 계획과 수정된 계획을 변경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방문'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다(참조, 서론 Q5).

(7) 그러므로 바울의 실제 여정은 에베소-고린도(가슴 아픈 방문)-에베소(데메드리오의 소동)-드로아-마게도냐(본서신을 쓴 곳) 순이었다(행 19:21-20:2).

15. Q 바울은 어디에 기준하여 전도 여정을 계획했는가? (17, 18절)

A (1) 바울은 모든 전도 여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였다(참조, 고전 16:7).

(2) 그런 까닭에 인간적인 이익이나 감정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허락이 우선되었고,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참조, 행 16:6).

(3)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와 같은 변경을 이유로 바울을 향해 '육체를 좇아 예와 아니라는 말을 경솔히 하고 소홀히 하는 변덕스러운 자'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4)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미쁘신 하나님께서 '예'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자신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를 뿐이며 '예', '아니라'를 그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다.

(5)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속에서 성도는 삶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부딪혔을 경우 어디에 우선권(優先權)을 두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참조, 마 6:33).

16. Q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니라'가 있을 수 있는가? (19, 20절)

A (1) 그리스도께는 '아니라'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만 있을 뿐이다.

(2)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 즉시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참조, 눅 22:42).

(3) 또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예' 하심으로 인해 그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취되었다(참조, 창 22:18; 사 25:8; 합 2:4).

(4)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약속에 대해 '아멘'(진실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소서 라는 뜻)이라고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부언(附言)하였다.

17. Q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 (19절)

A (1) 바울은 자신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하였다.

(2) 여기에서 '실루아노'는 실라의 로마식 이름이다(살전 1:1; 살후 1:1).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자들 중 한 사람이었고(행 15:22, 32)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한 바울의 동역자요 친구였다(행 15:36-41; 16:19-40; 17:1-15; 18:5).

(3)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모태(母胎)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행 16:1-3; 딤후 1:5; 3:15). 그는 할례를 받고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던 바울의 젊은 동역자로(빌 2:22) 바울로부터 믿음의 참아들이라고 불렸다(딤전 1:2).

(4)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시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이었다. 당시 바울은 아덴으로부터 고린도에 이르렀고(행 18:1)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명을 따라 마게도냐로 갔다가 후에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하였다(행 18:5).

(5) 그들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행 18:7-11).

18. Q 바울은 누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을 굳게 세우셨다고 하였는가? (21절)

A (1) 그는 자신을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다.

(2) 여기에서 '견고케 하신'에 해당되는 헬라어 〈베바이온〉은 현재 분사로 계속을 나타내고 있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닌 자들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점차적으로 풍요하게 만들어 주심을 의미한다.

(4) 그러므로 바울의 말 속에는 그와 고린도 교인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상호간의 모든 오해와 불화(不和)를 씻고 지속적으로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5)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의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겸손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

려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傾注)해야 한다(엡 4:2, 3; 골 3:13).

19. Q 바울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누구라고 하였는가? (21절)

A (1) 그는 자신 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우리에 포함)에게도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하였다.

(2) 여기에서 '기름 부음'은 종교적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별(聖別)된 자들, 즉 선지자(왕상 19:16)와 왕(왕상 1:39), 제사장(출 29:7)에게만 행해졌던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상징한다.

(3) 한편 바울의 설명 중 '기름을 부으신'에 해당되는 헬라어 〈크리사스〉는 부정 과거형으로 과거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4) 하지만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기름 부음의 상징적인 의미, 즉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은사를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5) 이런 맥락에서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성별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자격과 책임이 있다(참조, 마 28:19).

20. Q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고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하셨다고 고백했는가? (22절)

A (1)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印)을 치셨다고 고백했다.

(2) '인'이란 문서 따위의 인지(印紙) 위에 그 소유자의 서명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장으로, 유대인들은 보통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 반지나 끈으로 이어 목에 걸고 다녔다(참조, 에 8:8; 단 6:17).

(3) 이런 사회적인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증표가 그에게 붙어 있음을 의미한다.

(4) 그런데 이 증표는 바울과 디모데, 실라에게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붙어 있다(엡 1:13).

(5) 이어서 바울은 이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구속(救贖)의 날, 즉 믿는 자들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최후 심판의 날까지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셨다고 했다(참조, 엡 4:30).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다(롬 8:16; 갈 4:6; 요일 4:13).

21. Q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A (1)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였다(참조, Q 14).

(2) 여기에서 아끼기 위함(헬, 페이도마이)이라는 말은 시간적 여유를 주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다.

(3) 즉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 그를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만을 듣고 그들과 같이 험담(險談)을 하였던 그들의 잘못을 질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기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 방문을 변경했다고 설명하였다(2:1-8).

(4) 그와 더불어 그는 자신의 변명에 그의 대적자들이 퍼뜨린 소문과 같이 경솔하거나 비겁하며 혹은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웠다.

(5) 이와 같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길로 인도하며 회개의 기회를 주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온유함을 보여 준 바울의 모습은 마땅

히 성도들,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참된 목자상(牧者像)이다.

22. Q **바울이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24절)

A (1) 바울은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아끼려'(23절)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향해 마음대로 믿음을 주관하며 그들 위에 군림(君臨)하려는 폭군이라는 말을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2)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에 서 있으면서도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여 율법의 종이 되고 재산을 착취당하며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11:20).

(3)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쁘게 용납하였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라고 묘사하였다(11:19).

(4)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자신의 사명도 그들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기쁨을 지키도록(참조, 빌 1:25) 도와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5) 왜냐하면 비록 잘못 행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스스로 믿음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이다.

(6) 이와 같이 교회 위에 군림하거나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고 약한 성도들을 이끌어 주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여 바른길로 인도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영적 지도자와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한 성도들의 사명이다(벧전 5:2, 3).

연구자료

만인 구원론(萬人救援論). '비록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견해를 가리켜 우리는 '만인 구원론'(Universalism)이라고 한다. 이 견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오리겐(Origen, A. D. 185-254)이며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의 영향을 받은 18세기경의 유니테리안파(Unitarians)가 이에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리고 현대 신학의 총아(寵兒)인 칼 바르트(Karl Barth, 1866-1968)의 신학 사상 역시 만인 구원론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면 이 같은 견해가 과연 성경적인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비성경적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견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공의(公義)는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인간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요 6:38, 39; 17:9).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 곧 사단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이 가해질 뿐이다(계 20:7-10; 21:8). 그러므로 우리는 '만인 구원론'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그릇된 신학 사상임을 분명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제 2 장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

단락구분 1-4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 이유를 변호하다 / 5-11 바울이 범의 행한 자를 용서하도록 권면하다 / 12-13 바울의 드로아와 마게도냐 여행 / 14-17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한 것을 감사하다

1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2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6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9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10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11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12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17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 (1) 본장에는 근심(1, 2, 5절), 많은 눈물(4절), 넘치는 사랑(4절), 용서(7, 10절), 위로(7절)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2)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했고 그 대신 눈물로 얼룩진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히면서 범의 행한 자를 용서하도록 권면하였다(1-11절).

(3) 이어서 그는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호기(好機)를 맞이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염려되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떠나 마게도냐로 갔었다고 설명하였다(12, 13절).

(4) 그러나 그의 말은 갑자기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바뀌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이 처한 어려운 환경과 내적인 고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기 때문이다(14-17절).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성도를 붙드신 당신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는 신실한 분이다(참조, 스 7:9; 시 17:14; 사 42:6).

2. Q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A (1) 바울은 그 이유를 '다시 근심(헬, 뤼페; 고통, 서러움, 슬픔의 뜻)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決斷)' 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2) 이제까지 그는 고린도를 두 번 방문하였다. 처음에는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였고(행 18:1-18) 두번째는 고린도 교회 내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그에 대한 오해와 교회 내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하기 위해서였다(12:14; 13:1, 2).

(3) 그러나 첫번째 방문이 기쁨의 방문이었다면 두번째 방문은 가슴 아픈 방문이었고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더욱 큰 불신과 그에 대한 멸시의 여지만을 남겨 놓았다(참조, 서론 Q 5, 6).

(4)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뿐만 아니라(참조, 1장 Q 21) 이전에 행했던 가슴 아픈 방문과 같이 슬픔과 고통의 방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5) 이와 같이 모든 일에는 거기에 알맞는 적당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 아픔을 감내(堪耐)하며 기도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참조, 딤후 4:2).

3. Q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하였는가? (2절)

A (1) 그는 오직 그를 근심하게 한 고린도 교인들만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이 말은 곧 그를 근심케 한 원천이 고린도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시정할 때만이 그의 마음에 슬픔과 근심이 가시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뜻이다.

(3) 이 말 속에는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암시되어 있다. 즉 원래의 계획대로 고린도 방문을 강행하여 지금까지 저지른 성도들의 잘못을 엄단(嚴斷)한다면 그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근심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하여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훗날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참조, 3절, 1장 Q 21).

(4) 이와 같이 잘못을 저지른 형제들에게 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를 제공해 주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취할 태도이다.

(5) 또한 잘못을 저지른 성도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그로 인해 근심하는 형제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마 5:23, 24).

4. Q '이같이 쓴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절)

A (1) 먼저 '이같이'에 해당되는 헬라어 〈투토 아우토〉는 '이와 동일한 일을' (this same thing)이라고 직역할 수 있으며, 2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를 강력히 촉구한 것을 의미한다.

(2) 이와 같이 바울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쓴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그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① 고린도전서 ② 준엄한 편지 ③ 고린도후서 등이 있다.

(3) 하지만 이 견해들 가운데 A. D. 56년 봄에 바울이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준엄한 편지(눈물의 편지 또는 근심케 한 편지)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4) 왜냐하면 '준엄한 편지'는 고린도전서와 본서의 중간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 기록된 것이며 그 어조(語調)도 다분히 회개의 촉구와 경책조(警責調)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서론 Q 5, 8).

5. **Q 바울이 준엄한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인가? (3, 4절)**

A (1) 첫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올바른 판단력과 이해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2) 왜냐하면 과거의 두번째 고린도 방문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슬픔을 주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그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재현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3) 둘째, 바울은 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괴로움을 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향한 그의 넘치는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참조, Q 10).

(4) 이렇게 볼 때 그의 편지 속에 나타나 있는 질책과 회개의 촉구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로 그 아들을 다스리듯이(참조, 신 8:5; 잠 3:11, 12)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넘치는 사랑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5) 그러므로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협한다거나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들의 기쁨을 돕기 위한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기록된 것이다(참조, 1:24).

6. **Q 바울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준엄한 편지를 기록했는가? (4절)**

A (1) 바울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준엄한 편지를 썼다.

(2) 여기에서 '환난'에 해당되는 헬라어 〈들립시스〉에는 '압박', '괴로움'의 뜻이 있고, '애통'에 해당되는 헬라어 〈쉬노케〉에는 '억압', '고통', '근심', '고민'의 뜻이 있다.

(3) 따라서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란 '심한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한다.

(4) 이처럼 바울은 가슴 아픈 방문을 통해 직접 체험하고 또한 소문으로 들은 고린도 교회의 모든 소식들이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안타까운 것이었기에 심히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던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편지에는 바울의 진심과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6) 결국 디도가 전달한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교회 내의 불의를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등 새로운 각성(覺醒)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7)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상대방이 잘못 행하는 것을 안타까와하는,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나온 충고와 경책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7. **Q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케 한 자'를 처벌한 배경을 설명하라(5, 6절).**

A (1)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통해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받고 과거 자신들이 바울이 '가슴 아픈 방문'을 했을 당시에 취한 행동을 뉘우치며 근심하였다(참조, 7:8-11).

(2)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오기를 갈망하면서 자신들의 변화된 태도를 바울에게 분명히 보여 주고 싶었다.

(3) 그래서 그들은 그 증거로 '근심케 한 자', 즉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혹은 두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을 비난하고 불의를 행했던 자를 처벌하였다.

(4) 혹자는 그들이 처벌한 '근심케 한 자'가 고전 5:1에 언급된 근친 상간(近親相姦)의 죄를 범한 자와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Garver, Harris, Tyndale).

(5) 한편 이 사람에 대한 징계는 교회의 공식적인 집회나 전체 성도의 투표 혹은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을 것이다.

(6)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의 처벌 문제에 있어서 둘로 갈라졌다. 즉 그 사람에게 이미 벌을 주고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대다수의 성도들과 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갈라졌다.

8. Q **고린도 교회에서 집행한 '근심케 한 자'에 대한 처벌은 어떤 것이었는가?** (6절)

A (1)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가해졌던 벌은 파문(破門)일 것으로 추측된다(고전5:13).

(2) 이 파문에는 일시적인 추방과 영구적인 추방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려진 추방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3) 그런데 영구적 파문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은 즉시 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 파문 결정을 집행하지 말고 경고를 준 것으로 만족하자고 주장했고 일부 소수의 사람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9. Q **바울은 근심케 한 자의 처벌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권면(勸勉)하였는가?** (6-8절)

A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미 그 사람에게 준 벌로 족하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고 권면하였다.

(2)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은 교회가 불의를 행한 자에게 내리는 징계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해 준 것이다.

(3) 즉 교회의 징계는 불의를 행한 사람을 선도(善導), 즉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 다시 온전한 성도의 위치로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 따라서 일단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상 다른 성도들도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마땅한 태도이다(참조, 엡4:2;골3:13).

(5) 그 이유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이 계속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징계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역효과를 초래해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의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큰 슬픔에 잠길 것이며 나아가서는 신앙을 잃어버릴 염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6)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는 말을 덧붙였다.

(7) 이 말은 곧 지금부터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사랑하듯이(요15:12;살전3:13) 사랑하는 태도로 대하여 다시 성도로서의 위치가 회복되었음을 인준(認准)하라는 뜻이다.

(8) 그러므로 교회는 불의 행한 자를 징계할 때 그 징계에 절대로 혈기나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단 회개한 자에게는 용서, 위로, 권면 등과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서 그 사람과의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참조, 눅17:3).

10. Q **'이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9절)

A (1) '이것'은 3절의 '쓴 것'과 마찬가지로 '준엄한 편지'를 가리킨다(참조, Q 4).

(2) 바울은 여기에서(9절) 그 편지를 쓴 또 다른 목적 하나를 제시하였다. 즉 그 목적이란 고린도 교인들이 범사에 그의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3) 이와 같은 바울의 기대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A.D.55년 여름 또는 가을경에 있었던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 때에 자신들이 취한 행동을 반성하면서 '준엄한 편지'에서 바울이 명령한 대로(참조, 서론 Q 8) 불의 행한 자를 징계함으로써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참조, 7:11, 12).

11. Q **바울은 자신의 용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0절)

A (1) 그는 먼저 그 문제의 성도를 용서해 주려는 고린도 교인들의 결정에 자신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2)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용서가 그들을 위해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3) 여기에서 '그리스도 앞에서'(헬, 엔프로소포 크리스투)란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증인으로 보시고 인정하는 가운데'라는 뜻이다.

(4) 따라서 바울의 용서는 일시적인 기분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심과 같은'(골3:3) 진실된 용서였다.

(5) 이 같은 진실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前提條件)이 되며(마5:12,14, 15; 18:23-35; 막11:25) 성도간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하루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형제를 용서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눅17:4; 참조, 마18:22).

12. **Q 바울은 잘못을 저지른 성도를 용서하는 것이 어떤 목적 때문이라고 하였는가?**(11절)

A (1) 바울은 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2) 이 말을 바꿔 하자면 잘못을 저지른 성도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므로 해서 그 사람이 근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면 사단은 그 사람에게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까지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사단은 성도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기 위해서(눅9:39; 벧전5:8) 성도를 비방하고(욥1:9-11), 성도를 대항하며(슥3:1; 엡6:12), 성도에게 분(忿)을 품도록 유도하여(엡4:26,27) 교회를 분열시키는 책동(策動)을 서슴지 않는다.

(4)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사단의 궤계(詭計)가 불 보듯이 환한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른 성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의 궤계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하였다.

(5) 성도에게는 사단을 대적하고(엡6:11,12; 약4:7)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있다(롬12:1).

(6) 그런데도 우리 자신의 이익과 체면 등에 손해가 있다고 해서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사단의 권모 술수(權謀術數)에 농락당하는 것이 된다.

13. **Q 바울은 어떤 이유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는가?** (12, 13절)

A (1) 그 이유는 드로아에서 디도(참조, 서론 Q 9)를 만나지 못하므로 인해 바울의 심령이 편치 못했기 때문이다.

(2) 그 당시 디도는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파송된 상태에 있었다.

(3) 바울은 디도에게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드로아나 여의치 못하면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듯하다.

(4) 그런데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된 은장색(銀匠色)들의 소동이 발생하므로 인해(행19:23-41) 바울은 디도와 만나기로 약속했던 날짜보다 일찍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로 갔다.

(5) 하지만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 전도의 기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 ② 에베소에서 겪은 소동 ③ 디도의 안부 등의 문제로 위축되어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고 다음 회동지(會同地)인 마게도냐로 떠난 것이다.

(6) 이와 같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눈길을 밑으로 내려뜨리고 자신의 염려와 근심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참조, 신31:6; 수1:6,7).

14. **Q 바울은 누구에게 감사하였는가?** (14절)

Ⓐ (1) 바울은 앞에서의 실망된 분위기(12, 13절)를 바꾸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2) 여기에서 '이기게 하시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드리암뷰오〉는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적군 포로들을 자기들의 행렬 속에 결박하여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을 가리키는 말이다.

(3)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포로를 이끌고 당당히 개선하시는 그 개선식에 참여하는 의기 양양한 병사가 되게 하시는'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한편 로마에서는 개선 행렬이 쥬피터 카피톨리누스(Jupiter Capitolinus) 신전에 도착할 때면 그 신전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때 제물이 타는 냄새나 향불 타는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게 된다.

(5)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냄새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복음을 나타내는 도구로 아가야,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등지에서 사용하셨다.

(6)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을 언제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군사로 삼으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또한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쁘게 인정했다(참조, 1장 Ⓐ2).

(7) 성도는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병사이며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냄새'임을 기뻐하고 그렇게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딤후 2:3, 4).

15. Ⓠ 바울은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15절)

Ⓐ (1) 바울은 자신을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유하였다.

(2)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란 하나님께로 향하는'이란 뜻이며, '향기'(헬, 에오디아)는 향기로운 제물을 태울 때 나는 좋은 냄새를 의미한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좋은 냄새'라는 말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창 4:14) 하나님께서 흠향(歆饗)하시는 상태를 가리킨다.

(4)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그 증거의 효과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이 된다.

(5)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롬 12:1)고 권면하였다.

(6)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 증거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최후의 지상 명령임과 동시에(마 28:19)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16. Ⓠ 성도에게는 반대되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16절)

Ⓐ (1) 성도는 사망을 좇는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며 생명을 좇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는 것이다.

(2) 그 이유는 그 냄새의 근원이 그리스도 곧 복음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는' 향기가 되어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주는 독약'이 되어 그들을 심판에 이르게 한다(참조, 고전 1:18, 23, 24).

(4) 혹자는 이런 성도의 양면성을 '주인에게는 꿀을 제공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독침을 제공하는 꿀벌의 그것'에 비유하기도 한다(Manson).

(5)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성도의 이중적인 특성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게 '죽음을 주는 독약'이 아니었는지 자문 자답(自問自答)해 볼 필요가 있다.

17. Q 당시 바울이 말하는 '수다(數多)한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가? (17절)

A (1)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서 증거하였다.

(2) 여기에서 '혼잡하게 하여'(헬, 카펠류오)라는 말은 '소매로 장사하다', '부패하다', '간음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다.

(3) 이처럼 그들은 복음을 순수한 복음으로서 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계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자신들의 지식과 율법주의로 옷 입힌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

(4) 한편 바울이 지적한 '수다한 사람'은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였던 떠돌이 선생들과 철학자들, 혹은 복음 전도를 개인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던 고린도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인 바울의 적대자들의 집단을 가리킨 듯하다.

(5)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였다.

(6)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과 사환, 종으로서의 자세를 견지(堅持)했으며 그의 복음 전도에도 결코 사심(私心)을 개입시키지 않았다(참조, 4:2).

(7) 이와 같은 바울의 복음 증거 자세가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복음 증거자들이 따르고 취해야 할 바른 자세이다. 이런 순수한 자세만이 명예와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교회의 분열(分裂)을 막을 수 있다.

연구자료

영지주의(Gnosticism). 본장에서 바울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었음을 언급하였다(17절). 그런 자들 중 대부분은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해서 일찍부터 사도들의 경계를 받아왔다(딤전6:20;요일4:1-3). 영지주의는 A.D.1-3세기에 걸쳐 아시아를 중심하여 일어난 이단 사상이지만 그 기원은 훨씬 이전으로까지(A.D.1C) 거슬러 올라간다.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 뿐 아니라 이집트, 인도, 페르시아의 사상까지 받아들여 기독교의 진리를 합리화시킨 혼합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같은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진리와 상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예수의 인성(人性)과 인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그들의 사상은 근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는 헬라의 이원론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었다(창1:31). 다만 인간의 범죄 이후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을 뿐이다(창3:17, 18).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궁극적으로 본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롬8:18-24). 한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바실리데스(Basilides)와 케린투스(Cerinthus)가 있는데 후자는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에게 대항한 자이기도 하다.

제 3 장 새 언약의 일군된 바울

단락구분 *1-3*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자신의 추천서라고 설명하다 / *4-11* 영광스러운 바울의 영적 직분 / *12-18* 바울이 수건(手巾)을 벗는 비결과 벗은 이후에 얻을 영광에 대해 말하다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 너희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2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6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된 것이 없으나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12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
14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 (1) 바울은 본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의 성격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어떤 천거서(薦擧書)도 필요치 않다 ② 새 언약의 직분이다.

(2) 그러면서도 그는 새 언약의 직분이 옛 언약, 즉 의문(儀文)의 직분을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영적 직분이라고 밝혔다.

(3) 이와 함께 그는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을 벗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자세를 지적하면서 그 수건을 벗는 비결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고 설명하였다.

(4) 이같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그와 고린도 교인들 간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 그의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 Q 바울이 천거서를 언급한 배경은 무엇인가? (1절)

A (1) 바울이 천거서에 관한 질문으로 본장을 시작한 것은 복음 전도로 이득(利得)을 보려고 했던 '수다한 사람' (참조, 2장 Q 17) 중 누군가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바울의 천거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2) 즉 그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전도하려는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천거서를 받아야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그가 사기군임을 증명한다'라는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케 하였기 때문이다.

(3)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의 적대자들은 천거서를 휴대했음이 분명하다. 물론 그 천거서는 예루살렘의 세 '기둥' 사도(갈2:9)나 열 두 사도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에게서 받았을 것이다.

(4)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야말로 구원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행15:5) 또한 율법을 중요시 않고 믿음을 강조한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5)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직에 대한 올바른 입장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처럼 잘못된 견해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때문에 천거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3. Q 당시 천거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1절)

A (1) 초대 교회 당시 천거서는 곧 교회가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소개장이었다.

(2) 이 소개장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이미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그 한 예로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보낼 때 그 지방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 준 것을 들 수 있다(행18:27).

(3) 바울 자신도 과거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 회당으로 떠나기 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바 있으며(행 9:2;22:5), 또한 소개장을 다른 사람에게 써 준 적이 있었다(참조, 8:16-24; 롬 16:1, 2; 고전 16:3, 10, 11).

(4)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에게 소개장이 필요 없다고 한 것은 이런 소개장의 기능을 불필요하다거나 나쁘다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소개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4. Q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칭했는가? (2, 3절)

A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우리의 편지', 즉 천거서라고 하였다.

(2) 그는 이 말을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3) 그러면서 이 편지의 특성이 종이 위에 먹으로 쓰여진 인간들의 편지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출 31:18;32:15, 16)과 달리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육의 심비(心碑; 참조, 렘 31:33;32:38; 겔 11:19;36:26)에 기록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4) 그렇다면 그 편지의 발신자는 그리스도, 대필자(代筆者)는 바울, 먹은 성령 그리고 종이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5) 이 편지의 구체적인 모습은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 있다.

(6) 이와 같이 바울의 천거서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어느 한 당파가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고, 쉽게 지워지거나 변질하는 종이 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지워질 수 없는 고린도 교인들의 심비에 새겨진 완전한 것이었다.

5. Q 고린도 교인들이 천거서라는 바울의 확신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인가? (4절)

A (1) 바울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

(2) 그러므로 이 확신은 자연인의 자신(自信)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자신의 천부적인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다.

(3) 혹자는 이 확신을 가리켜 '그것은 인간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말한 심정에서의 확신이요 비판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확신'이라 말하였다(F. G. Carver).

(4) 이와 같이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중보자(仲保者)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확신을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배제된 확신은 참된 확신이라고 할 수 없다(참조, 롬 5:1, 2; 고전 15:57).

6. Q 바울은 자신의 만족이 어디에서 기원했다고 고백했는가? (5절)

A (1) 그는 자신이 향유(享有)하고 있는 만족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고백하였다.

(2) 그의 이런 만족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요 4:14; 7:37-39) 영원하면서도(시 16:1) 참된 영적인 만족으로서(사 55:1, 2)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다(사 65:22-24).

(3) 즉 성도가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창 32:10)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합 3:17-19)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때 누릴 수 있다(히 13:5).

(4)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自足)하기를 배웠다'고 했으며(빌 4:11)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다.

(5) 성도가 누리는 이 같은 영적 만족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전 2:1-11) 믿을 수 없는 육적, 물질적 만족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6)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영적인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육적, 물질적인 데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소개해야 한다(참조, 잠 15:56).

7. Q 새 언약(New Testament)은 무엇인가? (6절)

A (1) 새 언약은 옛 언약의 갱신(更新)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속죄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르다(참조, 렘 31:31-34).

(2) 그래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사 55:3), '화평의 언약'(겔 34:25), '생명과 평강의 언약'(말 2:5)이라고도 불려진다.

(3) 먼저 옛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후에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가리키는데 광범위하게는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4) 이 언약의 골자(骨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다(출 19:5, 6).

(5) 하지만 이 첫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깨져 버리고 말았다(히 7:11; 8:7).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옛 언약을 능가하는 완전한 언약을 세우셨고 그 근거로 이 땅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참조, 마 26:28; 눅 22:20).

(7) 그러면서 새 언약의 근거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 8:12)는 약속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특전(特典)을 허락하셨다.

(8)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罪意識)에 사로잡혀 있거나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롬 5:8-21).

8. Q 새 언약과 옛 언약의 특징을 비교하라(6절).

Ⓐ

특 징	옛 언약	새 언약
대 상	육적 이스라엘(출 19:5, 6)	영적 이스라엘(롬 9:6-13)
내 용	의문(儀文;6절), 형식적	내적, 영적(히 8:10)
방 법	하나님께 제물을 바침으로써 성립	예수 그리스도의 피(죽음)를 믿음으로(마 26:28;눅 22:20)
성 격	행함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롬 10:9, 10;히 10:39)
결 과	임시적인 것	영원한 것(히 8:12)
모 양	흠이 있음	무흠(無欠;히 8:7)

9. Ⓠ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다고 고백하였는가?** (6절)

Ⓐ (1)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로 새 언약의 일군 되기에 만족케 하셨다고 고백했다.

(2) 즉 이 말은 그가 새 언약의 일군이 된 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소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며 동시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 주셨다는 뜻이다.

(3)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일군'이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참조, Ⓠ 7)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를 의미한다(참조, 행 26:14-23).

(4) 바울은 7절에서 이 직분을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의 직분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5) 이와 같이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 전도자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다(참조, 고전 15:10). 그런 까닭에 복음 전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행 1:8).

10. Ⓠ **의문(儀文)이란 무엇인가?** (6절)

Ⓐ (1) 의문(헬, 그람마)이란 옛 언약, 즉 율법을 의미한다(참조, 롬 2:17;7:6;Ⓠ 9).

(2) 이 의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義)가 잘 나타나 있다(롬 7:12).

(3) 하나님께서 의문을 세우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의문을 통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토록 하여서 회개케 하며, 그것에 순종케 함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다(레 18:5).

(4) 그러나 죄악으로 얼룩진 인간은 바로 '죄'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그 의문을 지킬 수 없었으며 그 의문 앞에 들추어진 자신의 죄악된 모습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5) 그러므로 바울은 인간을 죽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문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였다(롬7:10).

(6) 이와 같이 의문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으며 모두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롬 3:20). 따라서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오늘날 소위 '율법주의자들'의 노력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11. Ⓠ **영(靈)은 무엇인가?** (6절)

Ⓐ (1) 여기에서 '영'(헬, 프뉴마)은 주의 영, 즉 성령을 의미한다(참조, 요 6:63).

(2)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의문, 즉 율법으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참조, Ⓠ 10) 살리는 영이시다(롬 8:11).

(3)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

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더 이상 인간들로 하여금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벧전 3:18).

(4)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로 옛 언약, 즉 율법의 지배하에 있던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엄청난 변화'를 제공하였다.

(5) 그때부터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에 지배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인 신분을 받았다(갈 5:1).

(6)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죄와 율법의 굴레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참조, 롬 7:25).

(7)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참조, 갈 3:3; 4:6; 5:18-26).

12. Q 바울은 '영의 직분'의 영광을 무엇과 비교해서 설명하였는가? (7-9절)

A (1) 바울은 '영의 직분'의 영광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의 영광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그러면서 그는 '의문의 직분자'의 대표로 모세를 언급하면서(요 1:16)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석판을 가지고 시내 산에서 내려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장면을 인용하였다(출 34:29-35).

(3)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光彩)를 보면서 그에게 나아오기를 두려워하였기에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4) 이처럼 인간을 정죄하는 '의문의 직분'에도 일시적이긴 했지만 엄청난 영광이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은혜와 생명을 선포하는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장이었다.

(5) '영의 직분'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며, 거기에서 비취는 광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4:6)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빛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과 생명을 가져다 주었다.

(6) 그러므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접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참조, 마 28:19).

13. Q '영광되었던 것'이 영광될 것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9-11절)

A (1) 그 이유는 영광되었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 '영광되었던 것'은 '정죄의 직분'을 가리키며 '더 큰 영광'은 '의의 직분'을 가리킨다.

(3) 이처럼 '정죄의 직분'이 '의의 직분'에 압도당하는 까닭은 '의의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인 반면, '정죄의 직분'은 사라져 가는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참조, Q 12).

(4)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앞을 떠나자마자 그 얼굴의 광채가 점점 희미해져서 마침내는 사라졌던 데에 잘 나타나 있다(참조, 출 34:29-35).

(5) 이와 같은 상황을 혹자는 '태양이 떠오르면 달은 더 이상 밝지 않다'(M. Zerwick), '큰 빛이 비치면 작은 빛은 가려진다'(J. A. Bengel)고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14. Q 바울이 사람들에게 담대(膽大)하게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12절)

A (1)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이 같은 소망', 즉 4절에서부터 언급한 새 언약의 탁월성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그들의 담대함은 인간적인 장점 곧 화술(話術)이나 재물, 배경 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서 기인되었다.

(3) 이 '담대함'(헬, 파르레시아)은 말을 함에 있어서 솔직함, 두려움 없는 정직함을 뜻할 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솔직한 것을 의미한다.

(4)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앞에서(2:17)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

(5) 이와 같이 복음 증거자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사항은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이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만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행 1:8).

15. Q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13절)

A (1)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썼다고 설명하였다.

(2) 여기에서 '장차 없어질 것'이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지속된 얼굴의 광채를 의미한다(참조, 출 34:29, 35).

(3) 이 광채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점점 희미해져서 마침내는 사라졌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라지는 광채를 수건을 써서 가렸던 것이다.

(4) 그러나 바울이 소유한 의의 직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라지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 모세처럼 수건을 쓸 필요가 없었다(참조, Q 12).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복음 전도자들도 수건을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오히려 당당히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또한 전해야 한다(참조, 18절).

16. Q 바울은 모세의 수건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했는가? (14, 15절)

A (1) 그는 모세의 수건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즉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을 덮었다고 했다.

(2) 여기에서 바울은 '모세의 수건'을 성경의 이해와 그리스도로 인해 구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한 상징으로 취급하였다.

(3) 이처럼 유대인들의 마음이 모세의 수건에 의해 정복당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자신의 완고(頑固)함 때문이었다.

(4) 즉 그들은 모세의 얼굴 광채가 사라져 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이 임시적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였으며 오직 그 율법만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였다.

(5)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모세의 수건은 무지와 오해의 수건이며 그들 스스로 참길과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14:6)를 받아들이기 거절한 불신앙의 수건이었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께서 구약을 성취하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들과 동일한 우(愚)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연습을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참조, 행 17:2, 3).

17. Q 모세의 수건이 벗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14, 16절)

A (1) 모세의 수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 무지는 주께로 돌아가면 벗어진다.

(2) 여기에서 '돌아가면'(헬, 에피스트레포)이란 말 속에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3) 따라서 '돌아가면'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을 모두 내버리고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적극적인 회개의 자세를 의미한다.

(4)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고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무지와 오해, 불신앙을 상징하는 모세의 수건은 자연히 벗어지게 된다.

(5)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마 5:17)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율법이 종결(終結)되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롬 10:4).

(6)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 무지와 오해, 불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영적 무지와 오해, 불신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는 이 방법을 권유해 보자(참조, 요 1:45-51).

18. Q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을 모실 때 무엇이 찾아오는가? (17절)

A (1) 자유가 찾아온다(참조, Q 11).

(2) 이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로부터의 영혼의 자유이며 해방이다(갈 5:1).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혼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너무나도 큰 대가(代價)를 지불하셨다(갈 1:4).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이상 율법의 종 노릇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딛 2:14).

(5) 그러나 오늘날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자유를 외치면서도 생활은 율법으로 돌아가며 권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교회 의식에 치중하는 일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의 멍에 아래 자신을 종속(從屬)시키는 종의 모습에 불과할 뿐이다(참조, 롬 6:15).

19. Q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변모하는가? (18절)

A (1) 먼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2) 여기에서 '거울(헬, 카토프트리조)을 보는 것 같이'라는 말은 '거울처럼 비추다'라는 뜻이다.

(3) 새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는 수건으로 덮인 마음(참조, Q 16)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벗은 얼굴로 복음의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4)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 결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영광된 몸으로', 즉 한층 더 영광스러운 위치로 진전하게 된다(비교, 마 17:2; 막 9:2).

(5) 이런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데 욕망, 죽음, 질병, 고난 등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던 성도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변화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참조, 빌 3:21).

(6) 이와 같이 성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은 율법이나 철학, 선행 등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참조, 6절).

(7)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복음의 거울 속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게으르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참조, 딤전 4:15, 16).

본장의 요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3절).

제 4 장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과 축복

단락구분 *1-2* 새 언약의 일군인 바울이 복음 증거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다/ *3-4* 복음을 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 *5-6*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주를 위해 성도들의 종 된 것을 전파하다/ *7-12*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의 고난/ *13-15*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증거하다/ *16-18* 고난이 가져올 미래의 큰 영광

1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
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2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궤휼 가
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3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
에게 가리운 것이라
4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
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
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
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
하며
9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
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
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
이라
11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
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3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
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14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15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
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
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
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
루게 함이니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
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 (1) 바울은 본장의 서두에서 3:12-18에 밝힌 바대로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2)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의의 직분'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3)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역경이 그를 패망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한다고 말하였다.

(4) 더 나아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고 고백하였다(롬 8:18).

(5)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의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참조, 롬 12:12).

(6)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성도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맹목적 입장에서 벗어나 그러한 역경 뒤에 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는 안목(眼目)을 가져야 한다(17절).

2. Q **'이러하므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A (1) 바울은 전장(前章)에서 '새 언약'이 '의문'(儀文)을 능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과 관계 있는 '영의 직분' 혹은 '의의 직분'이 '정죄의 직분'보다 영광스러운 것임을 밝힌 바 있다(3:12-18).

(2) 본장의 서두(1, 2절)는 이런 바울의 설명에 대한 결론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하므로'는 한 마디로 '의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것이므로'를 뜻하는 말이다.

3. Q **바울은 자신이 '의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는가?** (1절)

A (1)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군(참조, 3장 Q9)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헬, 엘레오), 즉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힘입은 때문이라고 고백하였다.

(2)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헌신적이었다(행 9:1, 2).

(3)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당시 자신의 모습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였다(딤전 1:15).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셨다(참조, 행 9:15).

(5)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라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6)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랑할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엡 4:1; 빌 1:27; 골 1:10; 살전 2:12).

4. Q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의의 직분'을 소유한 바울이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한 일들은 무엇인가?** (2절)

A (1) 바울은 먼저 '숨은 부끄러움의 일', 즉 '불명예스러운 공평치 못한 방법들'(disgraceful underhanded ways)을 버렸노라고 선언했다.

(2) 이때에 '버리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동사 〈아페이파메다〉는 확정적인 과거 사실을 말하는 부정 과거로서 이미 버렸음을 의미한다.

(3) 그리고 '궤휼 가운데' 행하지 않노라고 선언했다. 여기서 '궤휼'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누르기아〉는 '교활', '간계'를 뜻하는데 사단이 하와를 미혹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11:3에서는 '간계'로 번역되었다.

(4)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라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생계 수단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잡다한 세상 지식으로 혼합되어 변질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5) 이와 같은 선언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청중들의 인기나 환심을 사려고 변질된 복음을 증거했거나 부정직한 일들을 꾸미지 않았으며 언제나 공명 정대한 방법을 사용했고 정직했음을 고백하였다.

(6) 이것을 통해 바울은 그를 향해 퍼부었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의 반대자들의 악의에 찬 비난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7) 성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과 부정직, 궤휼, 말씀의 혼잡과는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

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참조, 롬 6:13).

5. Q 바울이 자신을 천거(薦擧)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절)

A (1) 그는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천거하였다.

(2)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입은 인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유대인 주석가 필로(Philo, B. C. 20-A. D. 50)는 '하나님의 파수군으로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정의하였다.

(3)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양심도 무디어지고 왜곡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선한 양심은 진리를 수용(受容)하며 열등한 것과 사악한 것을 가리는 능력이 있다(롬 2:15).

(4)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선한 양심을 향해서 조금도 사심(私心)을 품지 않은 채 완전히 진리되신 그리스도(요 14:6)만을 증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참조, 3:17).

(5) 왜냐하면 그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평판(評判)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참조, 계 1:44)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6) 이와 같은 바울의 천거 방법은 특정한 당파에게서 받은 천거서를 자랑하며 바울에게 그것이 없음을 트집잡았던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으로 이미 3:1-3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 있다(참조, 3장 Q 2, 4).

6. Q 바울의 천거 방법이 현대의 복음 전도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절)

A (1) 첫째, 오직 진리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변질된 복음을 증거한다거나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 복음을 부속물(附屬物)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다.

(2) 둘째,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언제나 그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참조, 2:17).

(3) 세째, 천거서는 언제나 각 사람의 양심에 써야 한다. 이 천거서는 세상적인 명성이나 혈연 관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한 지울 수 있는 먹으로 찢어지는 종이 위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양심이라는 종이 위에 성령의 먹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멸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참조, 3:1-3).

7. Q 복음은 어떤 자들에게 가리웠는가? (3절)

A (1) 바울은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웠다고 말하였다.

(2) 여기에서 '망하는 자들'이란 참생명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주로 믿지 않으므로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마 22:1-14; 계 20:12, 13).

(3)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눅 8:4-15)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에 해당된다.

(4) 하지만 이들이 망하는 책임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제공하는 복음에 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 복음을 거절하는 완악한 마음을 소유한 그들 자신에게 있다(비교, 2장 Q 15, 16).

(5)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달리 복음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할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있다(참조, 롬 1:5, 6; 벧전 1:22).

8. Q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4절)

A (1) 바울은 그 이유를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의 광채(光彩)'가 비취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 여기에서 '혼미케 하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튀플로세〉는 '눈을 멀게 하다', '소경이 되게 하다'라는 뜻이다.

(3) 이처럼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패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영안을 어둡게 하여 영적인 어두움에 거하게 하고 빛되신 그리스도(사 9:2; 요 1:4)를 미워하게 만든다(참조, 요 1:5; 3:19; 벧전 5:8).

(4)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참조, 욥 1:9-11; 슥 3:1).

(5) 우리가 이런 사단의 궤계를 이기며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全身甲冑)를 입어야 한다(엡 4:26, 27; 6:11; 약 4:7; 벧전 5:8, 9).

9. Q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4절)

A (1) '이 세상(헬, 아이온)의 신', 즉 '이 시대의 신'은 사단의 별칭(別稱)이다.

(2) 그는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천사였지만(겔 28:14) 지고(至高)하신 하나님과 동등시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에(사 14:13, 14)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사 14:12, 15)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

(3) 이미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으며(창 3:14, 15),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시험을 이김으로써 그분께 굴복당하였고(눅 4:1-12),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참패를 당하였다(요 19:30).

(4) 이처럼 이미 심판을 받은 사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시기 위해 이 세상 종말시까지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이 세상의 신' 또는 '이 시대의 신'이라고 부른다.

(5) 이외에도 사단의 별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바알세불(마 12:24), 벨리알(6:15), 아불루온(계 9:11, 일명 아바돈), 계명성(사 14:12, 일명 루시퍼), 큰 용(계 12:9, 일명 옛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엡 2:2), 온 천하를 꾀는 자(계 12:9),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계 12:20), 시험하는 자(살전 3:5), 악한 자(마 13:19), 살인한 자(요 8:44), 거짓의 아비(요 8:44, 일명 거짓말장이), 이 세상 임금(요 12:31), 원수(마 13:28).

10. Q 바울은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4절)

A (1)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렀다.

(2) '형상'(헬, 에이콘)이란 원형(prototype)을 그대로 그린 초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명칭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과 성품을 지니신 분임을 의미한다.

(3) 따라서 그리스도의 원형, 즉 본체(本體)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언급하였다(빌 2:6; 참조, 골 1:15).

(4) 또한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소개하였다(히 1:3).

(5)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요 12:35),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9)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다.

(6)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롬 5:8).

11. Q 바울이 전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 그중에 처음 것은 무엇인가? (5절)

Ⓐ (1) 바울이 전한 첫번째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2) 초대 교회 당시 '주'(헬, 퀴리오스)라는 말이 예수께 적용될 때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3) 따라서 바울의 증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참조, 눅 2:11;3:4;요 20:28) 바울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나타낸다(참조, 마 21:3;24:42).

(4) 바울이 방문한 도시에서마다 강론(講論)했듯이(행 17:2, 3) 이 증거 속에도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을 대속해 죽으셨고 부활해,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을 것이다.

(5)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말은 초대 교인들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불신자들에게 증거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다(요 20:28 ; 행 2:36).

12. Ⓠ 바울이 전한 두번째 증거의 내용은 무엇인가? (5절)

Ⓐ (1) 두번째 내용은 예수를 위하여 그가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2) 그것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종이 아니라 철저히 주인을 위해 희생하며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종(헬, 둘로스)이 되었다.

(3) 이처럼 '그리스도의 종'(롬 1:1;빌 1:1)이라고 자처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라고 선언한 것은 곧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었다(참조, 고후 2:27).

(4) 이 말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肢體)이기 때문에 약한 성도를 돕고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로하는 등과 같은 헌신은 곧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과 같다.

(5) 이와 같은 바울의 증거는 '믿음의 주관자요 그들 위에 군림(君臨)하려는 자'라는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팽배해 있던 그에 대한 오해들을 푸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1:24).

13. Ⓠ 바울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도들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1) 바울은 그 이유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 즉 이 말은 빛의 근원으로서(약 1:17) 천지 창조의 첫째 날, 말씀 한 마디로 이 세상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창 1:3) 그 빛과 다른 영적인 생명의 빛을 그에게 직접 비추셨다는 뜻이다.

(3) 이 빛에 비취임을 받자마자 바울의 마음을 덮고 있던, 이전까지는 그것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영적인 무지의 어두움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행 9:3;22:6;26:13).

(4) 따라서 이 빛에 비취임을 받는 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으며(히 6:4;10:32) 이러한 은사는 하나님의 택함을 나타내는 표징(表徵)이다(참조, 엡 5:13 ; 벧전 2:9).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답게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한다(요 8:12;엡 5:8;빌 2:15).

14. Ⓠ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1) 먼저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 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한다.

(2) 이 '보배'는 가치 없고 매우 천박하며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다.

(3) 왜냐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5) 그러므로 비록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바울과 및 그 동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롬 3:24).

(6) 오늘날 우리들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무수히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참조, 롬 6:1-10).

15. Q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8-11절)

A (1) 이 말은 예수를 위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8절), '핍박을 받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9절) 따위의 일들을 가리킨다.

(2) 이 말대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항상 위험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였으며 때로는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가기도 했다(참조, 고전 4:9;15:30,31).

(3)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였다.

(4)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 망하지 아니하고' (7,8절) 라고 고백하였다.

(5) 이 일들을 통해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모든 환난이 패배의 표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승리의 표징임을 체험하였다(참조, 엡 3:13).

(6)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텁게 하는 것이요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생명에 동참하게 하는 인증서임을 알 수 있다(롬 8:31-39).

16. Q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 하느니라'의 의미를 설명하라(12절).

A (1) 이 말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몰려왔지만 그런 상황하에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냄으로 인해(참조, Q 14)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였다는 뜻이다.

(2)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방문이나 서신을 통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승리하는 바울의 체험을 듣거나 각 성(各城)에서 바울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3)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특히 그들 앞에 험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올 때 바울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4)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며(참조, 골 1:24)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참조, 딤후 2:10)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5) 한편 '역사하시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네르게이타이〉의 시제는 현재형이다. 이것은 바울을 사망 가운데로 인도할 것만 같았던 환난과 시련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위로가 그 당시 계속되고 있는 일임을 나타낸다.

17. Q 바울이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인가? (13절)

A (1) 바울은 환난 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인 시 116:10을 인용하여서 자신이 가진 믿음이 이 시편 기자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2) 이를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라고 설명하였는데 여기서 '믿음의 마음'(헬, 프뉴마 테스 피스테오스)이란 '믿음의 영'을 뜻한다.

(3) 이 '믿음의 영'이 환난과 시련 속에 있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었듯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 더 나아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확신

을 주시고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한다(참조, 삼하16:12).

(4)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와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줄 수 있었다.

(5) 우리도 이런 신앙 선배들과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 주어야 한다(참조, 행9:19, 20; 롬10:10).

18. Q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무엇이라고 피력(披瀝)했는가? (14절)

A (1) 그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라고 부활의 소망을 피력하였다.

(2) 즉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과 고린도 교인들 크게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다같이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소망하였다.

(3) 본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을,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5:10) 그리고 '예수와 함께'(헬, 디아 이에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다.

(4) 이와 관련된 부활에 관한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는 고전15장을 참조하라.

(5)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세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앞에 떳떳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지금부터라도 더욱 경성(警醒)하여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과 믿음을 소유하도록 애써야 한다(참조, 딤후2:15).

19. Q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고백하였는가? (15절)

A (1) 그는 모든 것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한다고 고백하였다.

(2) 이미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5절; 참조, Q 12).

(3) 이 증거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참아냈다(참조, 골1:24; 딤후2:10).

(4)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속에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철저한 자기 희생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담겨 있다(참조, 사53:7; 요1:29).

(5) 이처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희생, 봉사하는 태도는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마땅히 그리스도의 종된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참조, 마6:24; 행20:19; 갈5:12; 빌3:3).

20. Q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목적은 무엇인가? (15절)

A (1) 바울은 그 목적을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고 밝혔다.

(2) 이 말대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의 모습을 통해(참조, Q 16)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

(3) 또한 그들은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다.

(4) 이와 같이 바울은 비록 자신의 손과 발로 모든 일을 행했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칭찬을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렸다.

(5) 그는 자신의 모든 소망과 관심의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맞추었고 자신은 단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도들의 종으로서 만족하였다.

(6) 그 이유는 이미 그 자신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회복했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롬 14:8; 갈 2:20).

(7)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자유를 회복받은 우리들도 발걸음을 우리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옮기는 쉬임 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전 10:31).

21. Q 바울이 낙심치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A (1)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일군이 되었기 때문이다(1절).

(2) 둘째,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리라는 소망 때문이다(14절).

(3) 세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윤택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당면한 과제 때문이다(15절).

(4) 바로 상기(上記)한 사실들 때문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고통 중에서 낙심치 않았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환난을 이겨 냈고 현재에도 이겨 내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도 이겨 낼 수 있어야 한다(히 10:36; 약 5:7).

22. Q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6절)

A (1) '우리의 속'이란 피조물로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인간인 '겉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속사람'을 의미한다.

(2)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요(벧전 1:3, 23), 허물로 죽었다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며(엡 2:5) 장차 올 시대의 인간이다.

(3)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5:17), '새 사람'(골 3:9, 10)이라고 하였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단 '속사람'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때부터 '겉사람'은 후패(朽敗)하기 시작하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와지기 시작한다(엡 3:16).

(5) 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術數), 분쟁, 시기 등과 같은 육체의 일을 저버리고(갈 5:19-21)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롬 7:22)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서(갈 5:22, 23)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23. Q 바울은 그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무엇을 이루게 한다고 고백했는가? (17절)

A (1) 그는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그에게 이루게 한다고 고백하였다.

(2) 사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은 환난들은 그에게 거의 살 소망마저도 앗아 갈 정도로 참기 힘든 것이었으며 기독교로 개종(改宗)한 이후로부터 로마에서 순교당하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참조, 1:8; 11:23-29).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환난을 '잠시 받는…경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환난과 그 대가로 그가 받을 영원한 생명의 상속과 비교해 볼 때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순간(瞬間)에 지나지 않으며 하찮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이런 이유로 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딤후 2:10)라고 적었다.

(5)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겪을 때 현재 처한 자신의 입장만을 바라보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큰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롬 8:18; 딤후 2:10).

24. Q 바울이 돌아본 것은 무엇인가? (18절)

A (1) 바울이 돌아본 것은 장차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17절)으로서 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2)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과는 달리 영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으로서 오직 믿

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3)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實狀)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다(히 11:1).

(4) 이런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을 담대히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참조,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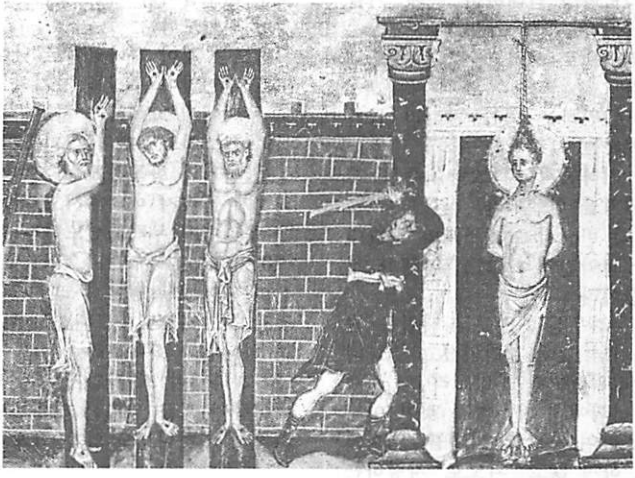
(5) 한편 본절에서 '돌아보는'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코페오〉는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6)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역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불신자들의 조소(嘲笑)를 받기도 한다.

(7) 하지만 이런 조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증거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러한 조소를 우리는 기쁘게 받을 수 있다(참조, 잠 3:11, 12; 계 3:19).

화보자료

신앙의 순교자들.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3세기경 길리기아 지방의 기독교인들인 클라우디우스 형제, 자매를 그린 이 그림은 바실리우스 2세의 순교 성자력에 나오는 삽화이다.



바울 당시만 하여도 기독교를 신봉하며 복음의 진리를 이웃에게 전파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전통적인 유대교도들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신봉하면 정죄하려 하였고(참조, 행 23:11-30), 로마 정부는 식민지인들에게조차 황제 숭배만을 강요하였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각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되 항상 순교할 각오를 하고 증거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각오는 본장에도 잘 드러나 있다(8-11절).

제 5 장 그리스도의 사신(使臣) 바울

단락구분 *1-5* 생전에도 주와 동거를 원한 바울 / *6-8* 주와 동거할 소망으로 죽음도 만족케 생각하는 바울 / *9-10* 언제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바울 / *11-13*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들의 봉사자 바울 / *14-19* 예수 안에서 인간과 화해하신 하나님 / *20-21*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6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1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12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3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

1. **Q 본장에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

   A (1)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強勸)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울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14, 17절).

   (2) 둘째,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인해 먼저 화목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증거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18-21절).

(3) 세째,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결코 부끄럼을 당치 않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발걸음을 옮긴 성도 바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1-13절).

(4)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시공(時空)을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다.

2. Q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帳幕) 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A (1)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땅에 있는 장막 집'이 육체를 비유한 말이라고 보고 있다.

(2) 당시 바울은 아시아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1:8-11)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참조, 고전 15:51; 살전 4:15, 17).

(3) 그러면서 그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육체가 일시적인 은신처(隱身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4) 특히 언제 어느 때든지 철거하거나 해체할 수 있는 장막 집을 언제 어떻게 숨이 끊어질지 알 수 없는 인간의 육체에 비유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유는 바울의 직업이 장막지기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행 18:3).

(5) 우리는 이 같은 바울의 모습과 불로초(不老草)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진시황과 같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육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Q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A (1)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땅에 있는 장막 집'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변화될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비유한 말이다(참조, 고전 15:38-54).

(2) 이미 Q1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래하기를 염원했으며 죽더라도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3) 그런 까닭에 그는 자신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으로 전혀 낙담치 않을 수 있었으며 오히려 그 이후에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다.

(4) 한편 학자들간에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처소, 즉 하늘나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참조, 요 14:2).

(5)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누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마감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모습이 바로 유한(有限)한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져야 하는 바른 모습이다.

4. Q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의 탄식은 어떤 종류의 탄식인가?** (2절)

A (1) '여기', 즉 이 세상에서의 바울의 탄식은 현실에서 자신의 낙(樂)을 찾지 못하고 비관하여 발하는 염세주의자들의 자포 자기한 탄식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4절).

(2) 이 탄식은 고통스러운 지상 생활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는 탄식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너무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 탄식이다.

(3) 이미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현재의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요 해방일 뿐으로 불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는 여전히 죽음의 종된 상태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7:25).

(4) 여기에 바로 성도의 탄식이 있으며 이 탄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완전히 양자의 영광을 받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롬 8:22, 23).

5. Q 바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A (1)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2) 여기에서 '벗은 자'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인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지 않은 죽은 자를 의미한다. 유대인들은 육체를 떠난 영(죽은 몸)은 곧 벗은 몸으로 이해했다.

(3) 따라서 바울의 말은 그가 죽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죽지 않고) 영광에 이르고 싶다는 소망을 나타낸 것이다(4절).

(4) 이런 소망은 바울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한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육이 변화하여 죽음과 무관한 존재로서 영존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6. Q 1-4절까지 제시된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A (1)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모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바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2)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릇된 부활관을 주입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부활관을 심어 주기 위함이었다.

(3)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더 이상의 육체적 부활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었다.

(4)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미래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에 개인적으로 영적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다(참조, 딤후2: 17, 18).

7. Q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무엇을 보증으로 주셨는가? (5절)

A (1) 하나님께서는 그 보증으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2) 원래 '보증' (헬, 알라본)이란 말은 상환해야 할 돈에 대한 담보나 보증 또는 나중에 갚아도 되나 수취인(收取人)에게 해당 상품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분할금이란 뜻이다.

(3) 그러나 바울이 '보증'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런 의도를 뛰어넘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구원이란 서로의 합의하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거래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참조, 엡2: 8, 9; 약1: 17).

(4) 이런 맥락에서 '보증'에 해당되는 헬라어 〈알라본〉이 현대에 들어와서 '결혼 반지'를 의미하는 것은 의미 심장한 일이다.

(5)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에 보증이 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께서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3: 18; 4: 16; 엡3: 16) 장차 성도들을 부활시킬 것이기 때문이다(롬8: 11).

(6) 현재의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완성되어지리라는 예표가 되며 보증이 된다(참조, 빌 1:6).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게 되면서 더욱 영원한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다(참조, 1장 Q 20).

8. Q 바울이 죽음에 직면해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 5, 6절)

A (1) 먼저 6절에서 '담대하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다르룬테스〉는 '용기를 얻다', '대담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다르세오〉의 현재 분사형이다.

(2) 이것은 바울이 과거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더욱 용기를 내어 이를 이겨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3) 이처럼 바울이 계속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장차 영광스런 몸을 입게 될 것이며, 이를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자신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5절).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더불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에게 닥쳐 오는 모든 어려움을 담대히 이길 수 있다(참조, 시 125:1 ; 엡 3:12; 히 10:19; 요일 4:17).

9. Q 6절과 8절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A (1) '몸에 거하는 것과 주와 따로 거하는 것이 같다'는 6절의 의미는 '몸을 떠나는 것과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같다'는 8절의 의미와 일치한다.

(2) 하지만 8절은 6절에 대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대구(對句)로 사용되었다.

(3) 즉 6절에 암시되어 있는 바가 8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고 긍정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10. Q '주와 함께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8절)

A (1) 먼저 '함께'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는 장소가 아닌 두 사람 사이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때에 반드시 적극적이고도 상호 교환적인 교제를 의미한다(참조, 막6: 3).

(2) 따라서 '주와 함께 거한다'는 말은 성도의 영생을 의미하며(참조, 빌1: 23; 살전4: 17) 성도가 이 땅에서 체험하는 것보다 더 높은 형태의 그리스도와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

(3) 그러나 6절의 '주와 따로 거한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현재 그리스도와 나누는 이 땅에서의 교제는 가상적인 것에 불과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는 영적인 면에 방해가 되는 것같이 보인다.

(4)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 행동하고 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의 세계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런 문자적인 해석이 틀린 것임을 분명히 했다(7절).

(5) 그러므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체험(빌3 : 10)을 포함한다.

11. Q 바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목표는 무엇인가? (9절)

A (1) 바울의 지상 목표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다.

(2) 여기에서 '거하든지 떠나든지'라는 말이 공동 번역에는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떠나서 주님 곁에 가 있든지'라고 더욱 명확히 번역되었다.

(3) 이처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며 모든 일을 자신의 가치에 기준해서 판단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실까'라는 그리스도의 가치 판단에 의거해서 행하였다(참조, 갈1: 10; 빌1: 20; 골1: 10; 살전4: 1).

(4) 이와 같은 삶이 곧 그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요, 그를 당신의 종과 사환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었다(행9: 15; 26: 16).

(5)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그러면 바울의 삶과는 달리 사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시시각각(時時刻刻)으로 민첩하게 처신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이런 모습을 청산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온 신경을 집중해 보자.

12. Q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쓴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A (1) 바울은 그 이유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2) 이 설명대로 장차 도래할 최후의 심판 날에는 믿음의 유무에 따라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되며(마 13:36-43; 엡 2:8)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살후 1: 6-10).

(3) 반면에 의인들은 믿음의 역사, 즉 믿음에서 나온 행위(살전 1:3)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딤후 4:8).

(4) 이 같은 미래의 결과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 더 나아가 시공을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주(主)된 이유는 되지 못하지만 충분한 부차적(副次的)인 이유는 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때의 기분에 따라 적당히 처신할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행적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한다.

13. Q '주의 두려우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

A (1) '주의 두려우심(헬, 포보스)'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즉 경외심을 의미한다.

(2) 이 '두려움'은 불신자들이 최후의 심판 날 가지게 될 하나님에 대한 공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유익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전능하시고 공의로운 분임을 아는(욥 37:22-24) 경건한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참조, 창 39:9; 삼상 11:7).

14. Q 바울이 사람들을 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A (1) 그 이유는 그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2) 여기에서 '알므로'에 해당되는 헬라어 〈오이다〉는 단순히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가지다', '깨닫다', '기억하다', '경험하다'라는 의미이다.

(3) 이와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주를 향한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러한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었다.

(4) 그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고(고전 2:4),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 자세로 임하였다(고전 9:16).

(5)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실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소망하였다.

15. Q 바울이 11절에서 자신의 복음 증거의 태도를 설명한 목적은 무엇인가? (12절)

A (1) 바울은 그 목적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자천(自薦)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자랑할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2)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과 인간 예수와의 관계(참조, 16절)나 정통 히브리인과의 관계(11:22) 그리고 보다 많은 환상이나 계시를 보았다는 점(참조, 12:1-7) 등의 이유를 들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과 사람의 양심 앞에 흠 없는 것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들을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였다.

(4) 구원이 할례나 무할례라는 외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듯이(갈 6:15)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복음 증거자도 학벌, 처세술, 인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양심 앞에 얼마나 순전한 마음을 가졌으며 얼마나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참조, 2:17).

16. Q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라는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13절).

A (1) 바울과 그 동역자들 특히 그중에서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손가락질까

지 받았다.

(2) 아그립바(Agrippa, A. D. 30-100) 같은 사람은 바울을 앞에 세워 놓고 공공연하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행 26:24)고 말하면서 그를 정신 병자 취급하였다.

(3) 이와 같은 비난의 가장 큰 이유는 정통 유대주의 교육을 받았던 그가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인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魁首)'(행 24:5)로 변모하였다는 점이다.

(4) 그러나 이러한 그의 변화는 '모세의 수건'(3:14)으로 스스로를 가림으로써 참생명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던 영적 소경의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를 만남으로 인해 영혼의 자유자라는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온 것에 불과할 뿐이다.

(5)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그립바를 향해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고 대답할 수 있었다(행 26:25).

(6) 우리는 예수께서 친속(親屬)들로부터,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듯이 우리 또한 불신자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말이 곧 성도와 악인들 간의 구별점임을 잊지 말자(참조, 막 3:21).

17. Q 바울을 강권(強勸)한 것은 무엇인가? (14절)

A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하였다.

(2)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한다(14, 15절).

(3)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롬 8:39).

(4) 이 사랑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는 초강력한 것이다(롬 8:35).

(5)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屠殺)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모든 일을 이긴다고 고백하였다(롬 8:36, 37).

(6)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며 또한 섬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고백하였다(참조, 4:5).

(7)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낙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3:16).

18. Q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14, 15절)

A (1)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2) 제 2의 아담인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할 필요가 없어졌다(롬 5:12-21).

(3)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중보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효용성이 있다(고전 15:22).

(4)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살려 주는 영'이라고 말하였으며(고전 15:45)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롬 5:17)라고 표현하였다.

(5)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왕'으로 승

격(昇格)시키시는 놀랍고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허용하셨다.

(6)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찬양해야 함은 물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육체대로 살다가 패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참조, 갈 5:16-26).

19. Q 바울이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한 배경은 무엇인가? (16절)

A (1)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를 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거짓 메시야라고 판단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무조건 근절(根絶)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행 9:1, 2;26:9-11).

(2)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더불어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14, 15절).

(3) 이 사건은 바울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야와 주(主)로 인정하게 하였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됨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였다.

(4) 그때부터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를 구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다(롬 2:28,29;고전 5:12,13;;갈 3:28;6:10;엡 2:11-22;골 3:11).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점도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환경, 교육 수준 등에 맞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의 여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한다(참조, 행 24:24, 25).

20. Q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가? (17절)

A (1)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여기에서 '안에'에 해당되는 헬라어 〈엔〉은 '연합', '교제', '연결'을 나타낸다.

(3)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며 연결된 상태를 의미한다.

(4) 이 상태는 죄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옮겨진 상태(참조, Q 18)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인 상태이다(참조, Q 17).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바른 조언을 제시해야 한다(참조, 행 19:1-7).

21. Q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17절)

A (1)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누리는 새 사람을 의미한다(참조, 엡 4:24).

(2) 즉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박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롬 6:5-7).

(3)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은 비록 이 세상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그 영혼의 주소는 천국 시민으로 되어 있다.

(4)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죄의 영향력 아래 살 수는 있지만 죄의 종으로 복귀(復歸)하지는 않는다(롬 6:2).

(5)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갈 5:22-26).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모습이다.

22. Q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18절)

A (1) 바울은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

다고 설명하였다.

(2) 여기에서 '화목하게 하시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카탈라소〉는 '화해하다'란 의미이다.

(3) 즉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의 담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분리시켰지만(사 59:2)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원수된 인간들과 화해하셨다는 뜻이다(골 1:15-20).

(4) 따라서 이 화해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그 대상자이며 아무런 공로 없이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혜자(收惠者)일 뿐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롬 5:10, 11).

23. Q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직책(職責)을 받았다고 하였는가? (18-20절)

A (1)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하였다.

(2) 이 직책은 범죄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무죄한 그리스도처럼 바울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3)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히 9:28)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롬 6:10) 또 다른 사람의 대속의 죽음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는 완전한 것이었다.

(4) 따라서 바울의 직책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화해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환이요, 증인으로서의 직책이다(20절).

(5)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참조, Q 24).

24. Q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소유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0, 21절)

A (1) 바울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불신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물론 그 내용은 무죄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다.

(3) 이 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과 빛의 자녀로서 더 이상 어두움, 즉 죄의 종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4) 이와 같은 복음의 내용은 빛되신 그리스도께 세움 받은 열 두 사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모든 시대의 복음 증거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증거한 내용이다. 또한 이와 동일한 복음의 내용이 현재에도 증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5)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 20)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본장의 요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17절).

제6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단락구분 *1-2*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 *3-10* 화해의 사신(使臣)으로서 바울이 경험한 일들 / *11-13*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넓은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다 / *14-16*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가 버려야 할 일들 / *17-18* 주의 자녀가 되는 길

1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
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 우리가 이 직책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 일군으로 자천하
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5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6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
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
의 병기로 좌우하고
8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
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
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
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11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
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12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
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
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
이 어찌 사귀며
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
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17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
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 (1) 본장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부분(1, 2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날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일부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2) 둘째 부분(3-13절)에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5:18)을 수행함에 있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킬 만한 일을 앞으로도 하지 않겠노라고 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군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일할 따름이라고 복음 증거에 관한 자신의 태도를 피력하였다.

(3) 세째 부분(14-18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윤리적인 면들을 강조하였다. 그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 불법, 어두움, 벨리알, 우상과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Q 바울은 어떤 신분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였는가? (1절)**

A (1)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였다.

(2) 이미 바울은 고전 3:9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말 속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5:18),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았으며(5:19),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使臣)으로 임명받았다(5:20)는 사실이 모두 함축되어 있다.

(3)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 증거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공급해 주셨다(참조, 4-10절).

(4)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게 하셨는데 이것은 비단 바울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 더 나아가 시공을 초월한 모든 복음 증거자들에게 해당된다.

(5)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계 수단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짓 복음 증거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6) 결국 이런 자들이 많을수록 상처받고 실족하는 성도들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이런 무리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엡 6:10-17).

3. **Q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인가? (1절)**

A (1)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2) 여기서 '헛되이'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이스 케논〉은 '공허한 방법으로'라는 의미이다.

(3) 즉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곡해(曲解)하거나 비방거리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4) 또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엡 2:8, 9)에 감사하지 못하며 여전히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것(참조, 갈 5:16-21)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5)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모두 저촉(抵觸)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Q 4를 참조하라.

(6) 그러므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참조, 행 17:11; 갈 5:22-26). 물론 여기에는 복음 증거자가 순전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한다(참조, 2:17).

4. **Q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말라'고 권면하게 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하라 (1절).**

A (1)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 준 것과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교인들에게 받게 하며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11:4).

(2)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당(黨)이 지어지게 되었고 서로간에 다툼과 시기와 분쟁 등과 같은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는 일들이 끊일 날이 없었다.

(3) 게다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까지 일어나게 되었다(참조, 7:1; 12:20, 21).

(4) 이처럼 혼란한 상황을 A.D. 55년 여름 혹은 가을의 '가슴 아픈 방문'(참조, 서론 Q)을 통해 직접 목격했던 바울이 또다시 그와 같은 소문을 듣게 되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시킴과 동시에 그 같은 혼란한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5) 그래서 그는 본서신 5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후 본절에서 권면의 말

을 하게 된 것이다.

5. **Q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역설하였는가?** (2절)

A (1) 바울은 사 49:8을 인용하여서(참조, 사 49장 Q9)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역설하였다.

(2) 그가 인용한 사 49:8에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특별한 시기이다(참조, 사 2:1, 2).

(3) 이 특별한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계속된다.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주어져 있다.

(4)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마 24:27, 36). 그래서 예수께서도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눅 12:40)고 말씀하셨으며, 바울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고 말하였다(살전 5:2; 참조, 계 16:15).

(5) 따라서 우리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의 초대(요 3:16)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인내하심은 영원토록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25: 1-30).

(6)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을 마감하시고 심판의 날을 개회하시는 그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오기를 거절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듯이(창 7:16) 구원의 기회를 걷어가실 것이다.

(7) 위에 언급된 사실들을 감안해 볼 때 현재 복음을 거절하거나 혹은 자신이 죽을 때쯤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호언(豪言)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인가를 알 수 있다.

6. **Q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직책이 훼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하였는가?** (3절)

A (1) 그는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했다.

(2) 여기에서 '거리끼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코페〉는 '실족할 계기', '범죄의 기회'라는 의미이다.

(3)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멸시하고 비웃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나 구실을 주지 않으려 했다.

(4) 또한 그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그의 사소한 실수를 보고 실족(失足)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사에 흠 없는 행실과 견실한 생활을 하려고 애썼다.

(5) 이와 같이 복음 증거자들은 자신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들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그의 삶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6) 아울러서 복음 증거자들은 사람들은 복음 증거자가 전하는 말대로 따르기 보다는 복음 증거자가 행하는 대로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7. **Q '많이 견디는 것'이 바울이 당한 시련들 앞에 먼저 언급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 (4절)

A (1) 먼저 '많이 견디는 것'(헬, 휘포모네)이란 말은 인내를 가리키는데 이 말 속에는 시련의 수용(受容)이나 참음 뿐 아니라 그 시련을 끝까지 견디어 낸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2) 이 말 다음에 각기 3개의 단어로 구성된 시련의 3개 그룹이 등장하는 것은 '많이 견디는 것'이 그 시련들을 이기게 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인내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 자신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련의 물결 가운데 빠져서 결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4) 이런 맥락에서 그가 인내를 앞에 내세운 것은 인내를 강조함과 동시에 모든 종류의 시련을 능가하는 인내의 우월성을 나타낸 것이다.

8. Q 인내와 시련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4절)

A (1)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롬 5:3; 약 1:3).

(2) 인내는 궁극적으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눅 21:19).

(3) 따라서 성도의 인내도 일순간에만 행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약 5:7).

(4)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히 10:36)고 하였고 야고보 사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약 1:4)고 권고하였다.

(5) 이와 같은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믿음의 시련이 닥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롬 5:3, 4).

9. Q 바울이 경험한 시련의 종류를 설명하라(4, 5절).

A (1) 바울이 겪은 시련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 첫째는 일반적인 시련들로, 여기에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압박받는 체험인 '환난'(헬, 들립세이스)과 덜 수 없는 역경인 '궁핍'(헬, 아낭카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곤란'(헬, 스테노코리아이)이 포함된다.

(3)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시련들로 '매맞음'(11:24, 25; 행 16:23)과 '갇힘'(행 4:3), '요란한 것'(행 13:50; 14:19; 16:19; 19:29; 21:30)이 이에 속한다.

(4) 세째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스스로 짊어지기를 주저하지 않던 시련들로, 이 속에는 생계 유지를 위한 육체적인 노동의 수고와 복음의 전파를 뜻하는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살후 3:8) 그리고 '먹지 못함'(11:27)이 들어 있다.

(5) 사실 이와 같은 여러 시련들을 묵묵히 참아내는 바울의 행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어리석고 미친 행동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는 귀한 믿음의 표본(標本)이 된다(참조, 고전 4:16; 빌 3:17).

(6) 그러므로 우리는 '왜 바울이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감수(甘受)했는가?'라는 질문을 자문해 보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마 10:38, 39; 16:24).

10. Q 바울은 그의 앞에 밀려오는 모든 시련들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6, 7절)

A (1) 그는 4, 5절에서 언급된 모든 시련을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통해 극복해 나갔다.

(2)

깨끗함	도덕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하는 것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살전 2:10)
지 식	목자(牧者)로서의 통찰력 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변할 줄 아는 것을 말한다(엡 3:10)
오래 참음	자신에게 닥친 모욕이나 상해(傷害)에 대해서 노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3:4)
자비함	사랑으로 타인에게 아량과 동정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롬 12:1)
성령의 감화	모든 시련들을 이겨내게 한 여러 미덕들의 원동력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이끈 인도자이다(갈 5:16-26)

거짓 없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모든 형제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는 정성어린 친절이다(8:8)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바울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역이다(참조, 행 9:5)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선포할 때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씀 전파의 방법이었다(고전 2:4, 5)

(3)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시련을 당할 때 자포 자기(自暴自棄)하거나 세상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의 인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랑하며 오래 참아야 한다. 이것은 세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 요청되는 성도의 모습이다(참조, 14-18절).

11. Q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A (1)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제공해 주는 병기로 양손을 무장하고'라는 뜻이다.

(2) 즉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엡 6:17),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로(엡 6:16) 무장하였다는 말이다.

(3) 이와 같은 모습은 적군의 화전(火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 겹의 나무에 짐승의 가죽을 덮어서 만든 방패를 들고, 한 손에 검을 든 당시 로마 병사의 모습과 유사하다.

(4)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전사(戰士)로 비유한 것은 그 자신이 곧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공격을 막고 있는 영적인 전사라는 사실을 나타낸다(엡 6:12).

(5) 이것은 바울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시련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복음의 대적자들에 의해 초래된 것이지만 실상은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영적인 대적자들에 의해 야기된 것임을 의미한다.

(6) 따라서 이러한 영전(靈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바울과 같이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빛의 갑옷을 입는 방법뿐이다(사 59:17; 롬 13:12; 살전 5:8).

12. Q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 퍼부었던 비난은 무엇인가? (8,9절)

A (1) 그들은 바울을 향해 욕을 하며 속이는 자요 무명한 자라고 혹평을 하였다.

(2) 이 같은 비난에 대해 바울은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전 4:9),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고전 4:13)라고 표현하였다.

(3) 하지만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며 참되고 유명한 자라고 칭하였다.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삼상 16:7).

(5)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비난에 대해 신경을 쓰기 보다는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신경 쓰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5:10; 살전 1:3; 3:9, 13).

13. Q 바울은 스스로를 어떤 자라고 평가하였는가? (9, 10절)

A (1) 바울은 자신을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죽은 자 같으나	살고(1:8-10; 4:8-12; 11:23-30; 행 14:19)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참조, 시 118:17, 18)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비교, 롬 5:3; 9:2; 빌 4:4)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8:9)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참조, 고전 3:21-23; 빌 4:12)

(2) 이 말대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매일 죽음의 위험과 환난을 겪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자요 그들이 누리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깨뜨리는 우울하고 침울한 자요 궁핍할 때가 더 많은 가난한 자로 비쳤을 것이다.

(3)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외치는 순간에 바울은 다시 소생하였고(행 14:19)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으며(행 16:26) 마음속에 항상 샘솟듯 솟아오르는 기쁨을 느꼈다.

(4)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과 함께(빌 4:4)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영적인 부요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했다.

(5) 물론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속자로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소유한 자였다(고전 3:22).

(6) 그런 까닭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께서 당한 모든 고난을 함께 받겠다고 고백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촉구하였다(롬 8:17).

14. Q 9, 10절에 그려진 바울의 자화상(自畵像)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라(9, 10절).

A (1) 9, 10절에 제시된 바울의 자화상은 영적인 것에 사고(思考)와 행동 등 자신의 모든 것의 초점을 맞춘 철저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모습이다.

(2) 이와 같은 모습은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물질에 가치를 부여하며 그 위에 자신의 성(城)을 쌓아 나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자세와 완전히 상반된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서 계실 조그마한 공간조차도 없애 버린 현대인의 틈바구니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어느덧 그들과 타협하고 동화(同化)되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순수한 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참조, 갈 5:24).

(4) 그래서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듯이(딤후 4:10) 처음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 가고 있다(참조, 계 2:4).

(5)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벗된 것이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약 4:4). 또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내적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하며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 구별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약 2:14-26).

15. Q '고린도인들이여'라는 호칭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심정을 설명하라(11절).

A (1) 바울이 독자들을 호칭하며 편지를 쓰는 경우는 그의 마음이 심히 고조되었을 때이다.

(2) 예를 들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유대주의 교사들의 꼬임을 받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했을 때(갈 3:1)와 빌립보 사람들의 관대함을 칭찬할 때(빌 4:15)였다.

(3)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고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강한 애정을 표현할 때 호칭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 경우가 본문에 해당된다.

16. Q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A (1) 먼저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는 표현은 애정을 나타내는 솔직하고 자유스러운 말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2)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라는 말은 모든 것을 수용(受容)할 수 있는 너그럽고, 애정이 있고, 신뢰성이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3) 이 넓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사로서(왕상 4:29)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이다(참조, 갈 5:22; 딛 3:2).

(4)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

랑과 깊은 관심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말이나 편지로써 지적하며 훈계하였다.

(5) 우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형제에 대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요 15:12; 살전 3:12; 벧전 1:22).

17. Q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고하였는가? (11-13절)

A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권고하였다.

(2) 그 이유는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변덕장이요(1:17, 18; 10:2-4),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요(1:24), 스스로 천거한 자요(4:2, 5; 5:12; 10:12, 18), 미친 자(5:13; 11:1, 16-19) 등으로 보며 고린도 교회 내에 분열과 불신이 조장되었던 데서 잘 나타났다.

(4)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마음을 넓게 가지라고 권고한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바울의 애정을 받아들이며 또한 바울에게 뜨거운 애정을 쏟는 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임과 동시에 바울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5)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의 좁은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와 불신의 벽을 쌓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우리 모두 마음을 넓게 하여 상대방을 먼저 이해해 보자.

18. Q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심정으로 말하였는가? (13절)

A (1) 그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권고하였다.

(2) 여기에서 '자녀'에 해당되는 헬라어 〈테크논〉은 '후손'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매우 사랑스러운 호칭인 '아이', '아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3) 이미 바울은 고전 4:14, 15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호칭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4) 이처럼 바울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 대해 깊은 애정을 쏟듯이(참조, 마 7:8, 9)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영적인 아버지로서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다.

(5) 따라서 그의 권고 역시 이러한 사랑과 다만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해주기 바라는 간절하고도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전혀 개인적인 욕심이 개재(介在)될 수 없었다.

(6)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자신의 이익과 관계 있는 대상만을 선별(選別)하여 애정을 쏟는 우리들에게 형제에 대한 바른 권고나 행동관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참조, 갈 4:19; 딤전 1:2, 8; 딤후 1:2; 2:1; 딛 1:4).

19. Q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은 무엇인가? (14절)

A (1) 그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2) 이러한 바울의 권고는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異教徒)들과 멍에를 멜려고 시도하지 말고 마음을 쓰지 말아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3) 이 가르침은 성도가 이교도들과 모든 접촉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다만 신앙 생활과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 같은 바울의 권고는 '너는 소와 나귀를 겨리하여 갈지 말며'라는 신 22:10과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라는 레 19:19의 명령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5)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결코 한 순간도 불신자들과 다른 공기를 마시고 살 수 없

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과 성도의 가야 할 길이 상반된다는 사실이다.

20. Q 성도와 불신자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4-16절)

A (1) 성도와 불신자와의 관계는 결코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같이 연합할 수 없는 관계로서 서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

(2) 바울은 이러한 관계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표현하였다.

(3) 따라서 성도의 삶도 불신자와는 달리 공명정대(公明正大)하고 진실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는 구별된 삶이어야만 한다(갈 5:22-26).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불법을 행하고 어두움에 거하는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있고, 회색 지대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5)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중간 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참조, 계 3:15, 16).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마땅히 빛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할 것이며, 그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쳐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할 적극적인 책임이 있다(마 5:14; 요 8:12; 행 13:47).

21. Q 벨리알에 대해 설명하라(15절).

A (1) 구약에서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에는 매우 불량하거나 방탕하고 거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고(삿 19:22; 삼상 10:27), 다른 단어와 함께 등장할 때는 매우 나쁜 의미를 나타냈다.

(2) 예를 들면 '벨리알의 말'은 악심을 품은 허위 선전을(신 15:9; 시 41:8; 101:3), '벨리알의 증인'은 거짓 증거하는 자를(잠 19:28), '벨리알의 충고자'는 음모를 꾸미는 자(나 1:11)를 의미하는 따위이다.

(3) 한편 위경(僞經)에서는 '벨리알'이 인간의 본능을 근본적으로 교묘히 조작해서 인간을 노예로 만들지만 메시야에 의해 패배당하는 '악마의 제왕'으로 간주되었다.

(4) 본절에서도 '벨리알'은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벨리알'은 사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22. Q 바울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정의하였는가? (16절)

A (1) 그는 우리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정의하였다.

(2) 즉 이 말은 적게는 성도 개개인이, 넓게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다.

(3) 여기에서 '성전'에 해당되는 헬라어 〈나오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한다.

(4) 이 의미대로 성도와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항상 거하시는 장소이다(고전 3:16; 6:16).

(5)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언제나 음행과 '호색, 우상 숭배, 술취함, 방탕 등과 같은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전 4:17).

(6) 그와 함께 벽돌로 만든 예배당이 마치 하나님의 성전인 양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부 목회자들의 주장이 그릇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예배당은 문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다(참조, 엡 2:20-22).

23. Q 성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7절)

A (1) 바울은 그 태도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말하였다.

(2)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바벨론의 이교주의에서 떠나도록 권고한 사 52:11을 인용한 것이다.

(3) 이 인용귀는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 율법주의로 돌아서거나 과거에 행했던 우상 숭배 등으로 돌아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짓들을 행하는 자들이 발생한 고린도 교회 상황에 알맞는 것이었다(참조, 고전 5:1-13).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불신자들이 행하는 음행, 토색, 우상 숭배 등과 같은 죄악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5)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와 같은 죄악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참조, 엡 6:10-18).

24. Q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죄악과 분리된 성도를 향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17, 18절)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2) 먼저 헬라어 원본에는 17b절의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라는 귀절 앞에 '그러면'에 해당되는 접속사 〈카이〉가 나와 있다.

(3) 따라서 이 말은 불신자들과 영적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된다(참조, 삼하 7:14; 사 43:6; 52:11; 렘 31:9; 겔 20:34, 41).

(4) 이 약속은 결코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도 파기(破棄)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며 확고부동한 것이다(참조, 사 63:16; 겔 16:8).

(5) 왜냐하면 이 약속은 영원 무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며,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한 혈통(血統)으로나 육정(肉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기 때문이다(요 1:12, 13).

(6) 그런 까닭에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 받고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롬 8:15; 갈 4:5, 6).

(7)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그 속에는 죄인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담겨 있어야 한다(참조, 엡 1:3-16).

본장의 요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군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4, 5절).

제 7 장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단락구분 *1*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과 영의 순결을 권면하다 / *2-4*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다 / *5-7* 바울이 디도를 통해 위로와 기쁨을 얻다 / *8-12* 바울이 얻은 위로와 기쁨의 이유 / *13-16*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 준 태도에 기뻐하는 디도

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2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가 아무에게도 불의를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3 내가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4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5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6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앎이라

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2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13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14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15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떪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16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

1. Q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A (1) 본장은 한 마디로 기쁨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왜냐하면 바울의 가슴 아픈 방문 이후에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통해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전해 받고(참조, 서론 Q 5)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 속에 있던 바울에게 기쁨을 전해 주는 장면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3) 바울은 본장에서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9절).

(4) 이 근심은 절망과 불안, 초조로 결국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과는 달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죄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자신들을 깨끗케 하는 순결 운동을 전개하게 했으며,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게 했다(10, 11절).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에서 참된 기쁨은 오직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으며, 형제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근심은 이러한 회개를 초래하게 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다.

2. **Q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절)

A (1)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2) 이 마음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인간을 포함한 자연 만물의 주재자요, 죄인들을 패망케 하시는 심판주로서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이는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잠 1:7; 9:10).

(3) 그 후 성도는 이 마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작업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4) 이것은 '온전히 이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피텔룬테스〉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된 데서 잘 나타난다.

(5)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9:2; 벧전 1:19)라고 명령하셨다.

(6) 이 명령대로 모든 성도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엡 4:13).

3. **Q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1절)

A (1) '육과 영'이란 기독교인의 전인격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모두를 일컫는 말이다(참조, 고전 7:34).

(2) 따라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죄악들을 가리킨다.

(3) 그것을 예로 들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의 술수(術數)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같은 육체의 일들이다(갈 5:19-21).

(4)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행한 이와 같은 악행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행할 바가 아니다.

(5) 이러한 육체의 소욕(所慾)들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좇아 행하여야 하는데 오직 이 방법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케 하며 사단의 궤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한다(갈 5:16-18; 참조, 엡 6:10, 11).

4. **Q 바울은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촉구했는가?** (2절)

A (1) 그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촉구하였다.

(2) 이 촉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는 말이다.

(3) 이러한 촉구는 6:13에 '마음을 넓히라'는 권고와 그 맥을 같이한다(참조, 6장 Q17).

(4) 이 당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뜨거운 애정을 쏟으며 영적인 아버지로서 헌신적인 사랑을 쏟았지만 불행히도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과 헛된 소문에 이끌려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참조, 6:11-13).

(5) 따라서 마음을 열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그들간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선행 조건(先行條件)일 수밖에 없었다.

(6) 이와 같이 원치 않는 일로 인해 서로간에 오해가 발생할 경우 쌍방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용납해야 한다.

(7)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오해를 버릴 때까지 그에게 계속적으로 마음을 열도록 촉구하며 인내해야 하는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보다는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해야 한다(참조, 롬 3:13).

5. **Q 디도의 방문을 받기 전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2절)

A (1) 그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교인들에게 해를 끼치며 교인들의 재산을 속여 빼앗는 자라고 생각하였다.

(2) 더 나아가 그들은 바울이 변덕장이요,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자요, 스스로 천거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1:17, 18, 24; 4:2, 5; 5:12; 10:12, 18) 이 모든 그릇된 소문들은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나 거짓 교사들에 의해 조장되었다(참조, 6장 Q 17).

(3) 그러기에 바울은 본절에서 자신과 그 일행들이 그 같은 일들을 결코 행한 적이 없었노라고 단호하게 항변(抗辯)한 것이다.

(4)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영적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애정을 쏟았고,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하여 행했으며(4:15),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1:24)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5)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는 바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하며 그를 실망과 좌절의 늪 속으로 빠뜨리기에 충분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낙심치 않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권고하며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열망했다(3절).

(6)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指彈)의 대상이 되기 쉬운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된다(참조, 시 140:2, 3, 5).

6. **Q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목적은 무엇인가?** (3절)

A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돌이켜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였다(참조, Q 5).

(2) 이 같은 바울의 태도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들을 바른길로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 권면을 하기 보다는 형제들을 헐뜯고 비판하기 위해서 권면하는 우리들에게 바른 권면의 자세를 제시해 준다.

(3) 한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권면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눅 3:17, 18)
②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행 14:22)
③ 부정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딛 1:9)
④ 질서가 없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살전 5:14)
⑤ 순종을 격려하기 위해(딛 3:1)
⑥ 거룩한 생활을 힘쓰게 하기 위해(살전 4:1-6)

7. **Q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A (1) 혹자는 이 말을 '생명이나 죽음이나 어느 것도 우리를 너희들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2) 이 해석대로 고린도 교인들을 묶고 있는 바울의 사랑의 끈은 비난, 죽음, 삶의 시련 그

어느 것으로도 끊기지 않는 공고(鞏固)한 것이었다.

(3)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또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4) 군림하며 다스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이와 같이 양 떼인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목자의 자세가 모든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말세지말(末世之末)에 있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세이다(참조, 삼상 17:34-36; 렘 33:12, 13; 겔 34:12-16; 요 10:3-5).

8. **Q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4절)

A (1) 바울은 그 이유를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라고 설명하였다.

(2) 여기에서 '너희를 향하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스 휘마스〉와 '너희를 위하여'에 해당되는 헬라어 〈휘페르 휘몬〉은 모두 다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 관하여'란 뜻이다.

(3) 또한 '담대한 것'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레시아〉는 '솔직', '확신'이란 의미를 지녔다.

(4) 이처럼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재회한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5-16절) 그들이 보여 준 태도에 큰 신뢰감과 긍지를 느끼며 그를 감싸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기쁨을 느꼈다.

9. **Q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5절)

A (1) 디도와 재회할 장소인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바울은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

(2) 왜냐하면 바울은 마음속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통해 보낸 '준엄한 편지'(참조, 서론 Q 8)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와 디도의 안부에 관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은 바울의 심사(心思)가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로아를 떠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참조, 2장 Q 12).

(4) 그리고 바울은 외적으로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반대와 박해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5) 이와 같은 내외적인 이유들이 바울의 심신(心身)을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했던 것이다.

(6) 이처럼 우리들도 환경적인 어려움과 마음속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삶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를 배운다면 이 기회는 신앙의 연단기요 성숙기가 될 수 있다(참조, 말 3:3, 4; 약 1:3, 4, 12; 벧전 1:6-9).

10. **Q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바울을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셨는가?** (6, 7절)

A (1) 하나님께서는 절망하고 낙담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다.

(2) 첫째, 디도를 그에게로 보냄으로써 위로하셨다. 물론 여기에는 그를 도와 준 디도의 개인적인 조력까지 포함된다(참조, 서론 Q 9).

(3) 둘째, 디도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셨다. 사실 바울의 준엄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될 당시의 디도는 용기를 잃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13-15절).

(4) 세째, 디도로 하여금 그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매우 고무적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5) 즉 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애정 혹은 그를 보고 싶어하고 그와 화목하기를 사모하

는 마음, 그들이 불신했던 행동에 대해 애통해 함 그리고 그의 지시를 따르려는 열심 등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안심시키는 소식이었다.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절망 속에서 파멸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다. 따라서 성도는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堅持)해야 한다(참조, 1:3, 4).

11. Q 바울은 그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서술하였는가? (6절)

A (1) 바울은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서술하였다.

(2) 여기에서 '비천한 자들'에 해당되는 헬라어 〈타페이누스〉는 '낮은 자들', '천한 자들', '겸비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은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겸손히 당신을 바라본 바울에게 위로를 전해 주셨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환경적인 문제와 마음의 근심으로 실망하며 겸손해진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참조, 사 51:3).

12. Q 8절에 언급된 편지는 어떤 것인가?

A (1) 이 편지는 현재 전해지지는 않지만 바울이 A.D. 55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방문을 끝내고 돌아온 후 A.D. 56년 봄에 기록하여 디도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준엄한 편지를 가리킨다(참조, 서론 Q 5).

(2)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준엄한 질책과 더불어 신앙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였다.

(3)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을 정죄(定罪)하려는 정죄자의 심정으로 쓰지 않고(3절)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로 그 사랑을 표출하는 영적인 아버지의 심정으로 썼다(2:3, 4).

(4) 그런 까닭에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도 부르며,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근심했다고 해서 '근심케 한 편지'라고도 부른다(참조, 서론 Q 8).

13. Q '준엄한 편지'를 보낸 후 바울의 심정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8, 9절)

A (1) 바울은 처음에 준엄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편지를 너무 엄하게 쓰므로 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후회하였다.

(2) 그러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은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그 근심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함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 바울의 후회는 기쁨으로 바뀌었다.

(3) 이와 같이 형제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시 정상적인 성도의 길로 돌아오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은 그 형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성도로 회복시키는 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상호간에 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참조, 잠 15:12).

14. Q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10절)

A (1)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2) 왜냐하면 이 근심의 성격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하나님의 판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 판단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Q 15).

(3) 그래서 혹자는 이 근심을 죄에 대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배은 망덕(背恩忘德)했던 행위에 대한 근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신령한 근심'이라고 정의하였다(Matthew Henry).

(4)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세상 근심'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하게 하는 영적 사망을

이룬다.

(5) 이와 같이 '세상 근심'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단순한 양심의 가책뿐으로서 전혀 죄 문제와 관계가 없으며 급기야는 근심하는 자로 하여금 모든 용기를 잃고 실의에 빠지게 하며 자기 혐오와 연민에 잠기게 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버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해 근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시38편; 요16:20; 빌4:6).

15. Q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1절)

A (1)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무감각했던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깨끗케 하기 위한 순결 운동을 전개하였다(참조, 2장Q 6-9).

(2) 바울은 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었다.

표 현	의 미
① 간절하게 하며	죄악된 모습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진지한 관심을 가지며
② 변명하게 하며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 만만한 항변이 아닌 겸손한 탄원을 하며
③ 분하게 하며	자신들의 잘못과 그 잘못에 대해 깨닫지 못한 자신들에 대해 분노하며
④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며
⑤ 사모하게 하며	바울과 재회하기를 열망하며
⑥ 열심있게 하며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준행하는 데 열정을 쏟으며
⑦ 벌하게 하며	그들이 용납했던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

16. Q 바울이 준엄한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목적은 무엇인가? (12절)

A (1) 바울은 그 목적을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고 밝혔다.

(2) 즉 이 말은 준엄한 편지를 쓴 목적이 바울 자신의 실추(失墜)된 위신을 세우고 사사로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를 통해 바로잡으며 그와 바른 성도간의 교제가 회복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형제를 향한 성도의 권면이나 책망에는 개인적인 악감(惡感)이나 그에 대한 복수심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그 형제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성도간의 교제를 회복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이 있어야 한다(참조, 눅3:17, 18; 행14:22; 살전4:1-6).

17. Q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는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3절)

A (1) 디도를 통해 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2) 왜냐하면 이 소식은 곧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훈계와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은 드로아에서 열린 복음 증거의 문을 스스로 포기하게 할 정도로 바울을 좌절과 염려에 빠지게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바울에게 복음 증거에 관한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4) 그런데 바울이 받은 위로는 디도를 통해 전해진 것이지만 바울이 6절에서 고백한 대로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다(참조, Q 10).

(5) 우리는 본절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 행하는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권면하는 형제, 부모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눅 15:11-32).

18. Q '불의 행한 자'와 '불의당한 자'에 관해 설명하라(12절).

A (1) 여기에 관한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인 물	첫째 주장	둘째 주장
불의 행한 자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음행 사건에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아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바울의 훼방자들
불의당한 자	아들에게 아내를 빼앗긴 그 아비(고전 5:1)	바울과 그 일행

(2) 이 주장들 가운데 어느 것이 맞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참조, 2장 Q 7)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들에 관한 처벌이나 보상을 위해 준엄한 편지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3)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그것을 원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성도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태반이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참조, 신 8:5; 계 3:19).

19. Q 그를 진심으로 영접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는 디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게 했는가? (15절)

A (1) 고린도 교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며 그의 말에 순종한 모습은 디도로 하여금 그들을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지게' 했다.

(2) 여기에서 '심정'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플락크논〉은 '마음', '애정', '긍휼',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녔다.

(3) 또한 '더욱 깊어지게'라는 비교급 문장은 헬라어에서 강조 및 최상급의 의미가 있다.

(4) 이와 같이 디도는 그를 바울의 특사(特使)로서 겸손히 인정하고 따뜻이 영접하며 그가 전한 바울의 편지와 말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일체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5) 이런 결과는 디도를 통한 바울의 권면을 겸손히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서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바울의 태도에 기인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권면을 받는 자와 하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참조, 히 13:22).

제 8 장 예루살렘의 성도를 구제하라

단락구분 *1-6*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적인 헌금 / *7-12* 자선을 권면하다 / *13-15* 나눔의 목적 / *16-24* 디도를 천거하다

1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
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
록 하게 하였느니라
3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
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 우리의 바라던 것 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
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좇아 우리에
게 주었도다
6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너희 가운
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
라 하였노라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
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
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
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
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
케 하려 하심이니라
10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
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
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13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14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
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
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15 기록한 것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
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16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
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17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
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18 또 저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
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 이 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
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
는 자라
20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
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훼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
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22 또 저희와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
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그 간절한 것을 여
러 번 시험하였거니와 이제 저가 너희를 크게 믿
은 고로 더욱 간절하니라
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
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24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를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저희
에게 보이라

---

1. **Q 바울이 본장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A (1) 첫째, 그는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한 사실을 교회에 알려 그들도 헌금에 기꺼이 동참하기를 권고했다(1-15절).
   (2) 그런데 바울은 그 헌금의 목적이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타인을 돕고 타인이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도움을 입는 상호 부조(相互扶助)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였다(13-15절).

(3) 또한 이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갈 뿐이므로 성도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덕행이지만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다만 권고할 뿐이라고 말했다(참조, 벧후1:5-7).

(4) 둘째, 바울은 헌금의 모금을 위해 디도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형제를 고린도로 보내기로 하고 특별히 디도의 신앙과 사람됨 그리고 그의 열심을 말하면서 그들을 고린도로 보내는 목적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본장의 내용을 종결짓고 있다(16-24절).

(5)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은 명목의 모금을 위한 캠페인을 열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구제를 위한 여러 형태의 헌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와 교회 전체는 더욱 풍요롭고 화목한 분위기를 창출해 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금과 모금에 있어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자원(自願)하는 마음이다(2, 3절).

2. **Q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호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1-15절)

A (1) 그것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한 모금을 위해서였다.

(2)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으나 글라우디오(Claudius, A.D. 41-54) 황제 통치 시대에 발생했던 심한 기근으로 대단히 궁핍했다(참조, 행11:27-30).

(3)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교회(母敎會)에 빚진 것을 잊지 않고 물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이 빚에 보답하기를 바랐다(참조, 갈6:6).

(4) 이처럼 하나님께 받았든 타인에게 받았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이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일은 인간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바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영적인 은혜는 결코 잊어서 안 된다(참조, 신32:6;대하32:25).

3. **Q '하나님의 은혜'는 마게도냐 교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하였는가?** (1, 2절)

A (1)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捐補)를 가능케 하였다.

(2) 그 당시 마게도냐 교인들은 로마 정복자들에게 많은 천연 자원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심한 학정(虐政)에 시달리고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 즉 그들은 박해와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들의 '기쁨'과 '관용'을 베풀었던 것이다(참조, 막12:44).

(4)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라는 말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즉 마게도냐 교인들에게는 현실을 초월한 기쁨이 항상 내재해 있었으며 그 기쁨은 모든 역경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한 단면이다. 더우기 그들에게는 마치 그들의 밑바닥이 완전히 비워진 상태와 같은 절대 가난이 닥쳐왔으나 그들은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줄 수가 있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하다. 그들은 비록 물질적으로 빈곤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풍요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5) 이러한 점은 그들의 박해와 가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우리는 이 같은 예를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全)재산을 바친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눅21:1-4).

(6)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도 남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부자만 남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므로 더욱 남을 도울 수 있다(참조, 눅10:30-37).

4. **Q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 준 구제는 어떤 성격을 띠었는가?** (3-5절)

A (1) 그들은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능력 이상으로 자원(自願)

하여 구제하였다.

(2) 더우기 그들은 그 같은 구제 사업에 자신들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울에게 간절히 호소했다. 즉 의무감에서라기 보다는 그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였다.

(3) 그런데 이 같은 점은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같은 마음에서만이 참다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4) 그 뿐 아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기꺼이 사도들에게도 드리었다.

(5) 이 같은 그들의 헌신은 곧 그들 자신의 생명 전체를 헌신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자신을 바친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이 다함이 없는 헌신을 가리킨다(참조, 갈2:20). 즉 이 헌신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준 것과 같은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6) 결국 이 같은 정신은 곧 우리의 소유와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소유라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인색은 곧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한 절대 소유자라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7) 따라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제의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에게 입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 하겠다(참조, 마25:14).

5. **Q 디도는 바울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고 고린도에 갔었는가?** (6절)

A (1) 바울은 디도를 권하여 예전에 그가 시작하였던 '이 은혜'를 성취시키라고 명하였다.

(2) 즉 바울은 디도가 예전에 고린도에서 하던 모금 사업을 성취하라고 명하였다. 사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기(참조, 고전1:11;5:1,2;8:1-8) 이전에 이미 고린도에서 모금 사업을 하고 있었다(9:2).

(3) 한편 바울은 모금 사업을 '이 은혜'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4)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결코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役事)하고 계시며 바로 이 점을 인간들이 깨닫기를 원하신다(참조, 시127:1).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을 성취해 나가야 할 것이다.

6. **Q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헌금 모금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가?** (7절)

A (1) 이에 관해 말하기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성령의 은사로 모든 일 특히 믿음과 말과 지식 그리고 모든 간절함과 사도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하다고 말하였다.

(2) 즉 그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력과 그 진리를 전하는 표현력이 우수하며 기독교적인 활동에서까지도 열심이었다.

(3) 그러나 바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이 헌금 모금에도 적극적이기를 바랐다. 그것은 그들의 받은 은혜가 적지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고린도 교회가 헌금 모금에 있어서도 풍성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였다.

(4) 한편 이들과 같이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한 자들은 종종 그 풍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풍요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풍요의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를 망각하고 있는 자들(신자이든 불신자이든)을 깨우쳐 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참조, 겔3:17).

7. **Q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호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구제가 동정심과 사랑에서부터 흘러나오기를 바랐다.

(2)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명령이나 강요를 하지 않고 마게도냐 교인들이 보인 사랑의 모금 사업을 예로 들어 헌금을 호소하였다(참조, 고전7:6).

(3) 사실 어느 누구도 명령에 의하여선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명령에 의하여 사랑의 한 표현인 진실된 구제를 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구제 헌금이 바리새인들의 경우처럼 외식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만다(참조, 눅21:1-4).

(4)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한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사회적 규범과 도덕률(道德律) 그리고 체면 등과는 상관없이 '믿음과 사랑의 법'에 의해 행동해야 한다(참조, 요15:12).

8. Ⓠ **구제금 호소에 있어서 바울이 언급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인가?** (9절)

Ⓐ (1) '부요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 모두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진리에 호소하였다.

(2) 즉 바울은 예수의 은혜를 아는 그들의 지식을 향해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께 대한 충성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다.

(3)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요'는 곧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고전8:6; 빌2:6;골1:15-17). 그러나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가난하게 되신) 목적은 자신이 가난하게 됨으로써(참조, 눅9 : 58)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이다(참조, 빌2:6-8).

(4) 즉 성도에게 있어서 '참부요'는 믿음, 사랑, 하나님과의 평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공하는 영적 풍요로움이 바로 그것이기도 하다(참조, 요10:10). 그러므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심은 사람과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는 것이었다(참조, 5:8;엡2:16;골1:20).

(5)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예수의 구원의 은혜는 곧 인간의 부요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은혜를 입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형제이며 복음의 빚을 진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6)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에 감사하여 자신도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참조, 요일4:11).

9. Ⓠ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헌금 모금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10, 11절)

Ⓐ (1) 그것은 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먼저 모금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일을 그들 스스로가 원했기 때문이다.

(2) 그렇지만 바울은 여전히 헌금 모금을 명령하지 않고 다만 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뜻만 보이노니').

(3) 한편 고린도 교인들이 모금을 빨리 성취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첫째, 그들이 자원함으로 그 일을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나 지나갔기 때문이다.

(4) 둘째, 그 모금을 자원한 것도 시작한 것도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앞섰으나 이미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 모금을 완료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힘에 벅찰 정도까지 했기 때문이다(3절).

(5)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신들이 원했던 그 모금 사업을 끝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것은 마음에 짐이 되며, 그들 신앙에 장애가 되기 때문

이다.

(6)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지극히 빈궁하지는 않았었다. 즉 그들의 헌금은 풍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시작한 일을 마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며 또한 그 일을 마쳐야만 했다.

(7)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 계획과 실행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순간순간 주어지는 일들을 충실히 행하기만 하면 된다(참조, 시37:5;잠16:3).

10. Q 모금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12절)

A (1) 그것은 그들 자신의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2)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 일은 쉽게 끝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3)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치 않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액수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정성이 있는지만을 살피신다(참조, 막12:42-44).

(4) 그러므로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는 곧 그 열매와 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하겠다. 하나님께 열심인 자들은 분명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참조, 마3:8;7:16;눅13:7;요15:8;빌4:17).

11. Q 모금 사업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원칙은 무엇인가? (13, 14절)

A (1) 그것은 '평균'이라는 사실이다.

(2) 즉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것으로 예루살렘의 고난당하는 형제들을 도와 주면 후일에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도움으로써 서로 돕는 일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다.

(3)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에게 여유가 있을 때 서로 도와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궁핍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한편 성도들간의 상호 부조(相互扶助)는 지나친 궁핍이나 지나친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참조, 전11:1).

12. Q 바울은 평균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떤 예를 들었는가? (15절)

A (1) 그는 출16:18에 나타난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의 원칙은 성도들 모두에게 평균되게 하심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거둔 자들은 먹고 남은 만나를 저축할 수 없었고, 적게 거둔 자들도 자신들이 먹기에 부족한 것 같았으나 모자라지 않았다(출16:18).

(3) 이것은 만일 어떤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쓰고도 남음이 있다면 그 여분은 적게 가진 사람들의 부족을 채우게 하시려는 상징적이고 예시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다(참조, 눅6:38).

(4)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며 그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여 나눔의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신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에도 사용해야 한다(참조, 마5:45;계21:3).

13. Q 고린도 교회의 모금 사업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16, 17절)

A (1) 그는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을 전달한 디도이다.

(2) 그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성장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모금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3) 그런데 그러한 열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役事)하심에 기인한다. 따라서 디도는 바울의 권고를 기꺼이 받아들여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이다.

(4) 물론 디도가 이러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태껏 고린도 교회와 디도가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참조, 7:13-15).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두터운 교분과 배려를 가능케 한 분 역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다.

(5) 사실 디도가 이와 같은 사랑과 관심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했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6) 아뭏든 이 세상의 일이 모두 인간의 열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인간의 열심과 능력이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에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참조, 갈5:22,23).

14. **Q 디도를 수행하여 고린도 교회 모금을 위해 떠난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18, 19절)

A (1) 그는 '복음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모든 교회로부터 칭찬을 받는 자'이다.

(2) 그런데 그는 복음 사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자로 어디서든지(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신임을 받는 자였기에 모금 사업을 위해 디도를 수행하게 되었다.

(3)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치밀한 계획을 엿볼 수 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금을 위해 보내는 사람 선정에 있어서 조금도 타인의 비난을 받지 않을 사람을 택함으로써 그 모금 사업으로 있을 잡음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12:16-18).

(4) 이처럼 교회의 재무를 맡은 자는 그 생활에 있어서 방탕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맡은 직무에 성실한 자세를 갖는 자로 선출해야 한다(참조, 딤전3:8,9).

15. **Q 바울이 헌금 모금 사업에 조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 21절)

A (1) 그것은 자신들이 맡은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자신들을 훼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데 이는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2) 여기서 '거액의 연보'란 '풍성한 헌금' 혹은 '아낌없는 헌금'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헌금을 거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

(3) 즉 만약 교회가 힘 모아 거둔 헌금을 한 사람이 관리하게 되면 설혹 그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들의 눈에는 의혹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의 공동 관리자로 3인을 선택하여 아무 협의가 없도록 하였다.

(4)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부끄럽지 않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5)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모든 성도들과의 화목이며, 상호 이해이다. 성도들 중에는 의심이 많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 험담을 하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다.

(6) 그러므로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오해의 가능성이라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참조, 빌4:8;벧전2:12).

16. **Q 디도를 수행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선발되었는가?** (22절)

A (1) 바울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 그의 간절함을 시험하였으며 또한 그 사람도 고린도 교인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디도의 수행자로 선발되었다.

(2) 즉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수행자의 신앙은 바울의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으며 그도 역시 고린도 교인들이 열심으로 모금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에 적임자로 선발되었다.

(3) 이처럼 교회의 일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의 적임자는 성급하게 선발할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과 인격 그리고 신앙이 그 일을 맡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한 후 선발해야 한다

(참조, 딤전3:12-13).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은 교회 내에 제직을 세우고 각 기관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부와 사회적인 지위만을 고려해서 선출하는 잘못이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일을 담당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동역을 뜻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행1:15-26).

17. Q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금을 위해 선발된 세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였는가? (23절)

A (1) 그는 디도를 자신의 동무이며 동역자로, 다른 두 형제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소개하였다.

(2) 여기서 디도를 '동무'라고 부른 것은 디도와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며,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디도가 복음 전파 사역에 얼마만한 공헌을 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3) 또한 '교회의 사자'란 문자적으로는 '사도'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각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번 헌금 관리에 임명된 자를 뜻한다. 더우기 그들은 빛나는 업적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는 생활을 하였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을 얻었다(참조, 살전2:20).

(4) 한편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삼가하고 항상 그분의 이름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마5:6;약2:18).

18. Q 세 사람의 파송자를 보내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24절)

A (1) 첫째,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을 호소하였다.

(2) 둘째, 그가 파송자들에게 말한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거리를 파송자들에게 보이라고 요구하였다.

(3) 세째, 다른 여러 교회들이 이 파송자들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모금 상황을 들을 것이기 때문에 모금 사업에 열성을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4) 그것은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가 어그러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요구이기도 하다.

(5)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형제 성도들이 보고 있다.

(6)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건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보람찬 생(生)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2,3절;사62:1;요9:4).

본장의 요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2절).

제 9 장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라

단락구분 *1-5*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 *6-11* 심는 대로 거두는 구제의 원리 / *12-15* 봉사와 구제에 따르는 축복

1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2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앎이라 내가 너희
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
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
희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3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
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4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
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5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
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
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
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
려 하심이라
9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
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
사하게 하는 것이라
12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
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
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13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
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4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께 감사하노라

---

1. Q 본장을 기록한 바울의 목적은 무엇인가?

A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파송자가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헌금을 준비하기를 바랐다. 따라서 헌금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 본장을 기록하였다(1-5절).

(2)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을 이미 여러 교회에 자랑하였다. 따라서 파송자들이 도착하였는데도 헌금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큰 낭패가 되기 때문에 본장을 기록한 것이다.

(3) 또한 바울은 그들이 헌금을 즐겨 내기를 바랐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것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을 바라시기 때문이다(7절).

(4) 그러므로 그는 헌금에 따르는 축복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헌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본장을 기록하였다.

(5) 만일 헌금이 강요나 명령에 의해 거둬진다면 그것은 참된 헌금이 될 수 없다. 헌금이란 모름지기 자발적인 마음에서 즐겨 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명목의 헌금도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평안을 위해서 낸다는 마음에서 드려져야 한다(참조, 신15:7;잠19:17).

2. **Q 사도 바울은 어떤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했는가?** (1절)

A (1)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8장에서부터 계속 다루어 온 문제로 글라우디오(A.D. 41-54)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 그곳에 사는 교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공동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참조, 행11:27-30).

(3) 이처럼 형제의 아픔에 동참하여 그 아픔을 나눌 뿐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4)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살펴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봉사, 즉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 빈부의 격차로 인한 아픔이 있는데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으랴!

(5) 그러나 자신을 비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봉사하시고 희생하신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당연성과 필연성을 느끼며 팔을 걷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봉사자, 즉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요13:4, 5).

3. **Q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자랑한 일은 무엇인가?** (2절)

A (1) 아가야 교인들이 1년 전부터 헌금을 예비하였던 것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다.

(2) 한편 아가야는 마게도냐의 남부인 헬라 전체를 포함하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고린도가 그 수도(首都)이다. 당시 이 지방의 겐그레아(롬16:1)나 아덴 같은 도시에도 교회가 있었다.

(3) 따라서 아가야 지방에서 헌금을 준비한 교회들에는 위에 언급된 도시들의 교회도 포함된다.

(4)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마게도냐 교회에 자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본받도록 격려하였다.

(5) 이처럼 성도의 언행(言行)은 모든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형제를 실족케 하는 언행(言行)을 보여서는 안 된다(참조, 골1:22).

4. **Q 바울이 모금을 위해 파송자들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A (1) 그것은 이 일에 대한 바울을 비롯한 사도의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헌금을 미리 준비시키려 함이다.

(2) 이러한 점에 의해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헌금 모금 상황이 그렇게 순조롭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사실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며 자신의 말에 대한 증거가 있기를 바랐다.

(4) 더우기 바울은 헌금을 전해 받을 마게도냐인들이 자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아직 헌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심히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즉 그는 고린도 교인들의 체면과 자존심까지도 생각해 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5) 아무튼 헌금은 그것이 구제금일 경우 미리 거두어져서 마지막에 서두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그 헌금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사정을 생각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조, 행4:34,35).

(6) 이처럼 선행을 베푸는 데는 분명히 때와 기회가 있다.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그 대상

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보다 앞서 다른 이웃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5. **Q 어떠한 헌금이 '참연보'인가?** (5절)

A (1) 참연보(捐補)는 의무적이어서는 안 된다. 의무적이거나 책임적인 구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은혜롭지 못하다.

(2) 참연보는 자기 만족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는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아니라 곧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일 뿐이다.

(3) 참연보는 그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자랑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된다. 체면을 위한 구제는 단지 칭찬을 받기 위한 구제일 뿐이다.

(4) 한편 '연보'라는 말(헬, 율로기아)에는 '축복'이란 의미도 담겨 있는데 이는 그 구제로 말미암아 받는 자나 주는 자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구제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름다움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잠11:25).

6. **Q '적게 심는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A (1) 이 말은 잠11:24,25과 잠19:17 말씀의 반영으로 자원하여 헌금을 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2) 즉 타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자는 그것을 거둘 것이며 그 사랑과 은혜에 인색하여 이기적이었으면 돌아올 것이 없다는 말이다.

(3) 사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고 사랑이 많은 자들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시고 미래에 있어질 내세에서의 축복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의 복락(그 복락의 종류가 물론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도 허락하신다.

(4) 그러나 사랑의 구제란 결코 받을 것을 생각하고 베푸는 구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사랑하는 자가 받을 상급은 타인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자신의 속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라 할 수 있다(참조, 요13:1;살전3:12).

7. **Q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의 형태는 어떤 것인가?** (7절)

A (1) 그것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구제, 즉 주기에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행하는 구제가 아니라 자원하여 행하는 구제이다.

(2) 또한 구제 헌금은 자신의 능력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작정한 것은 지체하지 말고 실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심이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행5:1-11).

(3)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주었건 그 실용 가치는 마찬가지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만큼(잠19:17) 정성을 다해 바쳐야 할 것이다.

(4) 이처럼 구제 헌금을 내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기쁜 마음을 지닐 수 있으려면 그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참조, 출25:2).

(5) 그러나 마음이 없다는 핑계로 남을 구제하는 일에 무관심하는 것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의 전형이다. 그러니 우리는 물질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여 그것으로써 날마다 성도 섬기는 일에 힘쓰도록 하자.

8. **Q 기쁜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8절)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모든 은혜이다. 즉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2) 이러한 사실은 곧 관대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그 마음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는다.

(3)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남에게 꾸는 일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의미도 갖는다(잠11:23,24).

(4) 그 뿐 아니라 기쁨으로 구제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참조, 눅16:19-25).

(5)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자신에게 부여된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참조, 벧전4:10).

9. Q 9절의 말씀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인용한 것인가?

A (1) 시 112:9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이 말씀은 고린도 사람들도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시편의 의인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는 축복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즉 이 말씀은 즐거운 마음으로 남을 도운 사람의 의는 영원토록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계14:13).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재물을 이기적인 측면에서만 사용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 모든 행위를 '의'(義)로 여기신다(참조, 마25:40). 하지만 이 '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결코 인간의 본질 자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행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4) 이같이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당연한 마음인데도 오늘날의 각박한 현대 사회 속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미덕이며,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은 그러한 마음이 일반화되어 이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엡5:8).

10. Q 고린도 교인들의 헌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10, 11절)

A (1) 첫째,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들에게 심을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2) 또한 그들의 너그러운 연보로 말미암아 구제를 받을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3) 즉 고린도 사람들이 모금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너그러운 마음씨를 보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적, 물질적 축복으로 인하여 더욱 부요하게 될 것이며, 의로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4) 또한 그들의 구제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끼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에 대해 성실한 자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5)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참경험에서 생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게 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다(8:2).

11. Q 봉사의 직무(職務) 중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12절)

A (1) 그것은 성도들의 물질적인 부족을 구제하는 일이다.

(2) 여기서 '봉사'란 고대 아덴의 부요한 시민들에 의하여 자진해서 행해진 공공 봉사를 가리키는 말인 헬라어 〈레이투르기아〉를 번역한 말이다. 한편 유대교에서는 이 단어가 종교적인 봉사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빌2:30).

(3) 실제로 초대 교회에 있어서 집사 선출의 가장 큰 목적은 구제를 위한 직무를 전담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행6:1-4).

(4)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가난한 이를 위한 구제가 교회의 주요 사역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눅11:41).

(5)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원화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할 것이다.

12. **Q 고린도 교인들의 충실한 봉사는 타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취는가?** (13절)

A (1)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예루살렘 교인들 및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들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2) 즉 고린도에서의 모금 사업이 성공한다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로 복음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3) 한편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근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사업에 참여케 하려는 데 있었다.

(4)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전적으로 따르기란 참으로 힘든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감정과 이해가 얽혀 복음의 역사(役事)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참믿음을 소유하려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모두 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5) 그러한 자세로 구제에 임할 때에야 비로소 그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즉 구제의 헌금을 하는 자의 신령한 덕과 인격은 결국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입에서 찬양이 넘쳐 나도록 할 것이다(참조, 엡1:15,16).

13. **Q 고린도 교인들은 구제로 인하여 어떠한 은혜를 입을 것인가?** (14절)

A (1)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그들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2)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금 사업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형제애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3) 이처럼 두 교회가 민족과 문화 배경이 다른 가운데에서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연대 의식은 커다란 역사(役事)를 이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4) 사실 유대교인으로서 성도가 된 자들 중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여,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이전부터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들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참조, 행15:1-21).

(5) 그러던 차에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모교회(母敎會)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모든 나쁜 감정은 사라지고 우애만이 돈독(敦篤)해질 것이었다.

(6)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했던 교단의 분열, 교파 분열, 개(個)교회주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빚어진 갈등 등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7) 즉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인 우리가 특정한 연고 없이 서로 나누어져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좁은 소견과 파벌주의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참조, 고전3:3).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서로간에 허물 없는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14. Q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는가?** (15절)

A (1) 그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2) 그런데 여기서의 '은사'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모금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한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시는 한없는 '은사'까지도 포함한다.

(3) 즉 우리에게 선(善)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이다(엡2:8).

(4) 이처럼 본절에 언급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요3:16;롬8:32).

화보자료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여인. **한 팔레스틴 여인이 밭에서 수확한 보릿단을 말에 얹고서 기쁨을 못 이긴 채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본장에는 참된 헌금에 관한 바울의 교훈이 주어져 있다. 바울은 단순한 물질적인 기부에 헌금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참조, 8:5). 그러기에 그는 헌금을 하되 억지로 또는 인색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5, 7절). 한편 이러한 헌금의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6절)이다.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행6:1-4).

(4)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도 가난한 이를 위한 구제가 교회의 주요 사역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눅11:41).

(5)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이원화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할 것이다.

12. **Q 고린도 교인들의 충실한 봉사는 타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취는가?** (13절)

A (1)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 예루살렘 교인들 및 다른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들의 후한 연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2) 즉 고린도에서의 모금 사업이 성공한다면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진실로 복음을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3) 한편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근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사업에 참여케 하려는 데 있었다.

(4)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복음을 전적으로 따르기란 참으로 힘든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감정과 이해가 얽혀 복음의 역사(役事)를 막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참믿음을 소유하려는 자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모두 던져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야 한다.

(5) 그러한 자세로 구제에 임할 때에야 비로소 그 구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즉 구제의 헌금을 하는 자의 신령한 덕과 인격은 결국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 입에서 찬양이 넘쳐 나도록 할 것이다(참조, 엡1:15,16).

13. **Q 고린도 교인들은 구제로 인하여 어떠한 은혜를 입을 것인가?** (14절)

A (1)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감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 그들을 사모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2)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금 사업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이의 형제애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3) 이처럼 두 교회가 민족과 문화 배경이 다른 가운데에서도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연대 의식은 커다란 역사(役事)를 이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4) 사실 유대교인으로서 성도가 된 자들 중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여,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이전부터 유대인 성도와 헬라인 성도들은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참조, 행15:1-21).

(5) 그러던 차에 고린도 교회가 믿음의 모교회(母敎會)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모든 나쁜 감정은 사라지고 우애만이 돈독(敦篤)해질 것이었다.

(6) 한편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했던 교단의 분열, 교파 분열, 개(個)교회주의, 문화적인 차이에서 빚어진 갈등 등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7) 즉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인 우리가 특정한 연고 없이 서로 나누어져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것은 단지 인간의 좁은 소견과 파벌주의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참조, 고전3:3).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서로간에 허물 없는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14. Q 바울은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는가? (15절)

A (1) 그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2) 그런데 여기서의 '은사'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모금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한 것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시는 한없는 '은사'까지도 포함한다.

(3) 즉 우리에게 선(善)을 행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것이다(엡2:8).

(4) 이처럼 본절에 언급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요3:16;롬8:32).

화보자료

풍성한 수확을 기뻐하는 여인. 한 팔레스틴 여인이 밭에서 수확한 보릿단을 말에 얹고서 기쁨을 못 이긴 채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다.

본장에는 참된 헌금에 관한 바울의 교훈이 주어져 있다. 바울은 단순한 물질적인 기부에 헌금의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참조, 8:5). 그러기에 그는 헌금을 하되 억지로 또는 인색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5, 7절). 한편 이러한 헌금의 결과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이는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6절)이다.

제 10 장 사도의 권위를 가진 바울

단락구분 *1-5*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무장 / *6* 교회의 치리(治理) / *7-11* 외모가 볼품없다는 것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권위를 일깨워 주다 / *12* 인간의 판단 기준 / *13-16*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말라 / *17-18* 주 안에서 자랑하라

1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2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7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8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9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10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11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12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13 그러나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4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15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16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

1. Q 본서의 구성상 본장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A (1) 본서를 크게 세 부분(1-7장,8-9장,10-13장)으로 나눌 때 본장은 세번째 부분에 속한다.

(2)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확고히 한 후(1-7장)에 부드러운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호소하였다(8,9장).

(3) 그러나 바울은 본단원에서 다시금 주제를 변화시켜 사도로서의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10,11장).

(4) 즉 그는 본서의 세번째 부분에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권위를 침해한 데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하면서(12-18절) 그들의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이 노력하였음을 밝히고 있다(12:1-13).

(5)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위한 자신의 세번째 방문에 앞선 계획을 설명

하면서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을 향해 엄하게 경고하고 있다(12:14-13:13).

(6) 따라서 이 부분의 문체는 격렬하면서도 자기 변호적이며, 공격적이면서도 풍자적인 어조(語調)를 띠고 있다.

2. Q 본장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A (1) 첫째, 그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寬容)을 강조하였다. 즉 바울은 자기가 이 '근심케 할' 편지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당한 모욕이나 비난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실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함임을 말하였다(1-6절).

(2) 둘째,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쓸 때나 대면했을 때나 다름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는 중하나 만나면 약하고 시원치 않다'(10절)고 그의 약함을 비난한 데 대해 자신의 태도는 동일함을 강조하였다(11절).

(3) 세째, 바울은 결코 분량 밖의 자랑은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의 복음 개척자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결코 남이 한 일에 덕을 보려고 다니는 자가 아님을 나타내는 말이다(15절).

(4)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 안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즉 성도는 자신의 노력이나 성공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복음 사역에 공헌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役事)하신 덕분이라는 사실을 역설하였다(17절).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며, 능력을 주신 이도 주님이신 줄 알아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면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것이다(참조, 살전2:4).

3. Q 바울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은 무엇인가? (1절)

A (1)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은밀히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대할 때는 겸비하나 떠나서 편지로 대면할 때는 담대하다고 비난하였다.

(2) 즉 그 말은 바울이 멀리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용감함을 보이지만 그들을 대하면 애처로운 겁장이가 된다는 뜻이다.

(3) 여기서 '겸비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페이노스〉는 가끔 '고상한 덕'을 묘사할 때 사용되지만(마11:29) 본절에서는 '나약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경멸의 뜻을 지니고 있다.

(4) 또한 '담대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다로〉도 6절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비겁한 자가 위험이 없을 때 뻔뻔스럽게 잘난 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5) 이와 같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향하여 항상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동기에 따라 행동하며 또한 철저히 인간적인 사고와 방법을 따라 행한다고 주장하였다(참조, 1:17;2:17;3:5;4:2;7:2).

(6) 이 같은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 자신의 개인적 권위를 수호하기 위해 본장을 기술한 바울은 '나 바울은'이란 말을 사용하여 복수적인 저자의 형태를 버리고 있다(비교, 1:1;참조, 갈5:2;엡3:1).

(7) 또한 그는 자신에게 부여되어진 어떤 직책도 내세우지 않고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를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답변하고 있다. 사실 자신의 직책과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이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세태 속에서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소개하기란 매우 힘들다.

4. Q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1절)

Ⓐ (1)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침해하며 인격을 모독하는 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였다.

(2) 이 점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바울의 신앙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고전4:21). 한편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 주신 성품이기도 하다(참조, 사42:3;마11:29,12:20).

(3) 즉 '온유'(헬, 프라우테토스)라 함은 자신의 앞에 부닥치는 어떤 역경이라도 참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이라 할 수 있다(참조, 빌2:7,8).

(4) 한편 '관용'(헬, 에피에이케이아)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친절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한 자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성품을 가리킨다.

(5) 이와 같은 성품은 곧 온유에서 나왔다. 온유한 자도 선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악을 미워하지만 분노를 앞세우기 보다는 오히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참조, 요8:11). 이는 그리스도의 종이 지녀야 할 기초적인 성품이기도 하다(참조, 마11:29).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한다면 비록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교회에 불균형과 모순, 다툼이 상존한다 하더라도 그곳을 아름답고 화목한 새로운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참조, 습2:3;눅6:29).

5. **Ⓠ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바울을 어떠한 자라고 비난하였는가?** (2절)

Ⓐ (1) 그들은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겼다. 즉 그들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살지 않고 마치 짐승의 지혜를 빌어온 자같이 육체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도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겸손한 척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만하다는 것이다.

(2) 그들은 처음에 바울을 겁장이로 불렀으며, 이제는 바울을 타락한 이기주의자로 그리고 음흉한 기회주의자로서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려고만 한다고 생각했다.

(3)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 바울은 필요하다면 자신도 언제든지 담대해질 수 있지만 자신이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 잘못을 고칠 것을 요청하였다. 즉 바울은 그들을 향해 징계를 가하기 전에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고 했다.

(4)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이제까지(1-9장) 그가 보였던 부드럽고 요청하는 자세와는 달리 단호하고도 공격적이다. 이것은 잘못된 그들의 자세를 고치기 위한 방법이다.

(5)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도전해 오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사용해선 안 되지만 악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약한 온유는 오히려 악의 횡행(橫行)을 방조할 뿐이기 때문이다(참조, 삼상17:24;18:29).

6: **Ⓠ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가?** (3절)

Ⓐ (1) 바울은 자신이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고 말하였다.

(2) 이 말은 곧 자신도 인간의 연약성을 초월하지 못하며 죄 많은 성품과 불건전한 충동 밑에 살고 있지만(롬7:5,6;8:3-9;갈5:19-24) 사도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결코 인간의 재능을 의지하거나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3) 아무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 하더라도 육체적인 소욕으로 인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이 지닌 연약성인 동시에 한계이다. 이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는 겸손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4) 그러므로 비록 이 세상의 삶이 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또한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성도의 삶이라

하겠다(참조, 5:7;롬6:4;갈5:6).

7. **Q 바울이 소유한 병기는 무엇인가?** (4절)

A (1)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陣)을 파하는 강력(强力)이다.

(2) 여기서 '견고한 진'이란 5절에서도 언급되듯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지적 교만 등을 가리키며 '강력'(헬, 뒤나타)이란 뒤에 오는 헬라어 여격 〈토 데오〉와 연결되어 하나님에 의하여 강하게 되는 것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강한 것 등을 의미한다.

(3) 즉 바울은 인간의 재능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진 하나님을 위한 초자연적인 능력' 곧 진리, 사랑, 의(義)로써 싸우는 것이다.

(4) 이러한 '강력'에 대해 엡6:11-17에서는 구체적으로 마치 로마의 군병이 무장한 것을 묘사하듯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5) 사실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세력들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전해 오는 죄악의 세력들을 방어해 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의 영전(靈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힘과 지혜를 소유해야만 한다.

8. **Q '하나님에 의한 강력'은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5절)

A (1) 그것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힘이 있다.

(2) 여기서 '모든 이론'이라 함은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허황된 궤변을 가리키는데 특히 본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궤변을 가리킨다(참조, 살후3:6).

(3) 그런데 이같이 허황된 궤변에 젖은 자들은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진리를 모두 깨친 것처럼 교만히 여겨(참조, 딤전1:4,7)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4)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미혹에 빠진 인간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잘못된 이론들을 깨우친다. 즉 어리석은 인간들이 복음과 접하게 될 때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사상들은 그 빛을 잃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참조, 히4:12).

(5)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고전1:8)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6)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지성(知性)을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은 인간의 지성과 감성(感性)마저도 지배하는 능력으로서 이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7)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며, 그 뜻을 찾으며,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다(참조, 출19:5).

9. **Q 바울이 예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6절)

A (1)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기 위해 예비하고 있는 중이다.

(2) 그런데 본절에서 '너희'란 고린도 교회 전체를 의미하며,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이란 바울을 반대하는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교사들과 그 추종자들을 가리킨다.

(3)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반대하는 무리들이 지배적이어서 바울에 대한 복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바울은 물리적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 대다수가 바울의 권면에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하였다.

(4) 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 복종하게 될 때 바울은 그 주모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은 영원한 교제와 단절을 가늠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대에서 회개할 자들을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딤전2:4).

10. Q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7절)

A (1)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 내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바울의 권면과 권위는 버린 상태에 있었다.

(2) 한편 바울은 이에 대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귀절을 영어 성경에서는 서술문(NIV, Living Bible), 명령문(RSV), 의문문(KJV)의 세 가지 형태로 번역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명령문으로 번역하여 '너희 앞에 있는 분명한 사실을 보아라'는 경고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3) 즉 바울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돌아보아 자신에 대해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고 권면한 것이다(2절).

(4) 아뭏든 그들 중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실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임명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다.

(5) 이처럼 예수를 믿고 조그마한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마치 복음의 진리를 모두 안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결코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은 아니다.

(6)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자는 교만하지 않으며, 타인의 믿음을 얕보지 않고, 항상 죄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감사하며 겸손히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이다(참조, 왕상9:6-14;눅15:17-21;18:13,14).

11. Q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자신에게 권세를 부여하셨다고 밝혔는가? (8절)

A (1) 바울은 결코 그 권세가 고린도 교회를 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세우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러한 권세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2) 즉 바울은 반대자들을 파하고 불순종에 대해 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5,6절) 그의 진정한 임무는 인간을 올바른 신앙과 구원으로 이끄는 데 있음을 밝혔다(참조, 고전8:1;14:26).

(3) 이런 바울의 말과 같이 예수께서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신 것은 진리가 바로 설 수 있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해 주신 것이지 그 권세로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거나 교회를 강압적으로 인도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참조, 히13:17).

(4) 한편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그 결과가 진리를 위하느냐 위하지 않느냐 또한 친교를 성립시키느냐 오히려 파괴하느냐에 따라 판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자신의 말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다.

12. Q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행사함에 있어서 자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A (1) 고린도 교인들이 그가 편지로 그 교인들을 놀라게 하려 한 것처럼 생각지 않도록 하려 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주목적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그가 권위를 내세우려는 데 있다고 악선전을 하고 돌아다녔다.

(3) 즉 고린도 교인 가운데 바울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은 바울이 친히 고린도 교회

앞에 서서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 자기들을 협박한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4) 이처럼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고, 믿음의 연수(年數)와 교회 내의 지위 및 사회적 위치를 자랑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에 문제거리를 만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

(5) 혹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온전한 것인 양 생각하고 있을런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잘못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참조,행13:45;18:6).

13. **Q 바울의 반대자들이 비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10절)

A (1) 바울의 편지 내용은 무게가 있으며 힘이 있으나 실상 직접 대면하면 바울은 약하고 그 말이 시원치 않다는 것이다.

(2) 바울이 이 같은 오해를 샀던 까닭은 아마도 그가 처음으로 고린도에 전도할 때 당당한 인상을 그들에게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3) 그는 일전에 아덴 사람들에게 철학적으로 전도했으나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행18:1).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그것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고전1:33).

(4) 그러므로 헬라 수사학이 요구하는 세련된 웅변술을 갖지 못한 채(11:6) 단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은 그들의 눈에는 나약하게 보였을 것이다(참조, 고전1:18).

(5)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인간의 뛰어난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말재주에 의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진리는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전달된다(참조, 마11:5;13:15).

14. **Q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11절)

A (1) 바울은 그들을 떠나 편지로 말할 때나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2) 즉 그들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방문할 때 그의 편지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적극적이며 강한 행동을 취하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13:2,10).

(3)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기 전에 그들의 태도를 고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했다(2절).

(4) 이처럼 우리들도 종종 눈앞에 없는 형제들에게 쓸데없는 비난과 조소를 보내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 정죄의 대상이 되므로 항상 삼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참조, 마5:22;7:1).

15. **Q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받는 비난은 무엇인가?** (12절)

A (1) 그들은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는 지혜 없는 자란 책망을 바울로부터 들었다.

(2) 즉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스스로 사도인 양 행동하고(11:13) 또한 고린도 교회를 지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자들은 어디까지나 자화 자찬(自畵自讚)을 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4)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참조, 요5:27). 즉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아무리 큰 선을 행하였을지라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할 바이면서 또한 그것이 우리의 자의(自意)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행10:19,20;13:2,4;20:28).

16. **Q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여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3절)

A (1) 자신은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限界)를 따라 자랑한다고 평하였다.

(2) 여기서 '우리'란 바울의 동역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지도권을 주장함은 마땅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한편 여기서 '분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논〉인데 이는 원래 갈대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첫째, 측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것을 말하며, 둘째는 통치자가 백성들의 생활을 지키는 규칙과 원칙을 윤리적인 면에서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4) 본절에서는 그것이 바울에게 할당되고 주어진 것으로 언급되었다. 바울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의 '규칙'을 부여받았다.

(5) 첫째, 그는 이방인의 사도이다(행9:15;롬1:5).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으로부터도 인정받은 사실이었다(참조, 갈2:9).

(6) 둘째, 그는 다른 사람들의 기초 위에는 세우지 않아야 했다(롬15:20). 즉 그는 이방인들에 대한 개척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곳이며 자신의 지도권이 미치는 곳임을 밝혔다(참조, 고전3:6).

(7) 한편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교회의 선교 지역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한 교회가 터를 잡고 목회를 시작하면 그 부근에 또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삼가야 한다.

(8) 그 이유는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을 일으키거나 불신자들로부터 교회가 물질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점들과 마찬가지로 이권(利權)을 놓고 싸운다는 비난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롬15:20).

17. **Q 바울은 어떻게 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가?** (14절)

A (1) 바울은 결코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교회를 세웠다.

(2) 이 말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복음의 개척자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였으며(참조, 고전3:6) 복음으로 그들의 영적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참조, 고전4:15) 거짓 교사들이 사실상 그의 경쟁자가 될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고린도 교회의 담임권이 바울에게 없다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바울이 다음 번 방문 때 벌하려고 계획했던 '복종치 않은 것'(6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4) 이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거짓 복음을 들고 다니는 자들은 자신들만이 진리를 전달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거짓 교사로 몰아붙이며(참조, 마12:24) 교회에서 몰아내려 시도하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 진짜이며 진리인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참조, 요일4:1).

18. **Q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A (1) 그들의 믿음이 더할수록 자신의 한계를 따라 그들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는 것이다.

(2) 이 말은 곧 고린도 교인들의 조력으로 교회 내의 문제가 잘 처리된 이후에는 그가 곧 고린도 지역 밖에 있는 지역을 복음화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행19:21;롬15:22-24).

(3)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믿음이 자라서 그 교회가

안정이 되면 선교 사역을 더 멀리까지 펼쳐 나가려고 하였다.

(4) 이것은 확실히 그가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는 자로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에게도 같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고백이라 하겠다. 그는 생명을 전한 자로서 그 생명의 영향력이 온 교회 안에 미치기를 소원한 참된 목양자였다(참조, 고전4:15).

(5) 더우기 그는 교회의 안정이 최대의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 교회 관리와 개척을 목표하고 있었다(참조, 16절; 행19:21; 롬15:23,28).

19. **Q 바울이 더 먼 지역까지 선교를 확장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A (1) 그것은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고린도를 지나 복음을 전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2) 여기서 '고린도의 지경을 넘는 곳'이란 서쪽으로 로마와 서바나가 될 것이다(참조, 행19:21; 롬15:22-24). 그는 남이 이룩해 놓은 터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참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였다.

(3) 이와 같은 바울의 포부가 성취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안정이었다. 이처럼 교회의 안정과 하나됨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 선교에 앞서 교회 내의 평화와 진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한편 바울의 그 같은 개척 정신은 선교에 있어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개척 정신을 보여야 할 것이다(참조, 요3:3).

20. **Q 성도들이 훌륭한 업적을 이룩했을 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7, 18절)**

A (1) 성도들은 비록 훌륭한 일을 성취했다고 해도 주 안에서만 자랑하여야 한다.

(2)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룩해 놓은 공적 위에서 마치 자신들이 큰 일이나 한 것처럼 자랑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사역자는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지 않음은 물론 설사 자신이 했더라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참조, 렘9:23, 24).

(3)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같은 까닭은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복음 사역자는 단지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은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게으르다면 형벌을 면키 어려우며 또한 그가 그 일을 열심히 하였다 해도 이 땅에서 바랄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일을 맡겨 주신 데 대한 감사와 그 일을 성취시킨 데 대한 보람, 만족이어야 할 것이다(참조, 사6:1-8; 빌3:4-7).

(5) 그러나 장차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충성된 종에 대한 상급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참조, 마24:45; 계2:10).

(6) 아무튼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과 모든 일을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바울이 목적했던 바이니(참조, 5:9,10) 우리의 삶의 목표도 바로 이같이 우리가 살아 있으나 죽으나 항상 주를 위해 존재하며 끝내 그분의 인정을 받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4:7,8).

제 11 장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다

단락구분 *1-4* 고린도 교회의 순결을 염려하는 바울 / *5-6*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바울 / *7-10* 진리를 위해 힘쓴 바울 / *11-15* 사단의 술책을 경계하는 바울 / *16-22* 어리석은 자랑 / *23-33* 복음을 위해 겪어야 만 했던 고난과 악한 것을 자랑하는 바울

1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5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6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7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8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9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10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11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12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6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17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없이 자랑하노라
18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19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21 우리가 약한 것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22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23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25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 데 일 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31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32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33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 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

1. **Q 본장에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A (1)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지식과 웅변술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한 데 대해 변명을 하고 있다(5,6절).
   (2) 즉 바울의 사역은 고린도 교인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 없이 보존하는 것이며 그 같은 사역의 과정에 있어서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움을 입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었다(2,9절).
   (3)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권위 침해와 교만한 자기 자랑은 바울로 하여금 진정한 자랑이란 무엇인가를 보여 주게 하였다(17,18절).
   (4)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한 것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위해 당한 고난(22-29절)과 자신의 약함이었다(30절).
   (5) 여기서 바울이 부득이 자신을 내세운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방탕의 노예가 되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거짓 교훈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함이었다(3절).
   (6) 이와 같이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 시대적 사조(思潮)나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역자들은 큰 실의에 빠지게 되며, 진리가 가리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올바른 행실과 깨어 있는 정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참조, 살전3:13;5:23;벧후3:14).
2. **Q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용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A (1) 이제까지 그가 이루어 놓은 것과 고생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는 '좀 어리석은 것'이다.
   (2) 바울은 인간이 자랑한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중상 모략이 너무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며 힘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이처럼 바울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교인들을 정죄와 징계로 다스리지 않고 인내와 관용으로 타이르는 모습은 우리 교역자들의 모범이 된다.
   (4) 교역자들도 인간인지라 혈기와 분노를 낼 수 있으나 자신의 양들을 진정 의로운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교역자라면 항상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10:1).
   (5) 왜냐하면 한없는 온유와 관용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의 모범이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참조, 눅6:29;딤후2:25). 그리고 이것이 교역자가 참된 권위를 지닐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다.
3. **Q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2절)
   A (1) 그것은 바울이 그들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2) 즉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처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그리스도께 중매한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 순결한지 지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의 혼인 관습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구약의

일반적 사상을 혼합 인용하였다(참조, 사54:5-62:5).

(4) 유대의 혼인 관습에 있어서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정조를 보증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이 같은 책임을 담당한 자가 곧 바울이었다.

(5) 바울은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신부인 고린도 교회의 정절을 보증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으니 그 정조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 것이다.

(6) 즉 거짓 교사들의 유혹으로부터 고린도 교인들을 지켜 내야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7) 한편 고린도 교인들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러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려는 자들은 자신의 영적·정신적·육체적 순결을 간직해야 한다(참조, 마25:1-13).

4. **Q 거짓 교사들과 고린도 교인들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3절)

A (1) 거짓 교사들은 간계(奸計)로 이와(Eve)를 미혹(迷惑)케 한 뱀에 비유되었으며 고린도 교인들은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한 이와에 비유되었다.

(2)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교활하게 완전히 속인 것(참조, 창3:13;딤전2:14)처럼 고린도에서도 교인들을 속일 수 있는 사단의 일군들로 생각했다.

(3)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이제 '부패할'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다.

(4) 즉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예수와는 다른 예수를 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였다.

(5) 이처럼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인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론과 철학으로 스스로를 파괴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미혹은 더욱 심하여져서 인간들은 점점 순수한 마음과 선(善)을 향한 마음을 잃어 갈 것이다(참조, 시14:2,3).

(6) 그러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신학을 터득하고 뛰어난 언변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 예수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믿음의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복음의 순수성과 성도의 성결된 삶을 유지하며 썩어져 가는 세상과 교회를 바로잡는 것이다(참조, 요13:35).

5. **Q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4절)

A (1)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접하지 않은 다른 예수와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다.

(2) 즉 그들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즉 혁명가 또는 육체의 자유마저도 허락한 주,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영, 단지 도덕적인 신일 뿐인 예수를 받아들였다(참조, 요일4:1).

(3) 또한 그들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자 평강과 자유의 영(참조, 롬14:17)인 성령이 아닌 다른 영(참조, 롬8:15;딤후1:7)과 바울에 의하여 전파된 복음과는 다른 복음(참조, 갈1:6-9)을 듣고 그것을 따랐다.

(4) 그러나 그러한 복음들은 우리 인간을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이론과 제약에 묶어 놓으려는 악한 사단의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참조, 요10:8,10,12,13).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길이 진리의 길이며 우리를 살리며 풍성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이다 (참조, 요10:9,11,14-16).

6. **Q 바울이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변호하였는가?** (5, 6절)

A (1) 그는 비록 말에는 졸(拙)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으며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자신을 변호하였다.

(2)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이란 '거짓 사도들'(13-15절), 즉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한다(4절).

(3)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도인 양 행세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빈정대는 말투로 이들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불렀다.

(4) 또한 이들은 유능한 웅변가들이어서 쉽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바울이 말재주가 없음을 선전하고 다녔다.

(5) 바울도 그 사실은 인정했지만(10:10;고전1:17;2:4)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은 풍성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여러 방법으로 이 사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내었음을 상기시켰다.

(6)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도 목회자들에게는 많은 학문적 수업과 신학적 지식이 요구되며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됨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영적 진리를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참조, 고전2:13).

7. Q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 방법에 있어서 어떤 점을 비난하였는가? (7절)

A (1)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거리로 삼았다.

(2)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생활비를 받았었다. 또한 성경에도 복음을 들은 자들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은 복음 사역자의 권리로 기록되어 있다(참조, 신25:4;눅10:7).

(3)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담을 갖지 않은 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한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은 장막 만드는 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참조, 행18:1-3;살전2:9;살후3:8).

(4)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참 사도의 표라 했으며 바울이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

(5)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선생들이 보수를 받았으며 거저 가르치는 일이 없었으니 바울이 보조금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6) 한편 오늘날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보수(報酬)를 받지 않을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생활의 여유가 있다면 교인들에게 부담과 금전적 의혹의 소지(素地)를 주지 않기 위해 보수를 받지 않는 것도 자혜로운 태도라 하겠다(참조, 살전2:9;살후3:8).

8. Q 고린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던 중 바울은 어려운 살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8, 9절)

A (1)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料)를 탈취하였으며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그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2) 여기서 '탈취하였다'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들(8:2)로부터 선물(경제적 후원)을 받은 것을 마치 그가 그들의 돈을 탈취한 것으로 생각한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3) 또한 마게도냐 교회로부터의 보조금은 그가 그 교회에서 봉사할 동안만 합법적이지 고린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에는 그들이 그 보조금을 대 줄 의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실라와 디모데(마게도냐에서 온 형제) 편에 보낸 선물을 사랑의 선물로 받았다. 그것은 그들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에 감사하였기 때문에 보낸 것이었고 따라서 바울도 그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었다(참조, 행18:5;빌4:10-18).

(5) 이처럼 어느 누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을 줄 수 있다(8:2). 그러므로 진정한 헌금이라면 그 속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정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참조, 막12:43).

(6) 이와 같이 진실된 마음에서 거두어진 헌금이 복음 전파 사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단지 한 인간의 열심에 의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교는 분명 온 교회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 작업이다.

9. **Q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10절)

A (1) 그것은 바울이 앞으로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여기서 '아가야 지방'이란 고린도를 수도로 한 로마의 행정 구역인데 주로 고린도 지방을 가리킨다.

(3) 그리고 본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에 의하여 나는 맹세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4) 이처럼 바울은 설혹 거짓 사도들이 자신에 대해 악선전을 하고 다닌다 해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곧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일을 계속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5) 한편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또한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좌절하지 말고 자신의 소신(所信)을 밀고 나가야 한다(참조,갈6:9).

10. **Q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지 않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비난을 했는가?** (11,12절)

A (1)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헌금을 받지 않음은 그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방하였다.

(2)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로부터는 헌금을 받고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받지 않는 이유가 결코 고린도 교회보다 마게도냐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3)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교회로부터 헌금 받을 자격이 있는 사도들이라고 자랑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후원을 요청하고 그것을 받았다(20절).

(4) 그 뿐 아니라 그들은 바울도 역시 경제적인 도움을 교회로부터 받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것을 받는다면 자신들이나 바울이나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즉 바울이 행동을 수정하여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바울도 그들과 똑같은 봉사 활동을 한다는 선전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6)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선전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도 자신의 처음 계획대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후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였다.

(7) 이와 같이 사악한 무리들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오히려 의인들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취한다(참조, 마4:1, 3).

11. **Q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거짓 사도들을 어떤 존재로 규정지었는가?** (13절)

A (1)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궤휼의 역군'으로 규정지었다.

(2) 즉 그들은 사도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의 권세와 세력 유지를 위해 애쓰는 사단의 무리로서 남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변화시키는 자들이다.

(3) 이처럼 이 세상의 사단의 무리들은 '항상 진리와 선을 위해 산다'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열매는 썩은 열매이며 타락케 하는 열매에 불과할 뿐이다(참조, 마13:38, 39).

(4)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능숙한 말솜씨를 통해서 그의 인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으로 그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요즈음 들어 사군 목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자신의 치부를 노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참조, 요10:12).

12. Q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4, 15절)

A (1) 그것은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이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니다.

(2)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흑암의 권세를 지니고 흑암의 세계를 통괄하고 있는 사단(참조, 행16:18;엡6:12;골1:13)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항상 빛으로 그 외모를 단장하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그러기에 사단이 그러한 위장 전술을 펴는 것이 당연하다면 사단의 일군 역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4) 그러나 이들이 '의의 일군'을 가장한다고 해도 또한 그 일로 인해 잠시 성공한다고 해도 종말에 가서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것이며, 그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참조, 잠24:12).

(5) 한편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내의 목회자와 직분자들 중에도 '의의 일군'을 가장하여 양 떼들을 흩어 놓고, 그릇된 길로 인도하며 양 떼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 날에는 이들도 그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마16:27;빌3:19).

13. Q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는 바울의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A (1) 그는 자랑을 피하려고 하지만 불가분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으니 자기를 변호하는 그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2) 여기서 '사실'이란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한 옹호와 고린도 교인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설혹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랑할 사건들의 중요성을 고린도 교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3) 더우기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강조함으로써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간접적으로 꾸지람하려 했던 것이다. 즉 그들의 어리석음을 자신에게 결부시켜 표현한 것이다.

(4) 한편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도 화려한 몸짓과 유창한 말재주를 갖고 인기가 있는 거짓 목회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사기군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참조, 렘13:26;마10:26).

14. Q 바울이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忌憚)없이 자랑한 것은 무엇인가? (17, 18절)

A (1) 그것은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한 것과 같이 바울도 육체의 자랑을 한 것이다(21-33절).

(2) 사실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게 생각한 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즉 예수께서는 결코 자신을 자랑삼아 말씀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일어난 오해를 씻고 이미 받은 진리를 확고히 이해시키기 위해 자랑하였다.

(4) 그런데 여기서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것이란 국적(國籍)이나 가문 그리고 지위 같은

외적 우월감과 특권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을 뜻한다(22절).

(5) 물론 사회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력과, 지위와 학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삶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모인 것이 곧 기쁨과 평안만이 있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참조, 계21:4).

15. Q 지혜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행위는 어떠했는가? (19, 20절)

A (1) 지혜가 있다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도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을 용납한 결과 거짓 사도들의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

(2) 즉 바울 이상의 권위와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넘어온 선생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을 은혜의 복음 및 자유를 버리고 유대인의 할례와 복잡한 율법에 복종케 함으로써 노예로 만들었다.

(3) 그런데 그들 중에는 '랍비를 부양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한다고 선전하여 많은 재물을 착취하는 자들도 있었다.

(4) 그리고 그들은 거만하게 행동했는데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아버지' 이상의 대우를 받길 원했으며 더우기 자신의 제자들을 때릴 정도로 거만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거짓 사도들의 태도를 권위를 세우는 것으로 오해했다.

(5) 오늘날에 있어서도 학식이 풍부하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교훈과 이론의 노예가 되어 어두운 삶을 살기 쉬운데 이는 그들의 눈이 사단의 미혹에 의해 가리워졌기 때문이다(참조, 마13:13,14).

16. Q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낸 내용은 무엇인가? (22, 23절)

A (1)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자랑했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란 당시에는 아람어로 알려진 옛 히브리어를 아는 자들을 가리켰다(참조, 행6:1;빌3:5).

(2) 또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임을 자랑했다. 물론 거짓 사도들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인'임을 자랑했는데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을 의미한다(참조, 롬9:4). 그러므로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인'임을 밝혔다.

(3)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씨'임을 주장하였다(참조, 빌3:8). 즉 이 말은 자신도 아브라함의 직계라는 뜻이다. 또한 이 말에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허락한 모든 축복을 계승할 것이다(창12:1-3;엡2:12)는 뜻도 있다.

(4)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바울이 자신들과 같이 순수한 아브라함의 직계가 아니라고 말하였으니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도 순전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음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5)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여러 각도에서 소개하고 변호한 것은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들의 도전이 너무나 근거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6)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민족이나 혈통에 관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참조,갈3:26).

17. Q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당한 고난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23-27절)

A (1) 그는 단지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곤욕을 치루어야 했다(참조, 6:5;행16:23-40).

(2) 또한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다. 이 형벌은 유대인의 형벌

이었는데(신25:1-3) 보통 40대가 그 한도였으나 하나라도 넘어가면 매질하던 형리가 도로 매를 맞게 되므로 대개 39대에서 그쳤다.

(3) 그리고 세 번 태장(笞杖)으로 맞기도 하였다. 본래 로마 시민에게는 태장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끔 군중들의 압력으로 때리기도 하였다(참조, 행16:22,23).

(4) 또한 한 번 돌에 맞고(참조, 행14:5,6,19), 세 번 파선(破船)되어 일 주야를 표류하였다.

(5) 이 뿐 아니라 그는 여행 중에 험한 강물과 산길의 위험과,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훼방과, 굶주림과 추위 등으로 고생하였다(참조,고전4:11;빌4:12).

(6) 이처럼 바울이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일군'이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복음 전파를 결코 자신의 이득이나 명예를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롬8:17).

(7) 이처럼 진정으로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결코 자신만을 돌보지 않으며,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만 하는 자이다(참조, 행5:41).

18. **Q 바울이 겪은 내적 고난은 무엇인가?** (28, 29절)

A (1)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양들 중 누가 약하거나 실족하게 되면 괴로와한다고 말하였다.

(2) 즉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로부터 들려 오는 분쟁과 타락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의 해결을 위해 고심했으며(참조, 행20:29,30) 그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애썼다(참조, 롬14:1;고전9:22).

(3) 그런데 바울의 이와 같은 염려는 예수께서 인간들을 위해 기울이신 염려와 같다. 즉 예수께서는 자신을 팔고 십자가에 매단 자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긍휼히 여기셨다(참조, 마26:24;눅23:34).

(4) 이와 같이 한 교회를 목양하고 한 공동체의 책임자로 있는 자들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간절함이 없는 자는 스스로 그 공동체의 책임자 위치를 포기함이 옳을 것이다.

19. **Q 바울이 본장에서 언급한 자신의 자랑 중 거리낌없는 자랑은 무엇인가?** (30, 31절)

A (1) 곧 자신의 약함이다. 그런데 그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것이라고 하여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였다.

(2) 여기서 '약함'이란 자신의 신체의 허약과 세상의 것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연약함이다. 또한 그 말의 의미에는 예수를 위해 당하는 모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가 자랑하는 바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임을 알 수 있다(23절).

(3) 아뭏든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것이 진실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리라 믿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그분께서 자기가 일상 생활 중에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리라고 믿었다.

(4)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5) 더우기 그는 자기가 약하기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약한 자기를 지지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였다(참조, 1:8-10;3:5;4:7).

(6) 여하튼 우리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고 있으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지를 판단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다(참조, 롬8:9).

20. **Q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크게 느꼈던 사건은 무엇인가?** (32, 33절)

Ⓐ (1) 그것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킬 때 탈출한 사건이다.

(2) 이것은 행9:24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이 일을 굳이 예로 든 이유는 그로서는 이 일이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3) 왜냐하면 반대자들의 훼방과 폭력도 두려워하지 않고(23-27절) 복음을 전하던 그가 야간에 도주한 것은 복음 사역자로 크게 쓰임 받던 자기로서는 큰 수치였기 때문이다.

(4) 한편 '아레다'(Aretas)는 애굽에서 왕에게 '바로'(Pharaoh)라는 칭호를 붙였듯이 아라비아의 왕들에게 붙여진 칭호이다.

(5) 그런데 본절에 언급된 '아레다'는 B.C. 9년 전부터 A.D. 40년까지 홍해에서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나바테아(Nabataea)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다.

(6) 또한 '아레다 왕의 방백(方伯)'은 당시 다메섹의 행정 장관으로 '아레다'의 지시에 의해 다메섹을 치리하던 자이다.

(7) 그런데 회심(回心)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자(행9:20-22)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기로 계획하고 '아레다 왕의 방백'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8) 아무든 인간 혼자로서는 이처럼 약하고 그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약할 수가 없으며 이 세상의 어떠한 자보다 강할 것이다(참조, 사41:10). 이것이 육신적으로는 가장 약한 성도가 궁극적으로는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화보자료

다메섹(Damascus)의 옛 성벽. **성벽 위에 붙여 지은 집이 인상적이다.**

사진에서와 같이 집을 성벽 위에 붙여 짓는 양식은 오늘날에도 근동지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처럼 집을 성벽 위에 붙여 지으면 성문을 통하지 않고서도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 성에서(32, 33절;행9:23-25) 그리고 가나안 정탐군들이 여리고 성에서(수2:15-22) 도피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였다.

제 12 장 환상과 육체의 가시

단락구분 *1-6* 바울이 본 환상과 계시 / *7-10* 육체의 가시가 주는 의미 / *11-13*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진 바울 / *14-15*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헌신 / *16-18* 물질에 대해서는 결백하다는 사실을 변호하다 / *19-21* 방문에 앞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다

1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십 사 년 전에 그가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6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3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을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14 보라 이제 세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16 하여간 어떤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궤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17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18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를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19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0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

1. Q 본장의 중심 내용을 설명하라.

Ⓐ (1) 바울은 전장(前章)에 뒤이어 본장에서도 자신에 대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계속해서 그에게 사도로서의 징표를 보이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11,12절).

(2) 따라서 그는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기이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였다(1-4절).

(3) 그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덕스럽게 하거나 성도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이로써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이 거짓 사도들 못지않는 사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4) 그러나 그는 환상과 계시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해 자신의 육체에 가시도 받은 사실을 자랑하였다. 즉 그는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신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하였던 것이다(9절).

(5) 마지막으로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강조하면서(14,15절) 자신이 그들을 다시 방문할 때까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를 회개할 것을 경고하였다(20,21절).

(6) 한편 오늘날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일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9:16).

2. Ⓠ **'자랑이 무익하다'라고 말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1절)

Ⓐ (1)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그러나 여기서 그 자랑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대로 말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에게 갖고 있던 오해를 풀고 거짓 사도들에게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였는데 여기서 '환상'(헬, 옵타시아)은 초자연적이며 기적적으로 어떤 실체를 보는 것을 말하며, '계시'(헬, 아포칼룹시스)는 성령의 조명(照明)으로 감추어졌던 진리를 깨닫도록 밝혀 주는 것을 말한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특별한 사람을 부르실 때 환상과 계시로써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신다(참조, 출3:2; 사6장; 행9:3-9).

(5)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환상과 계시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있으니 곧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을 통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참조, 딤후3:15-17).

3. Ⓠ **바울이 겪은 영적 체험은 무엇인가?** (2절)

Ⓐ (1) 그것은 그가 14년 전에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간 체험이다.

(2)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의 침묵을 깨고 정확한 때를 밝힌 것은 그 사실을 자세히 기억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참조, 갈1:7). 즉 자신이 경험한 체험은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했던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3) 한편 '세째 하늘'이란 유대인의 하늘에 대한 개념 중 하나이다. 즉 그들은 하늘이 일곱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참조, 위경 에녹서8:1-13;42:3) 바울이 이끌려 간 곳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그는 최고의 하늘에 갔었던 것으로 보인다(참조, 엡4:10). 즉 유대인의 수자로는 '3'이 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이 더 없이 높고 완벽한 하늘 곧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갔음을 짐작할 수 있다(참조, 히7:26).

(4) 그러나 '이끌려'라는 표현이 말해 주듯이 바울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있었으나 자신은 전혀 능동적일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참조, 행8:39).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役事)하심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참조, 마16:24).

4. Q 바울이 세째 하늘에 이끌려 갔을 때 그는 어떤 상태였는가? (2, 3절)

A (1)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였다.

(2) 이것은 그가 환상 가운데서 자기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은 것을 표현한 것이다. 즉 몸은 땅에 있고 영혼만 이끌려 갔는지, 아니면 영과 육이 함께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표현은 그가 시공간(時空間)의 세계 밖으로 나간 사실을 가리킨다.

(3) 한편,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불투명하게 언급한 이유는 그 주인공을 밝히기 싫어서이며, 또한 이러한 체험은 자기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한편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용어는 바울 자신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참조, 5:17).

(4) 하지만 이처럼 바울이 겪었던 환상과 계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여 일을 하실 때에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

(5) 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과 능력 그리고 예측으로도 도저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며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참조, 시139:14;사28:21).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는 어느 인간이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참조, 사45:23).

5. Q 4절에는 바울이 이끌려 간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었는가?

A (1) 바울은 2절에서 그가 이끌려 간 곳이 '세째 하늘'이라고 밝혔으나 4절에서는 '낙원'이라고 기록하였다.

(2) 그런데 일부 유대의 문학서들은 '세째 하늘'을 축복받은 자들의 거처이면서 또한 악한 자를 위한 거처인 것으로 묘사했는데 그중 축복받은 자들의 거처가 되는 곳이 '낙원'이다.

(3) 페르시아어로 '동산'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낙원'이 70인역(LXX)에서는 에덴 동산(창2:8;13:10;사51:3)과 하나님이 계신 곳(겔28:13;31:8)을 가리키는 〈파라데이소스〉로 표기되어 있다(참조, 느2:8;전2:5;아4:13;눅23:43;계2:7).

(4) 후기 유대교의 종말론에서는 창2, 3장에서의 첫번째 낙원과 최후의 또는 종말론적인 낙원(참조, 계12:7) 그리고 그 둘의 중간 시기에 있는 숨겨진 낙원(참조, 눅23:43) 사이에 개념적인 차이를 두었다. 본절의 낙원은 바로 이 중간 시기에서의 낙원을 가리킨다고 본다.

(5) 한편 신약 성경에서는 '낙원'이 예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약속한 장소(눅23:43)로 나오며, 세상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동안 이기는 자가 얻을 영생의 장소로 묘사되어 있다(계2:7)

(6) 이처럼 바울은 너무도 신비로운 곳이어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 다녀왔음을 밝히고는 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는 아니하였다(5절).

(7) 우리는 바울이 다녀온 이 같은 신비경(神秘境)에 대해 현재로서는 단지 상상할 뿐이지만 그곳은 곧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처소임에 분명하다(참조, 계21:10-27).

6. Q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A (1)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향해 미친 사람이라고까지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5:13) 자신이 경험한 것으로 인해 그들을 위한 새로운 도전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자신의 체험을 너무 극대화시켜 그것이 곧

우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 환상과 계시가 바울에게는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별한 은사이지 바울의 어떠한 자격에 의해 주어진 것은 아니다.

(3)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당시 자신의 육체적 약점을 비롯한 연약함뿐이라고 하였다.

(4) 따라서 바울은 더 이상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면서 단지 모두가 언급할 수 있는 사실만을 말하기로 하였다.

(5)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어떤 약점을 지닌 것을 알 경우 그 약점은 그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 있는 생과 활동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된다(참조, 왕상9:6-14;미6:8).

7. Q 은혜를 많이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7절)

A (1) 하나님께서는 그가 너무 자고(自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2) 여기서 '육체에 가시'란 육체적 질병으로 생각하여 간질병이나 안질(眼疾) 혹은 학질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참조, 갈4:13-15).

(3) 또한 어떤 학자들은 '사단의 사자'라는 말과 연관시켜 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적대자로 해석한다(참조, 행13:10;살전2:18;딤후2:17;4:14).

(4) 그런데 그 가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은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이득이었다.

(5) 즉 그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았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것을 주셨음을 알았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도 어떤 약점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우리 삶의 절대적 결점이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참조, 시8:2).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요소가 될 뿐이다(참조, 딤전4:4).

8. Q 바울은 고통 중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8절)

A (1) 그는 그 고통이 자신에게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세 번 간구했다.

(2)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였다.

(3) 이것은 곧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든 아니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든 간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 기도의 응답은 분명 하나님께 있다. 인간은 단지 기도할 뿐이다.

(4) 이처럼 바울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진술한 이유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자신을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시91:15;사58:9).

9. Q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9절)

A (1)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받은 은혜가 족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셨다.

(2) 바울은 그 가시가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거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 속에서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가시는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4) 즉 그는 자기가 약하고 무능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참조, 갈2:20).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적이 있다(참조, 빌4:13).

(5)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받지는 못했으나 사실상 그의 요구 이상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라 하겠다.

(6)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요구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그에게 맞는 응답을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왕상3:4-15).

10. Q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9, 10절)

A (1)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떠나 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다.

(2) 즉 그는 하나님께서 교만하거나 자고(自高)한 자가 아닌 약하거나 스스로의 나약함을 깨달은 자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3)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약함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고난, 궁핍, 핍박, 경멸까지도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는데 이는 자신이 약하고 영력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강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참조, 엡3:16).

11. Q 바울이 어리석은 자가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A (1)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억지로 시켰기 때문이다.

(2) 즉 이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바울의 인격과 사업을 비난하므로 이제까지의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다.

(3) 한편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라는 귀절은 역설적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이룩해 놓은 업적이 자신들을 높이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큰 사도, 즉 거짓 사도들의 그것보다 오히려 위대한 것이었음을 주장하였다(11:5).

(4)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되도록이면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룩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함도 곧 주의 권고이며 역사(役事)이기 때문이다(참조, 고전3:7).

12. Q 바울은 자신의 사도로서의 표를 무엇으로 증거했는가? (12절)

A (1) 그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奇事)와 능력으로 자신의 사도로서의 표를 보였다.

(2) 즉 그는 자신이 거짓 사도들보다 더 우월함을 보였다. 여기서 '표'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도로서의 초자연적인 자격을 말하는데 거기에는 그 자격들이 표현하는 초자연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3) 그리고 '참음'이란 말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었던 적극적인 능력을 의미한다(참조, 6:4).

(4)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란 세 가지 유형의 능력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된 능력을 의미한다 하겠다. 즉 '표적'은 복음을 확증하는 능력이며, '기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능력이고 '능력'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힘을 말한다.

(5) 그런데 이러한 능력들은 결코 의미 없는 힘의 과시만은 아니다. 그것들은 나름대로 교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참조, 막2:10). 즉 그 능력들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모든 사건과 인격을 지배하고 계시는 그분의 권능을 나타낸다.

(6) 또한 그 능력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던 것인데 그분께서는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으며(마10:1;막3:15;눅9:1)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계속되었다(롬15:18,19). 따라서 바울은 이 능력들 가운데서 하나님에게서 전해진 그의 사도적 신분의 권위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7) 한편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비록 이와 같은 능력을 보일 수는 없을지라도 성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올바로 인도하여 지도자로서의 진정한 권위를 보여야 할 것이다.

13. Q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4절)

A (1)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물질적인 혜택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며 바울 자신과도 우의를 회복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이다.

(2) 그런데 바울은 행18:1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첫번째 방문을 하였으며, 두번째 방문은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 갔으며(고전2:1) 이번이 세번째 방문이 된다.

(3) 우리가 본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의 방문은 거짓 사도들의 방문과는 달리 오로지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애쓰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과 같은 방문임을 알 수 있다.

(4) 즉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온 인격을 동원하여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참조, 고전9:2-14).

(5) 이처럼 목회자는 자신의 양 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일차적인 문제는 자기 양들의 영혼 문제이다(참조, 벧전 5:2).

14. Q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열심은 어떠하였는가? (15절)

A (1)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과 자신을 허비하면서까지 일하겠다고 하였다(참조, 행20:24).

(2) 이 말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들을 위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는 의미이다.

(3) 여기서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은 그들을 위한 영혼 구제와 성숙을 목표로 한 사업을 위해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일한다는 의미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교회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위한 희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참조, 요10:11).

(5) 한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너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는 말로써 자신의 사랑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원했던 것이다.

(6) 즉 바울의 부성애적인 사랑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식으로서의 애정을 나타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11:11).

(7) 이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교제와 애정의 응답이 끊이질 않아야 한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15. Q '공교한 자가 되어 궤계(詭計)'로 고린도 교인들을 취하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16절)

A (1)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말로서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금전상의 사례를 받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성공적으로 해명했을지라도 바울을 향한 험담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2) 그런데 그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공교한 자 곧 술수를 사용하는 교묘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 즉 다른 사람을 통하는 방법을 써서 그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3) 그런데 이 같은 말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정체를 드러내고 만 것에 불과하다. 즉 그들은 바울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방법으로 치부한 것인지에 대해 적나라하게 말하고 만 셈이다.

(4)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많은 훼방군들이 여러 방법을 사용하여 괴롭히게 된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충성되게 일을 하면 큰 상이 있을 것이다(참조, 벧전4:12,13).

16. Q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되묻는 것은 무엇인가? (17, 18절)

A (1) 그것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자들 중에, 특히 디도가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간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2)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도를 위해 또한 모금 사업을 위해 과거 여러 번 사람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누구도 물질적인 부정이 없었던 것을 자신 있게 말한다.

(3) 특히 디도는 수차 모금 사업을 위하여 고린도에 갔으며(8:6) 또한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도 갔었다(2:13;7:6;13:15).

(4)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계속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친하며 그들도 아는 바와 같이 절대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5)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절대로 권위를 내세우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며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목자의 모습도 아닌 오히려 사정하며 호소하는 목자의 모습이다. 즉 그는 자신이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른 입장에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그 일을 수행했던 것이다.

(6) 그러나 오늘날의 목회자들 중에는 자신들이 무슨 감투나 쓴 것처럼 뻐기고 다니면서 성도들 알기를 마치 자기들의 종이나 부하로 여기는 계급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진 자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의 행동은 결코 예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다(참조, 사16:11,12;렘50:6;겔34:1-10).

17. Q 바울이 이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변명을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19절)

A (1) 그것은 변명 그 자체에 이유(목적)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그의 순결과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바른 신앙과 바울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되찾게 하는 데 있었다.

(2) 즉 바울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고린도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려는 데 있었다.

(3) 이처럼 그가 이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자랑과 비난과 변명은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제껏 엄하게 책망한 말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다.

(4) 사실 바울이 이 같은 경고와 변명을 하지 않고 단순히 용서와 사랑만을 베풀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사단의 회(會)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경책과 권면과 변명은 시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의 이 모든 행위가 사람을 의식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행한 일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양 떼들의 영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40:11).

18. Q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번째로 방문하기에 앞서 걱정하는 바는 무엇인가? (20, 21절)

A (1) 첫째는 그들이 그가 그들을 원치 않는 자같이 볼 것을 두려워함이며, 둘째는 그가 그들에게 그들의 원치 않는 자같이, 즉 엄격한 징계를 실행할 자로 보일까 하는 점이다(20절).

(2)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보게 될지도 모를 것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죄악들이며(19절) 또 다른 하나는 성적(性的)인 죄악들이었다(20절).

(3) 또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 것이라'는 염려를 하였는데 이는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키지 못한 데 대한 굴욕을 가리키며, 회개치 않는 자들을 교회로부터 축출해야 하는 데 대한 애통의 마음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다.

(4) 이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참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될 때에 큰 고통과 자신의 나약함을 절감하게 된다(참조, 갈4:11).

(5) 이 같은 양심이 살아 있고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는 목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와 사회는 기쁨과 사랑이 넘칠 것이고, 반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양심이 무디어진 목회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과 분쟁과 추악함이 많아질 것이다.

19. Q 바울이 염려하는 것 중 고린도 교인들이 보일지 모르는 일반적 죄악은 무엇인가? (20절)

A (1) 먼저 '다툼'이다. 이는 경쟁, 대항, 불화를 의미하며 겸손한 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진리를 잊은 자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는 행실이다. 둘째로 '시기'(헬, 젤로이)는 좋은 의미의 경쟁심도 가리키나 여기서는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가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의미한다(참조, 갈5:20).

(2) 세째로 '분냄'이다. 이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일시적인 흥분으로 분노를 나타냄을 말한다. 네째로 '당파심'이다. 이는 분리주의적인 사고로 파벌을 조성하여 싸우는 것을 말한다.

(3) 다음으로 '중상'과 '수군수군함'이 있다. 이 둘은 모두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으로 전자(前者)는 정면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행위이며, 후자(後者)는 뒤에서 남을 해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한다.

(4) 마지막으로 '거만함'과 '어지러움'이 있다. 사실 자유로운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믿음의 생활을 한 자들 중에는 마치 신앙의 비밀을 모두 안 것처럼 자랑하거나, 그로 인해 서로 다투고 교회에 물의(物議)를 빚는 경우가 많다.

(5) 이 같은 죄악들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그와 같은 자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교회에 있는 한 교회는 그 본연의 자세를 잃고 하나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폐를 끼치는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참조,신32:10).

(6)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모든 일과 인격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관용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 8:28; 빌 2:1-5).

20. Q 고린도 교인들이 저질렀던 성적(性的)인 죄악은 무엇인가? (21절)

A (1) 첫째는 '더러움'이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에 부끄러운 사람의 추하고 육욕적이며 방탕한 삶을 가리킨다.

(2) 둘째는 '음란'이다. 고린도인들은 난잡한 성 행위와 매음 그리고 간음에 젖어 있었다(참조, 고전5:1).

(3) 세째는 '호색함'이다. 이것은 공공의 예절도 무시하면서 계속된 방종에 빠진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

(4)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번째 방문하였을 때 성적(性的) 부패(13:2)는 이미 중대한 문제거리였다. 그러므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전히 타락한 범죄의 소굴처럼 지내고 있다면 그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 즉 바울은 그들의 타락이 곧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6)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죄와 타협하여 싸우지 않으며 자신을 방종에 내맡긴다면 타락

하여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참조, 롬6:12;히12:1;벧전2:11). 그러므로 특히 생명체(유기체)인 교회 안에서 불건전한 사상과 언어와 행동이 약간이라도 나타난다면 교회 전체는 심각하게 그것을 취급하고 온 유기체 안에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조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정당한 치리(治理)가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집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참조, 약5:19,20).

연구자료

낙원(樂園)

본장에는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계시를 받았었다는 신앙 간증이 나온다(4절). 여기서 낙원을 가리키는 말인 헬라어 〈파라데이소스〉는 페르시아어에서 따온 것으로 본래 '동산', '공원', '정원' 등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는 〈파라데이소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라데스〉가 산림이 무성한 곳, 즉 각종 나무가 울창한 정원이나 공원(느2:8), 각종 과실수로 둘러싸인 과수원(전2:5;아4:13)을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낙원의 개념이 후기 유대교의 사상에 있어선 급격한 변화를 띠었다. 유대 랍비들은 의인이 죽은 후에 가서 사는 장소, 특별히 소수의 선민(選民)들이 거하게 될 내세의 복된 장소를 가리키는 데 '낙원'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자연히 신약 시대에까지 전승되었을 것임에 분명하나 신약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지 않고 있다(단 3번만 언급됨). 낙원에 관한 신약의 첫번째 언급은 눅23:43에 나온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한 강도에게 하셨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다. 두번째 언급은 바로 본장의 기록이다.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세째 하늘 곧 낙원에 이끌려 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1-4절). 여기서 '세째 하늘'이란 전통적 유대 랍비들의 개념에서 따온 것인데 그들은 하늘을 여러 층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세째 하늘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낙원에 대한 신약의 언급은 계2:7에 나온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격려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낙원은 천국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 별개의 장소인가? 그렇지 않다. 의인들이 사후에 거하는 곳,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하시는 곳인 낙원이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천국과 동일한 장소에 지나지 않는다(참조, 마5:10;요14:1-3;계21, 22장). 그러므로 성경에 언급된 '낙원'이란 말은 천국을 가리키는 동의 이명(同意異名)이라 하겠다.

제 13 장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방문 예고와 경고

단락구분 *1* 고린도 교회를 세번째 방문하리라고 예고하다 / *2-4* 고린도 교회를 향해 경고하다 / *5-7* 너 자신을 돌아보아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라 / *8-10* 진리는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다 / *11-13* 작별 인사와 축도

1 내가 이제 세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3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6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7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0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1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2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

1. Q 본장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A (1)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즉 이제는 그들의 죄악과 반대를 더 이상 눈감아주거나 덮어두지 않고 과감하게 징계할 것을 확언하였다(1,2절).

(2)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바랐다. 그러면 자신의 권위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신의 사역도 성공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12:21).

(3) 더우기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목적은 결코 그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함이다(10절).

(4)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평강하며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 있기를 바라는 축도를 하였다(11-13절).

(5) 비록 목회자들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성도들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해결된다면 다시 정상적인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인간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실 것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

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참조, 딤전2:4).

2. **Q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한 내용은 무엇인가?** (1, 2절)

A (1) 바울은 그가 세번째로 그들을 방문할 때에도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 악을 행한다면 그들을 엄중하게 다스릴 것을 경고하였다.

(2) 즉 그는 재판을 열어 죄인들을 추방할 것이며 그들은 교회에서 파문(破門)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3) 한편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는 귀절은 그가 재판을 열 때 혼자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인을 세울 것임을 가리키는 말로 반드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리라는 의지를 확실히 표명하는 것이다(참조, 신19:15).

(4)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들이 회개하길 바라시지만 당신의 주권과 영광이 손상되고 교회마저도 위협을 받을 때는 항상 단호한 조처를 취하신다.

(5)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먼저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를 양육해 가야겠지만 양 무리 중 교회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고 다른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와 단호한 배척, 치리가 필요하다(참조, 고전5:1-5).

3. **Q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3절)

A (1)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요구하였다.

(2) 이 말은 바울이 편지로는 강력하나 두번째 고린도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 대면하면 우유 부단하여 아무런 결정력이 없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10:10).

(3) 이처럼 그들은 아직도 사람을 외모로만 보는 편협과 단순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의 부드러운 권면을 오히려 힘 못 쓰는 사도의 표징이라 매도할 정도였다. 더우기 그들은 바울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이처럼 신앙이 성숙치 못한 자는 무엇이 참인지를 모르고 진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많다.

(4)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 갈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겠다고 확언하였다.

(5) 더우기 그리스도는 그들을 향하여 약하지 않으시며 도리어 그들 안에서 강하신 분임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사도인 바울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참조, 갈2:20; 빌4:13).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곧 믿음의 능력을 보여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의 놀라움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7) 그러나 그 능력은 결코 기적이나 마술일 필요는 없다. 그 능력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찾아오는 변화이면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특별한 은사를 사모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사가 가장 값진 것이다(참조, 고전13장).

4. **Q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어디에 비유하였는가?** (4절)

A (1) 그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박힐 수밖에 없었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다.

(2) 그런데 여기서 '약하다'함은 육체적인 나약함이나 정신적인 무기력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앙심을 품거나 보복을 하지 않는 약함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약함이다(참조, 빌2:8).

(3) 바울은 지난 번 고린도 방문 때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지 못한 것을 '약함'이라고

인정하였다.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생명을 지닌 바울은 고린도에서 불순종하는 자를 판단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의 위대함을 나타낼 것을 예고하고 있다.

(5) 옛날의 바울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죽었다. 즉 그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고 이제는 그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바울은(참조, 갈2:20)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든 자들 앞에서 그분의 대언자요 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참조, 벧전1:3;3:18).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과 죄를 십자가에 넘기고(참조, 롬6:4) 이제는 그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된 것이다(참조, 롬6:5-8).

5. **Q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 시험은 어떤 것인가?** (5절)

A (1) 스스로 자신들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진정 버리운 자들이다.

(2) 바울은 이제까지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그치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한다.

(3) 즉 그들이 여태껏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것은 바울의 우둔하고 미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미성숙했거나 믿음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혔다.

(4) 따라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에 있는가'를 살필 것과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를 알아보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물음은 곧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된다(참조, 롬8:9).

(5) 우리가 흔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는 쉽지만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기란 어렵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살핀다면 결코 남을 비판할 만한 자고(自高)함이 사라질 것이다.

(6)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신앙 생활은 물론 자신의 일상 생활까지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 만족에 빠져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이다(참조, 눅6:46).

6. **Q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궁극적 바람은 무엇인가?** (6, 7절)

A (1)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치 않게 해주시기를 바랐다.

(2) 여기서 '버리운 자'란 '실패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그 실패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납득시키지 못한 실패를 가리킨다.

(3) 그러나 그의 근본적 관심은 그들이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비록 바울 자신의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4)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도 좋다'는 세례 요한의 마음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요3:30).

(5) 이와 같이 목회자들의 자세는 결코 자신의 영광과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10:11). 이것이 곧 자기는 죽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행위이다.

7. **Q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무엇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였는가?** (8절)

A (1) 진리를 거스릴 수 없다 하였다. 즉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이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바울이 의미하는 '진리'는 곧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가리킨다. 이처럼 그의 사역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지식을 널리 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있었다.

(3) 반면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진리를 거부한 채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명예나 부라는 측면에서 진리를 가르치는 바울보다도 월등하게 앞서가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가서 가장 약한 자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4)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 했다. 그가 모욕을 받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주는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5) 이처럼 복음의 진리가 그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다(5:14).

8. **Q 바울은 자신이 비록 약하더라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9절)

A (1) 고린도 교인들의 강함과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2)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버리운 자'와 같이 되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3) 오직 그는 자신의 권위와 그 권위를 사용할 기회마저도 잃게 되어서 연약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약함이 고린도 교인들을 강하게 한다면, 즉 그들의 믿음이 강해진다면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4) 여기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란 '개선하는 것' 혹은 '진보하는 것'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끝내 비참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5) 이처럼 바울이 보인 사랑과 희생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습과 같다(참조, 사53장). 즉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연약해지셨고 우리의 온전한 영혼을 위해 스스로 죄 있는 모습이 되셨던 것이다.

(6) 또한 이 모습은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신 모습이기도 하다(요일4:11). 즉 우리는 이웃을 나보다 낫게 하려는 헌신적인 기도와 봉사가 필요하다(참조, 빌2:3). 그러나 우리 혼자로서는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9. **Q 바울이 고린도에 가는 것을 연기하면서 엄한 편지를 쓴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10절)

A (1)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 추방당하거나 책망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2) 바울의 인내와 사랑 혹은 오래 참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약한 요소처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사로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3)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는 결코 그들의 인격을 파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화(敎化)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4) 그런데 본절은 본서의 최종 결론으로 2절과 10:2,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사용해야 할 것이다(참조, 창29:2-10). 특별히 성도들은 이웃을 평안과 진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10. **Q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무엇인가?** (11절)

A (1) 먼저 그는 '기뻐하라'고 했다. 이는 자신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체험하라는 성숙한 신앙에로의 초대이다. 이러한 기쁨은 한 순간의 것으로서가

아니라 계속되어야 할 성도의 의지적 감정이다.

(2) 둘째로 '온전케 되라'고 했다. 이 말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케 하는 인도에 자신을 맡기고, 적극적으로는 그들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걸으라는 말이다.

(3) 세째로 '위로를 받으라'고 했다. 이는 수동적인 의미로 '바울의 권유를 받아들이라'는 뜻이며, 적극적인 의미로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라는 뜻이다.

(4) 네째로 '마음을 같이하라'고 했다. 이는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지니라'는 말로서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의 경향을 경고하는 말이다(참조, 롬12:16;15:5;빌2:2).

(5) 다섯째로 '평안하라'고 했다. 이는 영적으로 조화된 생활을 형제 사이에 이루라는 뜻이다.

(6)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이와 같은 권면을 받아들인다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격려도 덧붙인다.

(7) 즉 그들이 서로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한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가르친다면 하나님 역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8) 그런데 여기에 강조된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의미한다(참조, 롬5:1;엡2:14-18).

(9) 또한 그들은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권면을 받고 있는데 이는 초대 교회에서 널리 행해지던 한 습관을 의미한다(참조, 롬16;16;고전16:20;살전5:26;벧전5:14).

(10) 그때 성도들은 신앙 안에서 한 형제라는 표로 예배 때에 입맞추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 입맞춤은 '거룩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11) 오늘날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나 국가 간에 요구되는 것도 화해이다. 그것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모두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셨다(참조, 요14:27).

11. Q 이 세상으로 하여금 화평케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1, 12절)

A (1) 그 책임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다.

(2) 그런데 화평이란 가정, 교회에서조차도 이루기 힘든 일이다. 하물며 민족과 언어와 종교, 관습이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화평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민족, 종교, 관습을 떠나서 서로 공존하며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4)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온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5)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러한 일을 달성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그 일이 교회의 가장 으뜸가는 일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참조, 엡5:8).

(6)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및 교회가 있는 곳에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기독교인 또는 교회라고 내세우지 못할 것이다(참조, 롬14:19).

(7)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 위에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한다(참조, 요15:9).

12. Q '모든 성도'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2절)

A (1) 그들은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장소에 있던 신자들을 말한다.

(2) 그런데 이 귀절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전세계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 세계 교회 의식(意識)은 그들을 고립된 좁은 환경에서 끌어내기 위해 바울이 의도적으로 한 말이다.

(3) 이와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 안의 형제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과, 우리도 그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분명 고독하게 신앙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8:2-5).

13. Q 바울의 축도 내용은 무엇인가? (13절)

A (1)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交通)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다'라는 것이다.

(2)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되는 축도와 같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삼위 일체론(三位一體論)을 말한다기 보다는 바울이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묘사한 것이다. 물론 이 축도는 삼위 일체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자료가 되었다.

(3) 바울은 이 축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한다. 즉 그가 강조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사랑의 계시가 드러났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4) 한편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인간을 구원하신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롬5:8;8:32).

(5) 마지막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교와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의 활동과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설립되고 또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6) 그런데 이 축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는 상호 유기적으로 역사(役事)하시어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 준다(참조, 창1:1-3,26).

(7)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러한 축도 앞에 엄숙히 '아멘'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겸손과 희생을 가능케 만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나 분노를 없애 주실 것이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들이 다투고 분당하는 일을 종결시키실 것이다.

(8) 결국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참된 진리와 평안을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장의 요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11절).